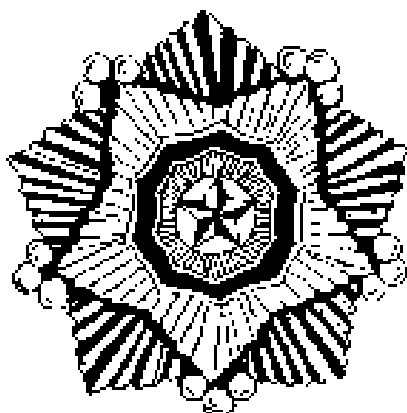




10

주체 90 (2001)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0(2001)년 제10호

(루계 제 648 호)

## ◆◆◆◆◆◆◆◆◆◆ 차 례 ◆◆◆◆◆◆◆◆◆◆

당의 령도 따라 전진하여 온 빛나는 로정 .....	4
마치와 낫과 붓 .....	8
자나깨나 .....	9
세기를 이어 높이 올려라.....	10
오늘은 명절보다 더 기쁜 날 .....	10
기다림속에 그리움속에 .....	11
제일사랑 동지애 .....	11
말 없는 《벗》 .....	12
당창건기념일에 .....	12
복주머니 .....	13
우리 당 선군사랑의 위대한 철리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해명 .....	23
명언해설 .....	26
청봉의 푸른 이깔(외 1 편).....	27
무지개 .....	27
거울 .....	28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이 비낀 의의 깊은 세부 .....	30

위훈 .....	32
6 월의 금강속사 .....	40
서정과 운률의 조화 .....	42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	44
나의 멋(외 1 편).....	45
유치원마당가에서 .....	45
넓어 지는 땅.....	46
소탈한 《친구》 .....	54
제일강산아!.....	55
매 표구 .....	57
군화끈을 한번 더 조여라.....	66
첨예한 극성, 서정의 분출.....	67
21 세기 과학기술전망 .....	71
《카프》의 문학운동에 대한 남조선 진보적문학인들의 연구동향.....	72
화산 .....	74

# 당의 령도 따라 전진하여 온 빛나는 로정

-조선작가동맹창립 55돐을 맞으며-

김순림

창조와 변혁의 새 세기에 우리 작가들은 조선작가동맹창립 55돐을 뜻 깊게 맞이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지금으로부터 55년전인 주체35(1946)년 10월 13일 조선작가동맹을 창립하여 주신것은 참다운 민족문학건설의 새 장을 열어 놓고 유구한 민족문학사에 근본적전환을 가져 온 력사적리정표이다. 이때로부터 우리 작가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위대한 당과 수령의 올바른 령도를 받으면서 자기 운명과 창작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보람찬 작가적삶을 빛내일수 있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작가대오의 형성과 성장발전과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비범하고 세련된 령도사와 직접 잇닿아 있으며 우리 당 지식인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집대성이라고 말할수 있다.

인류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작가들은 시대정신의 대변자, 사회력사적운동의 추동자로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것은 작가들이 스스로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가 되어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작가들은 오직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올바른 령도를 받아야만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으며 혁명에 참담게 이바지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선 첫 시기에 식민지작가, 지식인들의 처지와 특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작가, 지식인들을 조선혁명의 기본력량의 하나로 내세워 주시였으며 혁명대오에 튼튼히 묶어 세우시였다.

우리 혁명의 첫 대오를 꾸리시던 간고한 시기에 혁명앞에 다진 맹세 변치 말데 대한 뜻깊은 글발로 열혈청년의 첫 세대 혁명시인을 뜨겁게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작가들에 대한 위대한 믿음과 그렇듯 숭고한 동지적사랑과 의리가 있었기에 우리 작가들은 수령과 전사, 령도자와 작가사이의 땀레야 땀수 없는 혈연적뉴대에 기초한 혼연일체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로동계급과 근로농민, 문화인들이 3개의 기둥으로 되어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여기에서도 특히 작가들

은 선전교양자적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하리라는 굳은 믿음을 안겨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회발전의 주요동력은 로동자, 농민과 지식인입니다. 동무들은 낡은 식민지반봉건사회를 진보적민주주의사회로 개조하며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 있습니다.

동무들에 대한 조선인민의 기대는 대단히 크며 민주조선건설에서 동무들의 사명은 매우 무겁습니다.

동무들은 문화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투사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가, 지식인들에 대한 이런 신뢰와 기대로부터 비범한 포용력과 독창적인 정책으로 건국초기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각지에 흩어 저 있던 작가들 한사람한사람을 찾아 내도록 하시고 그들을 친히 만나시여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 주시고 건국사업과 민족문학건설에서 차지하는 작가들의 위치와 역할, 해야 할 임무를 뚜렷이 밝혀 주시였다.

작가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두터운 믿음과 사랑의 인력으로 하여 오랜 작가들이 주저없이 자기의 운명을 수령님께 의탁하고 당을 따라 나아갔으며 남조선에서도 수많은 작가들이 적들의 위협과 공갈, 회유를 물리치고 사선을 넘어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품을 찾아 왔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시며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작가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랑과 은정을 그대로 체현하시고 친히 작가들을 저택에 부르시여 새 민주조선건설에 이바지할 문학작품창작방향도 가르쳐 주시며 따듯이 환대하여 주시였다.

참으로 지난 날 믿음데 없고 의지할데 없는 식민지작가로서 온갖 굴욕을 강요당하며 수난많은 민족의 설움을 시기에 엮으며 방황하던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게 됨으로써 수난에 찬 인생행로에 종지부를 찍고 참다운 민족문학건설의 주인으로,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될수 있었다.

당과 수령의 절대적이며 무한대한 믿음과 극진한 보살핌이 있었기때문에 우리 나라의 오랜 작가들은 해방직후 모든것이 부족하고 매우 어려웠던 가운데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당을 받들고 로

동자, 농민들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사람들을 새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힘 있게 고무하는 작품들을 활발히 창작하였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서사시 《백두산》, 단편소설 《개선》 등을 비롯하여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들과 가사 《애국가》,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장편소설 《땅》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은 당과 수령의 품속에 안겨 재생의 삶을 누려 가는 우리 작가들의 심장에서 나온 창조물이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엄혹한 전쟁의 시련 속에서도 작가들에 대한 당과 수령의 사랑과 믿음은 변함이 없이 더욱 자애롭고 뜨거워 졌으며 그것은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해방후 처음으로 자기 조국의 품속에서 새로운 민족문화건설의 주인이 되어 혁명적작가의 보람찬 삶과 행복을 체험한 우리 작가들은 침략자를 반대하는 전인민적성전에 한결같이 떨쳐 나서 종군작가로 용약 전선을 탄원하여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영웅한 인민군대오와 함께 멀리 락동강계선까지 나가 전투적인 문학작품으로 화선선전활동을 벌리고 일시적인 전락적후퇴시기에는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 내면서 적의 포위망을 뚫고 적후천리 험산준령을 넘어 당중앙을 찾아 왔다. 이 사상정신적바탕에는 수령과 조국에 대한 우리 작가들의 확고한 신념과 충실성이 놓여 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전선을 탄원한 우리 작가들에게 친히 자신의 존함으로 된 종군작가신임장도 안겨 주시였으며 그들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에 소속시키고 전 지역에서 신변안전과 취재 및 창작활동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 주시였다. 그리고 최고사령부 작전대우에서 영웅한 인민군전투원들과 함께 결사대원이 되어 수류탄뭉음을 안고 적진속에 뛰여 들어 장렬한 최후를 마친 한 시인이 쓴 서사시를 보시고는 못내 애석함을 금할수 없으시여 그가 남기고 간 작품을 출판하도록 하시였으며 펜을 무기로 삼아 최후의 순간까지 서사시를 쓰다가 전사한 한 시인의 비보를 받으시고는 정부기관지에 부고를 내도록 하시고 공화국내각에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도록 하시고는 시인의 명전에 자신의 명의로 화환까지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숭고한 사랑과 믿음은 우리 작가들의 수령과 조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충실성의 원천이였고 마지막피한방울까지 다 바쳐 수령과 조국을 사수하는 작품을 창작하도록 이끌어 준 창조의 원동력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후 전쟁의 폐허를 헤치며 복구와 건설을 해야 할 어려운 조건에서도 문

학운동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혁명이 요구하는 작품들을 창작할수 있도록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 주시였으며 작가적삶을 빛내일수 있게 하여 주시였다.

우리 작가들이 걸어 온 빛나는 삶의 로정은 그 개척자인 수령의 령도사인 동시에 그 후계수령의 령도사이다. 위대한 령도의 계승속에 우리 작가들의 영생하는 삶이 있다.

우리 작가들은 후계수령의 위대한 령도를 제일 먼저 받는 최대의 행운을 지니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문학을 수령의 문학으로 강화발전시키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이룩하신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문학이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 받은 참말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으로 개화발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하여 우리 문학은 인류문예사상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수령형상문학인 총서 《불멸의 력사》를 창작하여 수령형상문학의 빛나는 성공탑을 쌓았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수령형상문학은 문학의 모든 형태와 형식에 걸쳐 기본의 기본으로 주류를 이루고 발전하고 있다.

일대 전성기를 빛내이며 개화만발하는 우리의 수령형상문학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는 최상의 영예와 특전을 누림으로써 새로운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미 총서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들과 시가작품들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형상한 다양한 형식의 문학작품들이 왕성하게 창작되여 주체문학의 위력을 더욱 과시하고 있다.

수령형상문학의 찬란한 발전은 전반적인 문학운동의 비상한 추동력이 되였으며 우리 문학에서의 창작적비약을 이룩하게 하는 근본담보로 되였다.

지금 우리 문학은 소설, 시, 아동문학, 극문학, 평론 등 모든 분야에서 류례 없는 혁신적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시대의 명작들로 주체문학의 보물고를 빛나게 장식하고 있다. 더우기 우리 문학은 여러차례의 큰 형식의 작품 100편 창작전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수백여편의 장중편소설과 서사시를 비롯한 기념비적인 명작들을 창작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 있다.

우리 문학은 특히 문학을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전반적인 예술발전에 힘있게 기여하고있다. 우리 문학은 오가자에서 혁명의 꽃씨, 자



주의 꽃씨를 뿌리기 시작한 꽃분이의 걸음이 혁명가극의 무대를 타고 지구의 동쪽과 서쪽 한끝에 이어져 세계를 격동시킨 경이적인 사변을 비롯하여 《20세기 문예부흥》의 대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 우리 문학발전에서 이룩된 그 모든 놀라운 성과들은 우리 작가들이 일찌기 천출위인이시며 희세의 정치가이시고 대문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자애로운 아버지, 스승으로 높이 모시는 남다른 행운을 지니였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잊을수 없는 주체61(1972)년 9월 6일에 그처럼 바라마지 않던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그이의 가르침을 받은 그 영광의 시각은 우리 작가들이 당의 작가로 새롭게 태어난 운명 전환의 역사적인 계기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작가대오는 당의 평도를 생명선으로 하여 당의 유일사상체제가 철저히 서고 혁명화, 로동계급화된 당과 수령의 작가부대로 더욱 성장발전하였으며 수정주의, 사대주의, 봉건 유교사상, 가족주위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의 잔재를 깨끗이 털어 버리고 도식과 류형, 구태의연성을 비롯한 형상의 낡고 진부한 묵은 때를 말끔히 벗김으로써 **김일성**주의문학건설의 힘 있는 역량으로,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 튼튼히 준비되었다.

참으로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평도는 신념과 의지였고 사랑과 믿음이었으며 창작적열정의 영원한 저수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작가들을 당의 귀중한 재산으로, 나라의 보배로 여기시고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라는 최상의 높이에 올려 세워 주시었을뿐아니라 작가와 작품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 주고 보호해 주시는 운명의 수호신이었다.

작가들이 창작과정에 일시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따듯이 일깨워 주고 가르쳐 주어 혁명대오에 변함없이 굳건히 세워 주시었다.

량심에 조금이라도 티가 앓고 변질이 가면 청신한 신념의 넋을 안겨 주어 가서 주시고 재능이 무디면 붓끝을 버려 주시고 육체가 쇠진해지면 생명세포를 소생시켜 주시고 활력을 안겨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렇듯 자애로운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세월의 망각속에 영영 묻힐번한 한 작가가 영생의 삶을 누려 후세에 길이 전해지는 꿈같은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다.

하기에 실명에 전진불수라는 최악의 육체적 조건에서도 림종의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은 로작가가 생전에 그처럼 간절히 소원한것은 번개의 섬광과도 같은 순간의 빛이라도 자신의 눈에 비친다면 위대하고 인자하신 그이의 모습을 영원히

심장에 간직하고 싶은것이었고 일시 대오에서 떨어져 저 운명의 곡절을 겪던 작가가 키워주고 보살펴 주는 그 품이 없이는 살수 없어 순결무구한 동심으로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며 바란것도 그이의 슬하에 다시 안기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가 력사에 류례 없는 간고한 시련속에서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계속하며 적들과 총포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엄혹한 때에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끊임없이 이어 가시는 전선시찰과 사회주의건설장들을 찾으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늘 우리 작가들을 생각하고 계셨으며 전선길에서 울리는 병사들의 노래소리와 속보판에 나붙은 한편의 시구절을 보시고도 작가들의 수고를 헤아려 주시면서 우리 작가들을 가까이 세워 주시었다. 사실 우리 작가들은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의 관심속에서 살고 있으며 천출명장의 체취를 가까이에서 뜨겁게 느끼며 창작하는 이 세상 최대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우리 작가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더욱 자애롭고 뜨겁게 표현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이 류례없이 간고한 시련을 겪고 있던 시기에 선군혁명문학의 시원을 열어 주시고 우리 작가들을 선군혁명문학창조으로 힘있게 이끌어 주시었다.

우리 문학은 20세기 마지막년대에 아직 인류문학이 겪어 보지 못한 가장 준엄하고도 격동적인 시기를 체험하였다.

우리 인민은 아버지수령님을 잃은 민족의 대극상을 당하여 전대미문의 슬픔을 이겨내고 일떠서야 했고 사면팔방으로 덤벼드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과 참기 어려운 경제난관을 뚫고 류례 없는 사회주의수호전을 벌려야 했다. 우리 문학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로 하여 군사는 물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 나고 인간도 사회도 투쟁과 생활도 새롭게 일신한 선군시대라는 완전한 하나의 력사적시대를 맞이하는 특전을 누렸다.

하여 우리 문학은 선군혁명문학의 새로운 형상세계를 탐구개척하게 되었다.

선군혁명문학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사상정서적으로 구현한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문학, 장군님을 따라 군대와 인민을 사회주의결사수호애로 소리쳐 부르며 사선천리를 과감히 헤쳐 온 영웅적인 문학으로서 주체사실주의문학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이루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20세기 마지막년대 6년 기간에만 하여도 1,380여편의 문학작품을 지도하여 주시였으며 수천여건에 달하는 문학운동에 대

한 정도의 자욕을 새기시었다.

돌이켜 보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초기에 우리 작가들은 일시나마 창작부진을 가져 왔고 동면하려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사실을 헤아려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6(1997)년 3월 16일과 18일 두차례에 걸쳐 작가들은 순결한 량심의 필봉을 들고 글을 쓰다가 순직하는 한이 있더라도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명작을 창작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일깨워 주시면서 작가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워 결사관철의 투철한 작가를 간직하도록 이끌어 주시었다.

그리고 고전적으로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를 제시하시어 작가들로 하여금 가장 어려운 《고난의 행군》시기에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명작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켜 나가도록 하시었으며 제4차 큰 형식의 작품 100편창작전투와 당창건 55돐기념 전국문학축전을 비롯한 주체문학운동을 더욱 세차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7(1998)년 1월 2일 우리 작가들이 령도자와 같이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쇠소리나는 좋은 글들을 많이 써내고 있을뿐아니라 오늘과 같은 시련의 시기에도 변함없이 당을 따르고 있다고 높은 평가를 주시었다.

그리고 선군령도로 현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 가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작가들의 창작을 친히 지도하여 주시어 시대의 명작으로 되게 하시었고 선군혁명문학의 화원을 풍부히 하여 주시었다.

작가들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최대의 사랑과 믿음은 작가들에게 정치적생명을 안겨 주시어 당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하는 전위대오에 세워 주시는 은정에서 더욱 뜨겁게 표현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작가들이 창작적 성과를 이룩하였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청년작가들에게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안겨 주시는 최대의 사랑과 믿음을 돌려 주시었다.

바로 그러한 사랑과 믿음으로 특별한 공연이 있을 때마다 친히 작가들을 부르시어 자신의 곁에 가까이 앉혀 주시었고 류다른 식료품이나 남방과일이 생겨도 제일 먼저 우리 작가들에게 보내주시었다.

그리고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것처럼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을 때에도 작가들의 건강을 넘려하시어 특별휴양까지 조직해 주시었고 수많은 고급약재들을 보내주시고 다른 나라에 가서 치료하도록 해주시었다.

20세기 마지막년대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우리 작가들은 령도자와 혼연일체를 이루고 운

명을 같이 하며 주체문학운동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왔으며 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는것으로 위대한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였다.

예로부터 전하기를 인간의 의리는 산처럼 무겁고 죽음은 깃털처럼 가볍다고 하였다.

이말은 인간으로서 의리를 지키는것이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는 뜻이고 의리를 위하여서는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이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는것을 일깨워 주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을 운명의 구성으로, 생명의 은인으로, 자애로운 스승으로 모시고 온갖 사랑과 믿음을 다 받아 안으면서 문학창작의 길을 가고있는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문학으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며 받드는것은 의리이고 량심이고 삶의 전부이다.

이러한 숭고한 자각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작가들은 문학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켰다.

특히 우리 당의 위대한 혁명실록이 엮여 지던 잊을수 없는 나날 우리 작가들의 신념과 의리는 더욱 뜨겁고 순결하게 발양되었다.

우리 작가들은 그 나날에 선군혁명문학창조와 건설에서 일대 혁신적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선군혁명문학운동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 감정정서를 반영한 수많은 시대의 명작들로 선군혁명문학의 화원을 빛나게 장식하였다.

서사시들인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와 《조국이여 청년들을 자랑하라》를 비롯하여 수많은 시가문학이 선군시대의 다양한 생활을 깊은 서정으로 노래한것은 선군혁명문학에서 특별히 이채를 띠는것이다.

선군혁명문학의 특징과 생활력은 제4차 큰 형식의 작품 100편창작전투와 당창건 55돐기념 전국문학축전을 통하여 뚜렷이 나타났다.

제4차 큰 형식의 작품 100편창작전투와 당창건 55돐기념문학축전은 선군혁명문학의 우월성과 빛나는 성과를 담보한 중요한 계기였으며 령도자의 정치에 이바지하는 우리 문학의 본성을 뚜렷이 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선군혁명문학운동을 통하여 모든 작품들의 문제성과 시대성이 강화되고 형상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소설, 시, 아동문학, 극문학 등 문학의 모든 분야에서 창작적양양이 일어 났으며 평론, 고전, 외국문학부문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군중문학운동이 활기를 띠고 힘 있게 벌어 졌다.

이 모든 사실은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서의 우리 작가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총적인 면모라고 말할수 있다.

작가들의 창작기풍에서도 혁명적전환이 일어났다.

선군혁명문학운동은 령도자와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하는 참다운 당적작가의 성장과정이었다.

오늘 우리 작가들의 사상미학적리상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와 완전히 일치되고 있다.

우리 작가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하게 극복타개하면서 오로지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믿고 선군혁명문학을 창조한다는 투철한 자각을 안고 헌신분투하고 있으며 심혈을 다 바치고 있다.

나이 많은 소설가들이 한해 남짓한 기간에 부피 두터운 장편소설을 쫘쫘 써내고 가정을 떠나 온갖 악조건을 이겨내며 창작에 모든것을 다 바친 작가들의 헌신적인 투쟁, 녀성작가들이 가정생활을 뒤로 미루고 어려운 강행군을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의 로정을 따라 현실을 체험하고 명작을 창작한 사실, 《고난의 행군》이

덜씩우는 시련을 이겨내며 명작을 창작하고 순직한 작가들의 귀중한 창작정신 등은 선군혁명문학운동시기에 발현된 혁명적창작기풍의 귀중한 산모범들이다.

참으로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걸음걸음 따르며 지난 7년혁명사에 아직 인류문학이 체험해 보지 못한 위대하고 격동적인 사변들과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선군혁명문학의 줄기찬 격류를 타고 20세기 마지막령마루에 궁지높게 올라서서 지난 세기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주체문학운동에서 이룩된 이 모든 사실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미 55년전에 조선작가동맹을 창립해 주시고 강화발전시켜 주시었으며 수령님

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작가대오를 주체문학건설의 믿음직한 담당자로 키워 주시고 이끌어 주신 빛나는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작가동맹창립 55돐을 맞는 우리 작가들은 새 세기에도 영원히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작가로서의 사명을 다해 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새 세기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문학창작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일으켜 나가야 할 무겁고도 책임적인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는 새 세기의 사회미학적리상과 사람들의 미학정서적요구에 맞게 문학창작의 모든 부문에서 일대 혁신과 양양을 일으켜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그 어떤 어려운 창작의 요새도 점령할수 있다는 수령 숭배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을 가지고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켜 새 세기 문학운동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당면하여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과 뜻 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진행하는 창작전투를 면밀하게 작전하고 모든 창작력량을 집중함으로써 승리적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모두다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21세기를 **김정일**주의문학세기로 빛내이기 위한 문학운동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마련함으로써 위대한 령도자의 작가로서 숭고한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가자.

## 마치와 낫과 붓

권강일

끓어 솟는 힘 불끈  
억세게 틀어 잡은 세팔뚝  
마치와 낫과 붓

맑은 하늘 둥그런 천정을  
높이 떠들어 올린 3형제기둥  
마치와 낫과 붓

보아라 이것으로 인민의 참된 세상을 펼쳤다  
평범한 사람들의 손과 손에 떠받들린  
마치와 낫과 붓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가 주인이라는 진리를  
세상 다 아는 말로 이야기하는  
마치와 낫과 붓

인간의 지위와 존엄을 첫째로 꼽아  
지구의 한복판에 지축인양 세워진 불멸의 탑  
마치와 낫과 붓

고마운 태양을 우러르듯  
인간이 우러러 높이 쳐든  
아, 마치와 낫과 붓!



## 자나깨나

윤경남

해지는 저녁이면  
더욱 간절해라  
우리 장군님  
이 밤엔 오실가

동 트는 아침이면  
못견디게 그리워라  
우리 장군님  
아직도 오시지 않으셨구나

저멀리 가신곳  
천리만리여도  
그리움에 젖어  
자나깨나 잊지 못하는 이 마음이어

무더운 삼복더위날에  
그리도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우리 장군님 오르셨으니  
아, 안타까운 마음이어  
우리 장군님 가시는 길  
함께 따라서는 간절한 마음이어

그래서  
아침일찍 일어나면  
방송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고  
저녁이면 텔레비존앞에서  
떠날줄 몰라라

방송원의 뜨거운 목소리  
우리 장군님  
로씨야대통령과 상봉  
조로모스크바선언문에 수표  
레닌묘 방문  
우주과학센터  
중앙우주비행조종센터 참관...

아, 파도치는 환희여  
설레이는 격정이어  
새 세기 조로친선의 뉴대

빛나게 장식한 력사의 사변이어!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공적이어!

우리 장군님 계시여  
이땅의 존엄 빛나고  
조선의 영광도  
민족의 긍지도 있어라

외국방문의 나날  
우리 잠시도 편히 쉬지않고  
천생각 만생각  
그이만을 생각한 낮과 밤이어!

너 불어 오는 이국의 열풍아  
쏟아지는 폭우야  
잠시나마 멈추어다오  
우리 장군님 가시는 길에  
시원한 바람 옷자락 스쳐다오

그이 오실 날 기다리며  
어제도 오늘도  
모두 떨쳐나  
거리와 마을 더 알뜰히 거두고  
일터마다 혁신의 불꽃 날릴 때

해빛같은 환한 미소 안으시고  
외국방문의 길에서 돌아오시는것만 같아  
문득 생각에서 깨어나면  
아니구나  
나의 거리구나  
나의 일터구나

자나깨나  
우리 장군님만을 마음속에 그리며 산  
낮과 밤  
먼길에 부디 안녕히 다녀 오시라  
우리 장군님 오시는 길에  
이 마음 침묵이 되어 떠받들리  
이 마음 한송이 꽃으로 피여 나리

## 세기를 이어 높이 올려라

송찬웅

가실 땐 두만강 건너  
광활한 씨비리초원을 지나가실 땐  
우리 장군님 편히 다녀 오시라고  
안녕을 바라는 뜨거운 마음들이  
두줄기 철길에 걸음걸음 따라 서더니

오실 땐 무더운 삼복철에  
친선의 만리길을 다녀 오실 땐  
그리움에 젖어 잠 못들던 마음들이  
감격에 겨워 환호를 터치는가  
싱싱푸른 벼포기도 반겨 설레고  
온 나라가 기쁨 안고 인사를 드리여라

선군혁명 천만리길에  
쌓이고 쌓인 피로도 푸실새없이  
수령님 다녀 오셨던 사연 깊은 그 길로  
조로친선력사에 새장을 펼치시며  
조선의 존엄과 영광 온 세상에 떨치시고  
조국으로 돌아 오시는 장군님!

잊을수 없어라 열일곱해전  
머나먼 동유럽대륙을 순회하신 수령님  
달포도 넘어 조국에 돌아 오실 때  
강산에 차넘쳤던 인민의 환호소리  
그 소리 오늘 또다시  
장군님 오시는 길에 높이 울리는가

수령님 조국을 떠나계실 때

더 큰 기쁨을 드리시려는  
장군님 뜻을 받들어  
우리 창조와 혁신으로 위훈을 수 놓던  
못 잊을 그날처럼 그 나날들처럼

멀리 계시는 장군님을 그리며  
천리전선 초소마다 총대는 숲으로 솟고  
과학기지에 꺼질줄 모르는 탐구의 불빛  
탄전마다 석탄산은 높이 쌓여 지고  
들판마다 푸른이삭 설레이는 속에  
나도 시가의 붓대를 버리어 왔나니

아, 오시는 길에  
장군님 오시는 길에 기쁨 가득 드리려고  
억척스레 일손을 다그쳐 온 마음들이  
저마다 만세의 환호를 높이 터치여라

새 세기의 첫해  
중국에 이어 로씨야대륙에  
반제전선, 평화전선을 굳게 다지시고  
먼길을 다녀 오시는 장군님을 우러러  
심장으로 터치는 격정의 그 환호  
노래되어 하늘땅을 진감하여라

오, 자주정치의 원로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금지롭고 행복 넘친 인민의 환호소리  
세기에 세기를 이어 끝없이 올려 퍼져라!

가사

## 오늘은 명절보다 더 기쁜 날

최창석

기념사진 찍으시고 떠나시던 날  
다시 오마 웃으시던 어버이모습  
그리워 꿈결에도 뵈고 싶더니  
장군님 약속대로 또 오시였네  
랄라라 오늘은 명절보다 더 기쁜 날

동무들이 그리워 다시 왔다며  
밝은 미소 지으시는 우리 어버이  
고마워 고마워 우러르는 맘

해 솟는 바다처럼 설레인다네  
랄라라 오늘은 명절보다 더 기쁜 날

그이 모신 행복은 하늘에 닿고  
받들어 갈 충성으로 심장 불 타네  
날마다 오늘의 기쁨에 살며  
장군님 한분만을 높이 모시려  
랄라라 오늘은 명절보다 더 기쁜 날

## 기다림속에 그리움속에

김석주

오셨습니다  
문득 밤중에 깨어 나도  
눈에 어려 오던 씨비리 대초원  
달리는 렬차의 불빛을 따르며 기다리던  
아, 장군님 오셨습니다

산 설고 물 설은 이국만리길에 계시니  
더욱 그립던 장군님  
먼길에 언제 돌아오시나  
억만개 침묵을 마음속에 세여 보며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군님

풍토 다른 북쪽나라  
장마철 폭우는 어떻게 그으시고  
삼복철 더위는 어떻게 헤치시는지  
잠시 아니 계시어도 나라가 빈듯 싶어  
부르며 마중가며  
먼길에 아버지 안녕을 바라던 마음

한적한 어느 역에서  
잠시 쉬시어도 좋으련만  
조국에 두고 오신 일 많고  
늘 마음속에 안고 계신  
그 인민이 그리워  
불원천리 더 빨리 하신 걸음  
하루길에 천리 몇천리

차창에 어려 오는 병사들 모습  
꿈에도 보시던 아이들 얼굴  
아, 기다리던 인민들을 한시바삐 만나시려  
아버이장군님 밤낮으로

만리길을 쉬지 않고  
단숨에 달려 오신것 아닙니까

조국에 계실 때도 늘 바쁘시던 걸음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안전을 위해  
이 땅의 전선길을  
조로친선의 만리로 이으시며  
지나신 역들은 천이런가 만이런가

그리움이 기다림입니까  
기다림이 그리움입니까  
떨어져 못 사는  
정이고 사랑이고 피와 살이여서  
그것이 꽃다리 되고 주단길로 펼쳐 진  
기다림의 만리길

기다렸습니다  
멋쟁이된 취아벌이 벼이삭을 피워 놓고  
금진강이 행복의 물노래 펼쳐 놓고  
저기 대흥단의 감자밭, 여기 어린이식료공장...  
온 나라가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엮어 들고

떠나신 날이 기다린 날이었습니다  
떠나신 그 순간이 기다림의 시작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다림  
행복의 기다림  
아, 오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기다림속에 장군님 오셨습니다

(주체90. 8. 21)

가사

## 제일사랑 동지애

리명근

수령을 동지라 부르며 꽃 피난 사랑  
전사를 동지로 믿어 준 뜨거운 사랑  
수령과 전사가 뜻과 정을 같이 한  
사랑중의 제일사랑 동지의 사랑이여

불같은 그 사랑 백승의 기발이 되고  
천만의 가슴에 일심의 뉘이 되었네

수령과 전사가 생사운명 함께 한  
사랑중의 제일사랑 동지의 사랑이여

혁명의 먼길에 의리로 깊어진 사랑  
신념과 열혈의 동지로 영원한 사랑  
수령과 전사가 심장속에 간직한  
사랑중의 제일사랑 동지의 사랑이여

## 말 없는 《벗》

주체65(1976)년 11월 9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본의 저명한 사회활동가이며 작가인 오다 마코도를 만나시고 담화를 나누신 후 그를 위해 만찬을 베푸시었다.

오다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의 정세와 여러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자와 실례를 들어 가며 말씀하시자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주석각하께서는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을 령도하시느라 책을 보실 시간도 없었겠는데 어떻게 것처럼 방대하고도 해박한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었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밝게 웃으시었다.

그러시고는 시간이 많아서 책을 보는것이 아니라고, 자신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전투의 여가에 짬짬이 책을 보곤 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유격투쟁을 하시면서도 책을 읽으셨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나는 그때 일본책도 보고 로씨야책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책을 읽으셨습니까?》

《나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중국의 옛날책들을 거의다 읽었습니다. <서유기>와 <삼국연의>라는 책도 다 읽어 보았습니다.》

《로씨야의 소설도 읽어 보셨습니까?》

《로씨야의 소설도 많이 읽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을 많이 읽었습니다.》

《도스토옙스끼의 소설도 읽으셨습니까?》

《읽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책들을 보셨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탄복하게 됩니다. 주석각하께서는 작가인 저보다도 더 많은 책을 보셨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책은 말 없는 <벗>입니다.》

《참으로 고명한 말씀입니다.》

## 당창건기념일에

비전향장기수 김창원

백두에서 뿌리 내린 조선로동당  
전체 조선인민이  
운명을 같이하는 우리 당 창건절

보무당당한 열병행진  
장령과 병사 한몸 되어  
천지를 흔든다

끝끝해  
군화소리 짝악- 짝  
광장을 누벼 가는  
하나의 모습들  
전체가 하나로 뭉쳐 움직이는  
일심의 대군단을 이루었다

세계를 경탄케 하며  
가는 곳마다 울리는 승리의 함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우리는 강계정신에서 배웠고  
절해고도에서 신념으로 굳혔고  
간고분투 《고난의 행군》에서  
철의 진리로 증명했나니

아, 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조선로동당은 불패의 당으로 영원하리라  
장군님 따라 조선은  
승리의 한길로만 나아가리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만만세!

# 복주머니

박찬은

## 1

실버들 늘어 진 내가에 신비한 입김같은 불안개가 자욱하다. 이른 아침의 버들방천엔 간밤의 고요가 그대로 깃들어 있는가 싶다.

이 신선한 정적을 깨칠까 조심하는듯 어데선가 자갈밭 뒤지는 호미질소리가 동안 뜨게 들려 온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릴듯한 고요를 타고 가만히 귀 기울이면 저아래 내가의 자갈밭에서도 같은 소리가 울리는듯...

이슬을 밟으며 슬렁슬렁 걸어 오던 발자욱소리가 노란 사라구꽃이 듬성듬성 핀 언덕길에 멈추어선다.

《애야, 이른 아침부터 자갈밭에서 무얼 찾나?》

호미질소리가 푹 그친다. 사위는 잠잠하다.

대답을 대신하듯 매-애! 하고 새끼염소가 엄지를 쫓아 오며 애처롭게 운다. 한손에 염소고삐를 쥐고 굵다란 마라초를 몇모금 빨고 난 《염소할아버지》가 다시 말을 건넌다. 키는 꺾두룩하지만 어성은 석성한 목소리다.

《넌 우리 마을에 사는 농장아이 같질 않구나.》

《저기 로동자구마을에서 살아요.》

처녀애의 대답은 나직하다. 아직은 소녀에 더 가까운 중발머리 나어린 처녀애다.

《헌데 자갈밭은 뭘하러 뒤지냐?》

《조약돌을 골라요.》

《뭐? 조약돌을 골라?! 허-모를 소리군.》

《염소할아버지》는 호기심이 동한듯 둔덕길을 내려 처녀애곶으로 꺾실꺾실 다가가간다. 그는 조약돌을 고른다는 소리를 끝이 듣지 않은듯 처녀애의 무릎앞에 놓여 있는 주머니안을 기웃이 들여다보다가 제풀에 어이가 없어 실망한 표정을 짓는다.

《원... 진짜로구나.》

《정말이에요.》

처녀애는 명량한 목소리로 뇌이며 늙은이를 빠끔히 올려다본다. 주머니안에는 파리알만큼씩한 조약돌들도 있고 감또라지알만한것들도 있다. 크기들은 달라도 조약돌들은 하나같이 동그랗고 반들반들 빛이 난다. 아마도 이렇게 동그란것들만 고르느라고 이른 아침부터 품 놓고 자갈밭을 뒤지는 모양이다.

탁탁하고 길진 나이론주머니는 또 얼마나 맵시

있게 만들었는지. 피빛으로 타는듯한 빨간 주머니다.

《애야, 보아하니 네 이제는 조약돌을 가지구 놀나인 지난것 같은데 그런 허망한 놀음놀이에 눈팔지 말구 금돌을 주어라. 이 내가엔 금돌이 있느니라.》

《금돌이요?》

《그럼, 여기 모래볼엔 금싸락이 묻혀 있단다. 그걸 사금이라고 하지. 그걸 주어 넣어야 네 빨간주머니가 복주머니가 된단다. 어서 그 막돌은 쏘아 버려라.》

《할아버지, 이 조약돌이 금돌보다 더 값비싼걸 가져다줄거예요.》

《더 값비싼거? 그게 뭐라는거야?》

《십년쯤 지나야 눈에 보이는것이예요. 그전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흠-모를소리...》

《염소할아버지》는 더 타이를 말이 없는듯 입을 다물고 이슬에 젖은 둔덕길로 어정어정 올라 간다. 몇발자국 걸어 내려 가던 그는 아래 내가에 앉아 방금 만났던 처녀애와 꼭 같은 《장난질》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중발머리를 보고 저 혼자 중얼중얼한다.

《명량한 애가 여기두 있구먼.》

쫄쫄쫄쫄... 혀차는 소리...

15년후.

그날 아침 내가에 나와 조약돌을 고르던 두 중발머리가 이제는 30대의 애기어머니가 되었다.

어느날 저녁녘,

늙수그레한 베아령조립반장이 하루총화를 지으며 안타까운 소리를 했다.

《고급기능공들이 자주 빠지는게 제일 야단이요.

지금 작업반에 날고뛰는 숙련공이 몇이나 남아있소.》

조립공들의 뒤에 앉아 있는 조정숙은 저도 모르게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였다. 그 소리는 별스레 꼭 자기 들으라고 하는 말처럼 안겨 와 마음을 무겁게 했다. 문득 언젠가 반장아바이가 외우던 말이 다시금 가슴을 파고 들었다.

《철옥이 에민 언제쯤 살림을 가나? 군관안해이니 어차피 가야 할테지.》

《아직은 딱히...》

조정숙은 얼굴을 붉히며 말끝을 얼버무렸다.

사실은 남편 심재화로부터 새집을 당장 받으니까 이제 이사집을 꾸리라는 편지를 받았던 것이다.

《철옥이 에미처럼 젊은 고급기능공들을 내 이제 어데 가 또 얻겠냐.》

아바이의 말은 몹시도 쓸쓸하게 울렸다.

《하지만 가야 할 사람이니 가야지. 가는 날까지만이라도 명애를 좀 잘 키워 주게. 이제 한 이태만 채주면 그 애도 고급기능공이 될것 같은데.》

그런 반장이 오늘저녁엔 명애를 엄하게 지적했다. 그도 그럴것이 요즈음 김장철에 들어 와 명애가 겨울나이준비를 한다면서 지각이 잦고 결근도 있었던 것이다.

명애가 추궁을 받는것을 보는 조정숙은 속이 좋지 않았다. 벌써 여러해나 명애를 고급기능공으로 키울 분담을 받고 그를 담당해 온 조정숙이로서는 그가 받는 꾸지람이 곧 자기가 받는 비판과 같았던 것이다.

그는 명애가 이 겨울에 들어 서면서 왜 더 공장일을 뜨직해 하는가를 알고 있었다. 이해도 이제 거의다 갔다. 새해가 잡히면 명애도 24살이 된다. 그는 키가 쭉 빠지고 나무랄데없이 잘 생긴 처녀였다.

그의 어머니는 언제부터인가 딸에게 고급기능공이 될 필요가 없음을 자꾸 설교했다. 인물 잘난 처녀여서 좋은 혼처들이 많이 나서는데 괜히 고급기능공이 돼가지고 공장을 뜨면 시비질이 많다느니 또 그 기술기능은 다른 고장에 가서 써먹지 못하는것이어서 소용이 없다고 했다.

늙은 어머니의 주장에 명애의 신념이 흔들리는 게 분명했다. 그도 사실은 여러해째 고급기능공이 되자고 얼마나 애 써왔는지 모른다.

조정숙은 저녁총화가 끝난 다음에도 선뜻 일어나고 싶지 않아 텅 빈방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밖에 나갔다 들어 온 명애가 그앞으로 다가왔다. 두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잠시후에야 명애가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언니,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피로워 죽겠어요.》

조정숙은 나직한 어성으로 입을 열었다.

《머칠전에 너희 어머니가 나를 찾아 와 명애한테 너는 고급기능공전습을 시키지 말아 달라고 하더구나. 새해엔 멀리로 시집을 보내겠다면서...》

《글쎄 어머니가 자꾸 혼처가 좋다, 무엇이 좋으면서 못견디게 그러지 않아요.》

《나는 명애를 믿어. 너도 고급기능공이 되겠다는 열성이 얼마나 높았니. 아직 시집 가는 일이

그렇게도 급한것이겠니.》

명애의 크고 시원한 두눈에 눈물이 그득했다. 이어 그는 손가방에서 자그마한 빨간색 주머니를 꺼내 조정숙의 앞에 주춤주춤 내놓았다. 조약돌 주머니였다. 이것은 배아령조립련습용으로 쓰는 것이다.

그것을 보는 순간 조정숙의 낯빛은 해쓱해졌다. 이 조약돌주머니는 자기가 여러해전에 명애한테 주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아직 고급기능공이 채 되지도 못했는데 도로 주인에게 주는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니, 다르게 생각지 말아요. 어머니가 이 주머니만 보면 자꾸 야단해서 더 가지고 있지 못하겠어요. 당분간 어머니의 눈길을 좀 피하자는 것이니 뒤통 지나서는 다시 가져 갈래요.》

(명애의 말을 믿을수 있을까.)

조정숙은 가슴이 가지 않아 얼굴에 착잡한 그늘을 지었다.

그는 명애가 돌아간 다음에도 한동안 더 앉아 있다가 조약돌주머니를 가방에 넣고 직장문을 나섰다.

저녁노을이 감빛으로 타오르며 공장앞의 무성한 공원수림우에 밝은 후광을 비쳤다. 키높이 자란 잣나무, 백양나무가 울림으로 뻗뻗한 속에 련못가의 분수며 기기묘묘한 바위들과 폭포수, 붙잡으면 꺾충 뛰거나 날것 같은 노루, 꿩, 백학의 무리가 묘향산의 절승을 그대로 떠들썩다 놓은듯만 싶다.

조정숙은 공장에서 마주 보이는 마을을 향해 곧추 걸어 갔다. 얼마쯤 갔을 때 출근길을 가로질러 흐르는 실버를 늘어진 내가가 나타났다.

아침이면 물안개가 자주 끼는 이 잊을수 없는 내가, 그는 풀대들이 말라 버린 누런 둔덕우에서 잠간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끈은 자태가 내물에 비껴 일렁일렁 춤을 추었다. 조정숙은 학교시절에 예술체조를 해서인지 균형이 잡힌 몸매가 날씬하고 조화로웠다. 쪽내뻥 목과 가름하고 희맑은 얼굴이 아직도 처녀와 같이 생신하고 정취로와 발랄한 인상을 자아냈다.

조정숙은 지금도 열다섯해전 그날 아침의 이 내가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농장 《염소할아버지》와 나눈 말이 이상하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또렷이 살아 오르기때문이었다.

그 할아버지는 이 모래불에서 쓸모 없는 막돌을 줍지 말고 금돌을 주으라고 일렷지. 오늘에 와서 할아버지가 그날 아침에 주은 조약돌이 금돌보다 더 값 비싼 기술기능을 키워 줬다는걸 알



면 얼마나 대견해 할까.

꿈 많고 눈물 헤렸던 중학시절을 마친 조정숙은 제일 친한 동무인 최순이와 같이 베아링공장에 들어 가 조립공이 됐다.

중발머리 조정숙은 첫날부터 고급기능공들의 조립작업을 보고 입을 벌리었다. 굵고 작은 각종 규격의 베아링알들을 단 한번의 실수도 없이 외환과 내환사이에 딱딱 맞추어 넣는데 규격에 따라 넣는 알수도 각이했다. 그러나 베아링알들을 한손으로 쥐면 요구하는 알수를 틀림없이 집어낸다. 그 집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손동작은 신기할 정도였다. 순 손끝감각으로 저렇듯 재빨리 알수를 포착한다지.

조정숙은 최순이와 같이 조립련습에 달라붙었다. 오직 부단한 숙련만이 기능의 키를 키울수 있었다. 그런데 베아링알들은 조립장에만 있는 것이어서 퇴근후의 많은 시간과 휴식일, 이동작업, 농촌지원...이런 때에는 손동작숙련을 익힐수가 없었다.

그래서 최순이와 함께 그날 아침엔 일찍 내가에 나가 베아링알과 똑같이 생긴 조약돌들을 골랐던 것이다.

매일 밤 깊도록 요구하는 알수대로 집어내는 손끝감각훈련을 했다. 조약돌에 부딪친 다섯손가락끝이 닳아지다못해 살거죽이 벗겨 저 피가 흘렀다. 그 부위들이 몹시 아파났다.

세월이 한해, 두해 흘러 갔다. 손톱이 자랄 사이도 없이 다 닳아져 깎을것이 없었다. 그만큼 조약돌들도 같이 닳아 지고 닳아 저 은구슬처럼 반짝거렸다. 피 흐르는 손가락들에 골무를 끼고 훈련을 계속했다.

그 어테를 가던 빨간 조약돌주머니를 보물주머니처럼 끈을 목에 걸어 겨드랑이에 차고 가군 했다.

이렇게 7년세월이 흘러 가자 이악쟁이 조정숙은 온 공장에 손꼽히는 고급기능공으로 올라 섰다. 참으로 7년동안 밤낮없이 흘린 땀과 피의 대가로 이제는 손가락들이 기막힌 요술막대기가 되었다.

남들은 20년이 돼도 그런 고급기능공이 되기 어려운데 불과 7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공한 조정숙이 30대의 꽃나이에 이 공장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게 됐으니 그 빛나던 재능도 이제는 하루밤의 봄꿈처럼 끝나버리게 되었다. 하여 그는 랑십의 아픔을 이길수 없어 요즈음은 늘 우울하니 지냈다.

조정숙은 호- 더운 숨을 쉬고 내가의 둔덕길을 내려 갔다.

## 2

이튿날은 휴식일이였다.

조정숙은 어제저녁 명애한테서 받은 조약돌주

머니를 옷방 한구석에 걸어 놓았다. 정말 명애가 제 말과 같이 두달 있다 이 주머니를 다시 찾을가? 과연 어머니를 설복해 낼수 있을까?

그는 망연히 앉아 조약돌주머니만 바라보았다.

이 주머니는 중발머리 신입공시절인 내가의 아침부터 시작하여 명애한테 넘겨 줬던 여러해동안에도 언제한번 자기 마음속에서 멀리 있어 본적이 없는것이였다. 뛰어난 기능을 닮는 마당에서 낮이나 밤이나 늘 함께 있어 준 생활의 길동무였다.

《철옥아.》

복도에서 열차게 찾는 소리와 함께 출입문이 활짝 열렸다. 들어 서는 녀자는 최순이였다. 중학교시절 한책상에 앉아 공부한 가장 가까운 벗이였다.

최순은 몸이 더 좋아 진것 같았다. 보통키에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하고 앞가슴도 눈에 띄우게 부풀어 올랐다. 생활에서의 만족이 주는듯한 활기로운 인상... 그 녀자는 방안에 들어 오기 바쁘게 조정숙의 손을 잡아 쥐며 축하한다는 말부터 앞세웠다.

《그건 무슨 소리니?》

조정숙은 어리둥절한 눈길로 화장을 진하게 한 최순의 웃음 머금은 빨간 입술을 바라보았다.

《애, 뭘 그렇게 시침을 따니. 내가 얼마전에 너의 그 사색가 주인님을 만났댔다.》

《뭘? 우리 철옥이 아버지들?》

《말두 말아. 너의 랑군님은 그저 조정숙이가 보고 싶어 죽어 가더라. 말끝마다 네 안부만 묻더구나. 철옥이를 낳고 몸이 촉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걱정이더라. 부탁은 빨리 이사집을 싸라는거야. 편지도 보냈다더구나. 받았니?》

조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 모양을 보고 최순은 처녀때처럼 까르르 웃었다.

《왜 그렇게 심드렁한 표정이야. 남편이 네꼴을 보면 눈이 뒤집히겠다예.》

최순은 그의 남편이 받은 군관사택까지 보고 왔다면서 마치 제가 살것처럼 자랑에 열을 올렸다. 산기슭에 아담하게 들어 앉은 세칸짜리 새집은 남향반이라는것, 집뒤에는 염소방목하기 좋은 풀밭이 크고 앞에는 물 맑은 시내가 흐른다고 했다. 벌써 그는 집을 거의다 꾸렸더라는것, 집옆에는 돼지우리도 큼직하니 짓고 토끼우리, 닭우리도 맏시있게 지었다고 했다.

《애 철옥아, (그는 아이의 이름을 동무의 이름으로 대신해서 부르기 좋아한다.) 넌 뭘 자꾸 생각이 많아서 그러니. 철옥이 아버지가 복무하는 그 고장이야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야. 거긴 오

곡이 풍성하구 물고기도 많고 과일도 많아서 살기엔 그저그만이야. 여기 이 고장이야 뭘 볼게 있니. 토박하구 바른것 많구... 다른 생각 말고 어서 남편따라 가거나 해라. 왜? 공장을 폐기가 그렇게두 아쉽니?》

《나야 고급기능공이 돼서 겨우 8년밖에 일을 못하지 않았니.》

《호호호, 참 남들은 구실이 없어 공장을 못데는데... 고급기능공이 뭐 어쨌다는거야. 말로만 고급기능공, 고급기능공하지 누가 착실히 돌봐주길하니. 나라사정이 어려워 졌는데 제 살마련은 제가 하는게 웅당하지뭐.》

《넌 그래서 고급기능공이 되자마자 제격 시집을 가구 공장에서 나갔나보구나.》

그때 량심이 찢리지도 않던?》

《글쎄 나두 처음엔 가책이 컸지만 어찌겠니.》

《그래 지금 하는 일은 잘되니?》

《그만하면 괜찮아. 세대주도 직장일에 전심할 수 있게 하고 아이도 튼튼하게 키울수 있어. 그러니 너도 어서 새집으로 가서 살림살이를 잘 꾸리구 남편을 착실히 위해 줘.》

최순은 지금껏 조정숙을 가장 가까운 친우로 사귀고 있어 그한테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도 숨김없이 해주곤 했다. 그는 만날적마다 생활의 교사로 자처하며 훈시하기를 좋아했다.

최순의 눈길이 우연히 옷방벽에 걸려 있는 빨간 조약돌주머니에 가 멎었다. 그의 놀라움에 굳어졌던 표정이 이어 서서히 풀리며 입가에 허거운 웃음을 지었다.

《저 주머니 여전하구나. 저걸 아무리 끼고 있어봤댔자 무슨 소용이 있니.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

《그래서 너도 그걸 다 치웠구나.》

《없엔지도 오랬어. 공장을 켜 날 내 손끝에 닿아진 조약돌들을 쏘아 버릴 땐 가슴이 좀 서늘하더라.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

최순은 사직수속을 하라고 당부하고 돌아 갔다. 조정숙은 생각이 깊었다. 최순은 자신에 대해 행복하다고 했지?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람마다 바라는 욕망이 충족되면 그것이 곧 행복일까. 저 빨간 조약돌주머니는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했지. 그 소리는 바꾸어 말하면 그토록 피라게 련마한 고급기능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소리가 아닌가.

(과연 그럴가, 고급기능공으로 온 공장의 사랑을 받으면 그자체가 곧 행복이 아닐가. 하지만 최순의 행복관은 자기만족이 위주구나.)

최순이도 중발머리 신입공시절에는 고급기능공

이 되자고 이악하게 혼련했었다. 그도 결코 조정숙이보다 짝지지 않는 악바리였다. 그리하여 두 처녀는 24살에 똑같이 고급기능공이 되는 영예를 지니었다.

그렇지만 다음해에 최순이가 시집을 가서 2년 지나 가내부업반으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조정숙은 놀랐다.

우리 생활이 일시적으로 어려워 지자 최순은 누가 뭐라던 제나름대로 했다. 그의 머리속에서 동요가 일어 났던것이다.

가내부업반으로 간 그 녀자는 원료와 자재구입에 열을 올렸다. 여러 곳에 거래하는 과정에 조정숙의 남편이 복무하는 지방에도 곧잘 다니곤 했다. 이번에도 그런 일로 갔다가 남편을 만나 새집까지 보고 온 모양이다.

철옥이 아버지가 배정 받은 새집을 거의다 꾸렸다지. 곧 이사집을 실러 오겠구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군말없이 따라 가야 하는것은 웅당한 일이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하지 않았는가.

내가 가면?... 반장아바이의 서글픈 목소리가 다시 고막을 울린다. 뛰어난 숙련공들이 다 빠지면 반장아바이만 남겠구나. 나도 가고 명애도 가고 최순인 이미전에 가버렸고...

정말 가야 하는가. 피할수 없는 생활의 길이구나. 가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으면 왜 이렇게 알수 없는 목소리가 내가슴을 두드리는가. 량심의 끝이라도 있으면 이 어려운 때 자기 중심으로만 행동하지 말아라, 조정숙이없는 조립장을 생각해 보았느냐, 너는 보통조립공도 아닌 고급기능공이 아니냐.

고급기능공과 일반조립공과는 하늘땅차이다. 일반조립공이 배아령을 10개 조립하는 사이 조정숙이 너는 1,000개를 조립할수 있지 않느냐. 10:1,000! 너무도 큰 대비다. 더 설명해서 무엇하겠는가.

또 다른 목소리가 친근하게 타이른다. 심장의 맹세를 잊으면 의리를 잃는다.

조정숙은 두눈을 감았다. 사람이 의리를 저버린다면 그게 무슨 인간이겠는가. 어버이수령님을 영결한 비통한 그해에 조정숙은 고급기능공으로 올라섰다.

나는 지금껏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밝게 웃으며 자라난 새세대가 아닌가. 나라사정이 어려워도 그이께서는 우리 로동계급들에게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부어 주고 계신다. 어려운 강행군을 하면서도 로동계급을 위해 휴양소문들을 활짝 열어 놓지 않았던가.

조정숙은 작년에 뜻밖에도 자기가 휴양생으로

뽕혀 경성 룡현으로 가게 될줄은 생각지도 못했었다. 끼마다 하얀 쌀밥에 이면수, 가재미, 털게를 비롯한 고급어족들로 식탁을 풍성하게 차려주었다.

그는 밥상에 마주 앉을 때마다 목이 메어움을 감할수 없었다.

이런 내 나라, 내 조국을 진심다해 섬기지 않는다면 과연 이 강토를 밟으며 살 자격이 있고 이 나라의 푸른 하늘을 이고 숨 쉴수 있는가.

그래서 험하게 공장을 떠나기 힘든 조정숙이다.

여느 사람 같으면 공장당위원회에 제기해서 그를 우리 공장으로 데려 오면 될것이였다.

그렇지만 군대는 어쩔수가 없지 않는가.

다음 순간 조정숙은 자기 생각만 지나치게 하던 나머지 군관남편 만났것을 후회하는것 같은 생각이 들어 깜짝 놀랐다. 얼굴을 붉혔다. 남편앞에 몹시 미안스러웠다.

남편의 준절한 타이름이 울려 오는것만 같았다.

《나는 늙을 때까지 군복을 벗지 않는다는걸 명심하오. 나는 군인으로서 나의 군복과 군무생활을 더없이 사랑하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과 헤어져 사는 한이 있어도 군복을 벗고 공장으로 올수는 없소.》...

(저도 결코 그것을 바라지 않아요.)

조정숙은 마음속으로 꼬박기 남편한테 빌었다.

문득 명애의 아름다운 얼굴이 떠오른다. 너는 얼굴도 곱고 마음도 곱지. 그동안 고급기능공이 되자고 훈련도 이악스레 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내가 한 이래만 더 있어 주면 훌륭한 고급기능공이 될수 있다고 본다. 2년이란말이지...

조정숙의 눈빛이 불 타는듯 했다. 명애는 자기의 신념을 서둘러 저버리지 않을게다. 워낙 그는 대가 있는 처너지, 그를 더잘 도와 주자.

마음도 기능도...내 비록 어차피 가지 않으면 안될 길을 갈 땐 가더라도 명애를 고급기능공으로 키워 놓고 가야 한다.

철옥이 아버지한테 2년만 참아 달라고 간절히 부탁해 보자. 나의 마음을 리해해 줄거다. 명애만이라도 나를 대신하여 내 자리에 세워 놓지 않으면 나의 발걸음이 떨어 지지 않을게다.

그는 옷방으로 올라가 책상앞에 마주 앉았다. 남편한테 보내는 긴 편지를 한껏동안이나 써나갔다.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또 이래나 기다리게 한다는게 말이 되는가고 나무랐으나 저녁녘에는 편

지가 우편통신원의 가방속에 조용히 들어 갔다.

### 3

며칠이 지났다.

조정숙은 퇴근하던 길에서 최순이를 만났다.

그는 속상해 하는 너의 어머니의 푸념을 들었으면서 남편한테 그런 편지를 보내는 안해가 어디 있는가고 시까슬렀다.

《명애를 고급기능공으로 키워 놓고야 공장을 떠나겠대구?》

《한 이래만 끌어주면 될거야.》

《2년이 작니? 그동안 철옥이 아버지생활은 어떡하구. 또 명애가 이래씩이나 공장에 있겠대. 그 집 어머니가 당장 시집을 보내겠다고 한다더라.》

《명애는 그럴 처녀가 아니야. 두고보렴.》

《난 네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남편과 같이 새 살림을 펴놓으면 개가 쏴아 지게 행복하겠는데 그걸 마다한다니 도대체 넌 바라는데 뭐니?》

《난 량심이 찢리워서 공장을 버리지 못하겠어. 이 어려운 때에...》

《량심?!... 그럼 뭐 공장을 떠난 사람들은 다 량심이 없다는거야?》

《글쎄 이런저런 조건들은 있겠지만 크게 보면 그렇지 뭐.》

《못들어 보는 소리가 없구나. 그런 사람들을 팔시하지 말아. 오죽하면 떠났겠니.》

《좋을 때는 나의 공장, 어머니조국이라 하고 어려울 땐 돌아 서서 먹을 알 있는 곳만 찾는 사람들한테 무슨 량심을 말하겠니.》

《그럼 넌 나에 대해서도 할 소리가 많겠구나.》

《정말 많다. 그러나 한가지만 말하자. 공장에 다시 들어 오려마. 지금 직장에는 너 같은 고급기능공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최순은 호- 한숨을 내쉬었다.

《글쎄 언제인가는 공장에 다시 들어 가기가 해야지... 하지만 당장은 어려워. 나를 너무 오해하지는 마.》

최순은 오연히 쳐들었던 동그란 턱을 낮추며 돌아섰다.

조정숙은 멀어 저 가는 그의 뒤모습을 한동안 지켜 보았다.

그는 걸어 가면서도 최순의 목소리가 자꾸 고막을 울리는것 같아 머리를 저었다. 그에 대해 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럴수록 명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싶었다.

조정숙이 곁에서 다심하게 일려주어 명애는 요즘 마음을 다잡고 생활을 빈틈없이 했다. 결국은 물론 지각도 없어 졌다. 비록 조약돌주머니는

돌려 줬으나 무엇이든 쥐고 손끝 감각훈련도 부지런히 했다. 조정숙은 한결 마음이 놓여 훈련목표를 정해 주곤 했다.

날은 흘렀다.

벌써 스무날이 지났으나 웬일인지 남편한테서 회답편지가 없었다. 조정숙은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다. 혹시 패씼해서 그러는게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다.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웅졸한 사람이 아니었다.

어느날 밤 그가 늦어 집에 들어 갔을 때 기다리던 남편의 편지가 날아 와 있었다. 새로 받은 집을 꾸려 놓기 바쁘게 출장을 갔다와 편지를 받다나니 회답이 늦어 졌다고 했다. 남편은 안해의 편지내용을 깊이 이해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까지 했다.

《…여보, 공장에서 그토록 고급기능공들이 필요하는데 2년이 무슨 대수겠소. 너무 내 걱정하지 마오.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운 행군을 하는 이때 나라고 뭐 편히 살것만 바라겠소. 나야 우리 장군님의 군대가 아니요. 어려움을 이기고 참을줄도 알아야지.…”》

그래서 남편은 받았던 집도 다른 사람한테 주었다면서 아무생각말고 공장일만 잘하라고 당부했다. 조정숙은 눈곱이 뜨거워 저 편지를 가슴에 꼭 품었다. 이 세상에 자기 남편처럼 훌륭한 남자는 더 없을듯만 싶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끝없이 남편과 다정한 말을 주고 받았다.

《여보, 그렇게 알심있게 꾸린 새집을 남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닌게 아니라 처음엔 좀 얼얼했소. 그렇지만 생각을 깊이 하니 쪽 풀리두만.》

이날 밤 조정숙은 잠들지 못했다. 남편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이 자꾸 뛰었다. 총각때나 지금이나 항상 감정이 솔직하고 기쁨이 남자답고 리해성 깊은 사람, 바로 내가 그것을 보고 거기에 반했었지.

조정숙의 눈앞에는 남편을 처음 알게 됐던 고속도로건설장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처녀돌격대원으로 이 공사에 참가했었다. 이 날에 군인들과 한작업장에서 일할 때가 많았다. 조정숙은 처녀소대의 분대장을 했다.

어느날 아침, 그의 분대처녀들과 인민군대 한개 소대가 같이 골재장에 가서 모래, 자갈을 싣게 되었다. 그들이 탄 자동차가 방금 떠나려 할 때 인민군소대장이 나타나 안심치 않은 눈길로 바라보더니 느닷없이 명령했다.

《부소대장동무, 그 처녀분대를 싣 내려 놓소.

보아하니 이 드살이 뻗친 처녀들이 우리 군인총각들을 다 홀려 놓을것 같소.》

즉석에서 조정숙의 분대는 자동차에서 《축출》되었다. 처녀들의 항의가 비발치듯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심재화소위는 히죽이 웃으며 훌쩍 차에 올랐다.

약이 오른 조정숙은 그날 저녁 우리 처녀분대를 모욕한 소대장이 정식 찾아와 사과하지 않으면 매일부터 일을 안나갈것이라고 짐짓 엄숙히 《성명》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기가 바쁘게 소위가 싱긋싱긋 웃으며 나타났다. 조정숙은 우정 더 낮빛을 파랗게 버리고 앉아 이곳에 오면서도 또 가지고온 빨간 주머니를 꺼내어 조약돌훈련을 하고 있었다. 소위가 토방에 걸터 앉으며 먼저 말을 걸었다.

《아직두 소녀들처럼 조약돌장난을 합니까?》

《예, 소위동지가 우릴 다 쫓아버려서 할 일이 없어 그러니다.》

《몹시 앵돌아졌군.》

《그래 우리 처녀들이 이 건설장에 군인들이나 홀리러 온것처럼 보입니까. 우리도 당당한 돌격대원들입니다.》

조정숙이 야멸차게 따지자 그는 큰 소리로 웃었다.

《파연 너자들이란… 사실은 인원이 많아서 내려왔는데, 룡담삼아 한마디 한걸 가지구 땀혀서 그러우. 잘못했소.》

《내려 가진 뭐가 내려 갑니까. 우린 두고두고 분풀일 하렵니다.》

《분대장이 보통 왕드살이 아니구만. 이거 내가 잘못 걸렸는데…》

《뭐라구요. 왕드살이라구요?》

《어- 왕드살이분대장한테 뽐 맞겠다.》

그는 하하 웃으며 벌떡 일어나 달아나버렸다.

그후부터 그들은 이상하게도 마주 서기만하면 《짜웠다》. 기일이 다 되어 처녀들이 돌아 갈 때 그는 조정숙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 주었다.

《앞으로 꼭 동무를 찾아 가겠소.》

《어서 오십시오.》

조정숙은 총각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씩은 해보는 소리여서 별로 깊은 생각없이 대답했다.

그로부터 몇해가 지나 그사이 편지 한장도 없어 감감 잊은지도 오랫동안 때 문득 심재화가 나타났다. 오자바람으로 아버지한테 우습강스러운 소릴 해서 집안을 웃기였다.

《아버님, 전 조정숙동무한테 혼살이 난 대가로 반했습니다.》

《허- 그런 혼살은 자꾸 날수록 좋겠구먼.》

심재화는 바로 이런 사나이였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상한것이였다. 편지를 받기전에는 자기의 의향이 남편의 리해를 받겠는가 하는것에 신경을 썼는데 정작 리해를 받고나니 또 다른 마음속 아픔이 가슴을 굽었다.

안해가 있으면서도 남편의 생활을 계속 불편하게 해주고 고생시켜야 하는 안타까움과 속 저린 감정이였다.

(여보, 당신은 공연히 저같은 녀자를 만나 안할 고생까지 다 하는군요. 이 미안하고 피로운 마음을 어디에도 없어 둘데가 없군요.)

조정숙의 두눈귀로 더운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 4

뜻깊은 2000년 새해 설명절을 엇그제 된것 같은데 벌써 1월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조정숙은 몹시 바쁘게 날을 보냈다. 일감도 많고 명애를 비롯한 처녀들의 기능수준을 높여 주기 위한 전습도 긴장하게 해야 했다. 그가 믿었던바대로 명애는 영특한 처녀였다. 어머니를 잘 설복해 냈고 보름전에는 조정숙의 붉은 조약돌주머니를 다시 찾아 갔다.

그의 훈련은 맹렬했다. 조정숙은 이것이 무엇보다 기뻐다. 하지만 기쁜 일속에 더없이 속 타는 일도 있었다.

남편이 그 동안 부대에서 일이 바쁘다고 감기 쯤 심상히 여기고 무리하다 보니 어쩔수없이 자리에 누웠다는 소식이 인편으로 전해 왔던것이다.

가슴이 한줄만 해진 조정숙은 길 떠날 차비를 서둘렀다. 자기가 곁에서 각근히 돌봐 주지 못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니 오금이 저려 드는듯 했다.

안해의 따뜻한 손길도 없이 혼자 앓고 있을 남편생각에 움해 요즈음은 베아링조립에서 전례없이 실수하기까지 했다. 그것도 한두번이 아닌것으로 하여 조정숙은 수치감에 몸을 떨었다.

오늘 아침 그는 준비했던것들을 가방안에 차곡차곡 넣어 가지고 일찌감치 공장으로 나갔다. 오후에 남편이 있는 부대앞으로 지나가는 공장후방 부차가 있어 같이 가기로 했던것이다.

작업장에 들어 선 조정숙은 가방을 조립대밑에 내려 놓고 곧 일에 착수했다. 오전중에 힘을 낼 결심이였다. 그는 베아링조립에 들어 가면 자신마저 잊고 일에 심취되곤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가. 아침 9시가 좀 넘었을때 돌연 누군가가 출입문안으로 뛰여 들며 소리쳤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에 오시였대!》

순간 조용하던 조립장에 폭풍과도 같은 파문이 일어 났다. 조립공들은 일제히 손을 떼고 복도 쪽으로 달려 나가려 했다. 작업반장이 당황하여 말리였다.

《동무들, 이러면 안되오. 우리가 질서없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소.》

반장의 말을 듣고서야 다들 제 자리 돌아 가 다시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누구나 눈길은 출입문쪽으로만 달리였다.

조정숙의 마음도 다들바 없었다. 그저 가슴이 뼉뛰고 흥분이 앞서 베아링알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듯 싶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이토록 추운 대한계절에 오시다니. 장군님을 한번만이라도 뵈왔으면... 바쁘신 장군님이시어서 우리 조립작업반엔 들리진 못하실거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때 출입문이 소리없이 열리더니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립장에 들어 오시였다.

공장지배인이 곁에서 베아링조립의 특성과 완성에 대해 말씀 드리였다. 그이께서 긍정해 주시며 이 조립작업반도 알뜰하고 문화성 있게 잘 꾸렸다고 치하하시였다.

《어느 직장, 어느 작업반에 들어 가 보아도 나무랄데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공장안은 깨끗하게 꾸렸고 공장밖은 공원처럼 가꾸었습니다. 이렇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요구입니다. 이 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들의 정신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장군님 가까이에서 일하는 조정숙은 벅차오르는 숨결로 하여 가슴이 뼉뛰였다.

(장군님께서 기뻐 하시는구나. 우리들이 바친 정성과 구슬땀이 그대로 보석처럼 빛을 뿌려 장군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구나.)

조정숙은 너무도 기뻐 눈물이 솟구쳐 오름을 느꼈다.

이윽고 그이께서 출입문 가까이에 있는 조립대에서 작업하는 조정숙의 앞으로 걸어 오시였다. 그는 얼른 일손을 멈추고 장군님께 허리 굽혀 인사를 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손을 들어 답례를 주시며 어서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하시였다.

조정숙은 요술막대기 같은 손을 번개같이 놀리기 시작했다. 장군님께서 그의 눈 부신 조립솜씨를 이윽히 지켜 보시였다. 수행한 일군들도 빙 둘러서서 같이 보았다.

천만뜻밖에도 조정숙은 경애하는 장군님앞에 자기의 조립솜씨를 보여 드리게 될줄은 상상해보지도 못했었다. 순간 그는 이상하게도 견잡을

수 없이 높뛰던 심장이 평온을 찾아 침착하게 가라앉음을 느꼈다. 하여 15년 동안이나 닭고 익히고 또 닭아 온 기능을 아버지앞에서 재롱 부리는 딸처럼 마음껏 자유로이 발휘할수 있었다.

어떻게나 손동작이 재빠른지 그저 눈앞에서 얼른얼른할뿐이고 이쪽 손밑에서 줄지어 나오는 조립된 베아링들만이 눈에 보였다. 눈 깜박하는 사이에 철함에 무뎠던 베아링알들이 반반하게 없어졌고 앞에 병풍처럼 막아 섰던 외환과 내환무지들이 없어 졌다. 대신 한쪽에 조립된 베아링무지들이 더 크게 우뚝우뚝 키를 솟구었다.

꼭 무슨 한 장면의 요술을 보는듯 했다. 하지만 이것은 눈속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산로동이었다.

장군님께서는 햇빛 같은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러자 온 조립장이 눈 부신 광채를 받은듯 환하게 밝아 지는가 싶었다. 둘러 선 수행일군들의 입에서도 한결 같은 경탄의 목소리들이 울려 나왔다.

그이께서는 못내 만족하여 조정숙의 어깨를 몇번이나 다독여 주시며 거듭거듭 치하시었다.

《손이 꼭 자동화된 기계 같구만. 잘해, 아주 잘하누만. 정말 용하오.》

그이께서는 조정숙의 두손을 잡아 친자식처럼 따듯이 쓰다듬어 주시며 그를 즐겁게 해주려 짐짓 롱담섞인 말쑤도 하시었다.

《아이나 남편생각하다 한알씩 더 넣군 하겠지.》

조정숙이 대답을 못하자 장군님께서는 크게 웃으시었다. 순간 그는 코허리가 저려 들며 눈물이 솟구쳐 올라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장군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고 계시는것만 같아 송구함을 금할수 없었다.

사실 금년 들어 와 남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여 아닌게 아니라 베아링을 한알씩 더 넣군하는 실수를 몇번이나 했었다. 고급기능공이 된이래 처음이었다. 이것은 숙련부족이 아니라 정신적불안에서 오는 결과였다.

장군님께서 자기의 가슴속을 너무도 정확히 짚으시여 당황함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는 조정숙의 얼굴을 일별하신 그이께서는 고급기능공의 마음을 부드러이 놓쳐 주시려는듯 조립대앞으로 한걸음 나서시었다.

《동무의 기계손이 그렇게 재치를 부리는걸 보니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지누만.》

조정숙이 놀라 얼른 만류했다.

《장군님께서 어떻게...》

《내 이래봬도 선반이랑은 꽤 할줄 아오.》

누군가가 베아링알이 무드기 담긴 철함과 외환, 내환들을 한아름씩 조립대에 날라다 놓았다. 장군님께서 손수 팔을 걷고 나서시자 조정숙이 제격 외환과 내환을 앞에 놓아 드리였다.

그이께서는 규정된 7알을 쥐여야 했으나 자꾸 8알이나 6알이 쥐여 저 세여 보지 않으면 안되시었다.

《그것참, 마음처럼 쥐여 지질 않누만.》

장군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시자 수원들도 즐겁게 웃었다. 조정숙은 그저 감동으로 달아 오른 가슴을 들먹이며 그이를 뜨거운 마음으로 우려했다.

(끝없이 소탈하신분, 더없이 다정하신분. 어쩌면 이렇게도 친딸처럼 대해 주실가. 꼭 친아버지와 같은분이구나! 정말 우리 나라는 장군님을 아버지로 높이 모신 하나의 대가정이구나!)

베아링알들을 맞추는 동작도 잘되지 않아 조정숙은 저도 모르게 어려움도 잊고 장군님의 손을 자기의 손으로 살그니 잡고 사분사분 조절하여 인도해 드렸다. 그러다 문득 자기가 무엄하게도 장군님의 손을 쥐고 있다는 의식이 갈마들자 화를 놀랐다. 하면서도 왜 그런지 꼭 친아버지결에서 있는듯 그저 온몸이 뚝뚝 뜨는것 같이 기쁘고 즐겁기만 했다.

베아링 한조를 조립하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르시었다.

《동무들도 한번씩 해보오. 제손으로 직접 해보아야 이런 고급기능공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대인가를 더 잘 알게 되오.》

동행한 일군들이 나서서 저마다 잘해 보려 애썼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 베아링알들을 조립대에 툄령 떨구기도 했다.

《저런... 다 깨먹겠소.》

장군님의 말씀에 조립장엔 화기로운 웃음꽃이 피여 나군 했다.

얼마후 그이께서는 조정숙에게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몇살인가,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는가고 물으시었다. 공장고등기계전문학교를 졸업한 기계제작준기사라는 대답을 들으시고는 용타고 칭찬해 주시었다. 남편이 군관이라는것을 료해하시고는 어느 부대에서 복무하는가고 다심히 물으시었다.

《군인가정이구만. 좋은 일이요. 그럼 동문 인차 남편한테로 가야겠구만.》

《장군님, 저의 남편은 제가 이 공장에 더 필요한 사람이라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걱정은 말고 공장일만 잘하라고 했습니다.》

장군님께서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이시였



다.

《남편이 좋은 사람이요. 군인답소.》

이어 그이께서는 조정숙의 옆에서 일하고 있는 명애에게 시선을 돌리시였다.

《동문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그래도 조립솜씨가 괜찮구만. 몇년 했소?》

명애는 허아래소리로 가만히 말씀 드리였다.

《8년했습니다.》

《8년이라... 이제 몇년만 더 하면 조정숙동무만한 고급기능공이 될수 있겠소?》

《원래는 2년쯤만 더 채면 될수 있겠다고들 보는데... 전 이제부터 굳은 결심을 가지구 한해 앞당겨서 래년 이때쯤엔 당당히 고급기능공으로 올라서겠습니다.》

허리를 굽히시고 처녀조립공의 대답을 다정히 들으신 장군님께서 허리를 펴시며 즐겁게 웃으시였다.

《음- 앞당기겠단 말이지... 그 마음이 더 굵구만.》

조정숙은 명애가 너무도 기특해 막 얼싸안아 주고 싶었다.

(명애, 정말 좋은 결심을 했구나. 장군님께서 얼마나 기뻐 하시니.)

장군님께서 조정숙이 32살이면 아직 꽃 같은 나인데 언제 그렇게 숙련을 해서 벌써 공장의 기동으로 자랐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에 대해 머리 희숙한 반장이 나서서 남들은 20년을 해도 터득하기 힘든 고급기능을 단 7년동안에 이룩한 사실을 요약해서 말씀 드렸다.

그의 입에서 조약돌주머니소리가 자주 나오자 장군님께서 조정숙에게 그 주머니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네.》

조정숙이 대답 올리면서 얼른 명애를 쳐다보았다. 명애가 서둘러 조립대밀에 놔둔 자기 가방에서 조약돌주머니를 꺼내 그이께 드리였다.

《장군님, 조정숙언니는 저를 고급기능공으로 키워 주고 있는 선배입니다. 그래서 여러해전에 자기의 이 조약돌주머니를 저한테 넘겨 주었습니다.》

《오, 그렇구만.》

자그마한 빨간 주머니. 장군님께서 그것을 받아 드시고 조약돌들을 손수 꺼내 손바닥에 놓고 보시였다. 일군들도 다같이 들여다보았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조약돌로 믿지 않았다. 손끝에 너무도 닳아 지고 질감 있게 세공되어 꼭 구슬알처럼 보여서였다. 다시금 감탄의 목소리들이 울려 나왔다. 이윽히 보시며 장군님

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그저 자애로운 눈길로 몇번이나 조정숙을 바라보시며 그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였다.

이윽고 그이의 정다운 목소리가 뜨겁게 울리였다.

《이 붉은 조약돌주머니는 곧 조정숙동무의 사상이구만. 이것을 늘 차고 다니며 기능을 그렇게 닦았다니 얼마나 장하오. 알고보니 이 조약돌 한알한알이 단지 조정숙동무에게 높은 기능만 닦아준게 아니구만. 충성의 마음도 그렇게 닦았소. 정말 이 조약돌주머니는 조정숙동무가 공장의 기동으로 자라는데 고임돌이 돼줬소. 아주 귀중한 복주머니요.》

그런 복주머니가 오늘은 후배한테 가 있으니 세대로 이어 지면서 많은 고급기능공들을 키워 낼수 있겠소. 그래서 더욱 훌륭한 복주머니요!》

그이께서 조약돌주머니를 명애한테 돌려 주시며 저력 있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공장운영과 생산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뿐만아니라 고급기능공들도 못지 않게 중요하오. 때에 따라서는 기술자들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고급기능공들이 해결할 때도 적지 않소. 나라에 과학자, 기술자를 길러 내는 대학은 많아도 고급기능공을 키우는 대학은 없소. 고급기능공양성대학은 공장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복주머니의 주인공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적극 내세워 줘야 합니다.》

복주머니! 세대와 세대들로 전해 가며 장군님의 충신들을 키워 주는 붉은 복주머니. 조정숙은 격동으로 하여 솟구치는 눈물을 억제할수 없었다. 자기의 소박한 생각으로 만든 붉은 주머니가 이토록 장군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렇듯 값 높은 평가까지 받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날 장군님께서서는 조립공들에게 건강하여 일을 잘하라고 고무해 주시고 떠나가시였다. 만세의 환호성이 공장구내를 흔들었다.

한껏 부풀어 오른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는 조정숙의 두눈에서 더운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다.

(오늘의 이 사랑, 이 영광을 자나깨나 잊지 않으리라. 장군님, 저는 이 공장에 영원히 당의 딸로 서 있겠습니다.)

이때 공장당비서가 바빠 달려 와 그를 불렀다.

《조정숙동무, 내 말을 듣고 정확히 답변해 줘야겠소. 방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공장을 떠나시다 다시 차를 세우시고 내리시였소. 아무래도 발걸음이 떨어 지지 않아 차를 세웠다고 하시며 조립직장 고급기능공 조정숙동무한테 어떤 마

음속 그늘이 있는것 같은데 잘 알아 보라고 하시  
였소.》 순간 당비서는 말문이 막혔다고 했다. 몹  
시 당황했었다. 조정숙은 아쉽지만 당장 군관남  
편한테 보내야 할 사람이라는것밖에 더 아는것이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마음속 그늘이라니?! 그래  
서 다른 사람한테도 알아 보니 다들 그 녀자한  
텐 그런것이 있을수 없다고들 했다.

조정숙은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말을 하  
지 않아 가까운 작업반사람들도 모르는 자기 마  
음속 피로움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순간의  
포착으로 벌써 간파하셨구나. 아까 남편생각하다  
한알 더 넣겠지 하신 그이의 룡 삼아 하신 말씀  
에 가슴이 찢려 저도 모르게 눈가에 차오른 눈물  
을 장군님께서 살펴 보시던것 같은 생각이 떠올  
랐다. 그때 다른 일군들은 전혀 자기한테 주의를  
돌리지 못했었다.

조정숙은 당비서에게 자기의 마음속 안타까움  
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그가 남편한테 가서 병간호를 잘해 주어 완쾌  
시키고 돌아 왔을 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정숙에 대한 보고를 받  
으시고 일군들에게 뜨거운 말씀을 하신데 대해  
공장당비서가 감격에 넘쳐 이야기했다.

장군님께서서는 조정숙이 이제 겨우 30살 남짓한  
젊은 나이인데 벌써 고급기능공이 된 좋은 동무  
라고 친자식을 내세우듯 다시금 자랑하시였다.

《그 동무는 당장 군관남편한테 가 새 살림을  
펴야 했지만 후배를 고급기능공으로 키우기 위해  
이래나 더 공장에 남아 있을것을 스스로 결심했  
다고 합니다. 이 결심을 아는 사람은 누구도 없  
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  
이라는것을 잘 알고 있어 공장을 뜨려 하지 않았  
지만 군관안해여서 할수없이 후배라도 고급기능  
공으로 키워 놓고 가자고 결심했던것입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런 동무가 바로 공장의  
기둥, 나라의 기둥입니다. 조정숙동무를 잘 도와  
줍시다.》 그러시고는 장군님께서 베어링공장 가까  
이에 그 동무의 남편이 복무하고 있는 부대와 거  
의 같은 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니 군관 심재화동  
무를 그리로 옮겨 놔주면 고급기능공 조정숙동무  
가 안착해서 더욱 높은 기능을 발휘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고급기능공 한사람 한사람을  
얼마나 귀중히 여겼으면 군관남편까지 안해가  
있는 공장 가까이로 옮겨 놔주시겠는가.)

조정숙은 불덩어리 같은것이 목을 짖 메워 더  
무슨 말을 못했다. 장군님,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그렇게까지 내세워 주십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심재화가 집으로 옮겨 온지 사흘째 되는 날 밤  
교대를 마친 이른 아침에 조정숙은 로동자구마을  
을 향해 걸어 가고 있었다. 그가 내가에 이르렀  
을 때였다. 겨울이지만 의연히 버들방천을 따라  
안개가 흘렀다.

그때 저쪽 아래에서 누군가가 자그마한 땡이로  
자갈밭에 얼어 붙은 조약돌들을 툭툭 쪼으며 콩  
자갈을 줍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갔다. 최순이였  
다.

우리 장군님께서 공장을 다녀 가신 격동적인  
소식은 만사람의 가슴을 새로운 삶으로 불 타게  
했다. 최순이도 심각하게 자기 생활을 돌이켜 봤  
다. 공장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 온 조정숙의 그  
마음이 그대로 높은 실력이 되어 이제는 뛰어 난  
실적을 쌓고 있으니 그것이 장군님께 드리는 기  
쁨으로 되었구나.

조정숙의 인생의 값은 금벌처럼 빛나는데 나는  
이게 무엇인가.

인생의 길이란 곧 진심을 바치는 길이구나. 그  
길에서만이 만복을 누릴수 있구나. 조정숙이 얼  
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조약돌주머니가 복주머  
니로 될줄 누가 알았을가.

그는 며칠전부터 조립장으로 다시 나왔다. 하  
지만 그는 이제 고급기능공으로 불리울수가 없었  
다. 수년동안 손을 놓은 사이에 손끝이 어지간히  
굳어져 버린것이였다. 빨리 따라 서려면 역시  
손끝 감각훈련이 필요하다는것을 느끼고 이렇게  
내가로 나온 최순이였다.

어제날의 증발머리가 조약돌을 주운 그 자리에  
서 15년이 지난 이 아침에 다시 쫓겨 될줄 뉘 알  
았을가. 최순의 낮빛은 해쓷했다. 목소리도 떨리  
였다.

《그렇게 아무 말도없이 서 있기만 할래. 내가  
한심해 봐서 그러니?》

《숨웃은 왜 안 입고 나왔니. 날이 찬데.》

《까짓거 추우면 뭐래. 이런 고생을 해서 짜지.》

최순은 꼭 남의 말하듯한다. 조정숙은 웃었다.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 이제 다시해도  
늦지 않아. 우린 겨우 30대의 문어구에 들어 선  
꽃나이가 아니야.》

《위로해 주는건 고마워. 하지만 가슴이 아파서  
그래. 난 그동안 돈주머니만을 복주머니라고 여  
기면서 진짜 복주머니 내버렸었으니 나자신이 스  
스로 쓰레기가 될번 했어.》

《그건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 이제부터 보란  
듯이 살자꾸나.》

아침해가 떠오르자 그 령롱한 첫 해살이 두 녀  
인의 얼굴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 우리 당 선군사랑의 위대한 철리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해명

리동수

우리 당창건 55돐을 맞으며 백전백승의 기치 조선로동당의 영웅적기상과 불패의 모습을 금지높이 노래한 서사시 《20세기 령마루에서》(김만영)는 우리 당 선군정치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친 당에 대한 불멸의 송가, 격찬의 서사시로 사람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 서사시가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위대성을 예술적으로 심오히 밝힌 성공작으로 될수 있는것은 바로 거기에 시인의 개성적모습이 뚜렷이 비껴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에서 시인의 얼굴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벌써 창작에서 실패를 의미한다. 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뚜렷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수 없는 독특한 정서세계가 펼쳐져야 한다.》

서사시에서 시인의 개성적면모는 오늘의 선군시대를 통채로 폭이 있게 그려내고 굵직한 정책적선을 타고 나가면서 형상적의도를 기백 있는 필치로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는데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시인은 20세기의 령마루에 올라 지나온 세기와 다가오는 세기를 한눈에 굽어 보며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 승리의 한길로 줄달음쳐 온 백전백승의 기치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모습에 대하여 금지높이 노래하고 있다.

서사시에 심어 진 사상적알맹이는 우리 당의 위대한 《선군사랑》의 심오한 철리를 밝힌것이다.

우리 당 선군사랑의 위대한 철리를 형상적으로 심오히 밝힌 여기에 바로 이 서사시의 뭉이 있고 시적발견이 있다. 시인은 선군시대의 주도적 감정가운데서도 근본의 근본으로 되는 선군정치가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베푸는 최고의 사랑, 사랑의 최고정화로 된다는 사랑의 철학을 《선군사랑》이라는 네글자속에 축도하여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로 심어 놓았다.

선군이야말로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만능의 보검》이며 모든 《승리의 원천》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선군사랑》을 펼치셨기에 그 엄혹하고 간고한 시련의 나날에 우리 인민의 운명이 지켜 지고 우리 삶이 빛나게 되었으며 우리의 찬란한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

시인은 서사시의 결구에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치고 있다.

그렇더라, 그이는  
선군, 사랑의 이 두 글자로  
인민만세의 진리를 새겨  
장엄한 20세기를 빛내이고  
사랑의 이 두 글자로  
거창한 21세기 대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거니

하여 20세기 령마루에서  
위대한 선군사랑을 펼치여  
우리 운명을 지켜 주고  
우리 삶을 빛내주고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 준  
우리 당에 인민은 감사를 드리노라  
김정일동지께 조국은 영광, 영광을 드리노라

시인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지켜 주고 우리 인민의 삶을 꽃 피워 주고 우리 인민의 밝은 미래를 열어 준 우리 당의 위대한 사랑을 총대를 중시하고 앞세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위대한 산아로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시인은 세기와 세기가 교차되는 20세기의 령마루에서 생활을 통채로 그려내고 《선군사랑》의 위대한 철리를 형상적으로 심오히 론증하기 위한 전개방식을 통이 크게 구상한다. 그는 언제나 형상의 대를 정책적으로 굵직굵직하게 세운다. 그리고 큰 심장과 예민한 감각으로 생활을 폭이 있고 깊이 있게 체험하면서 가장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계기를 찾아 시를 엮어 나간다. 그것이 바로 이 서사시의 정서적발판을 이루고 있는 세계의 지지점으로 되고 있다. 이 세계의 형상적지지점은 선군사랑의 심오한 철리를 밝힌 종자로부터 발아되어 세줄기의 튼튼한 형상적줄기가 되고 아지가 되고 망울을 터치면서 정서적결실을 이루고 있는바 그것이 이 시의 첫 부분에 노래된 《전선길》, 둘째 부분에서 《삶의 향기》, 셋째 부분에서 《미래》에 대한 문제로 설정되고 그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해명으로 주어 진 구성생리이다.

이 세줄기의 형상적대는 서로 독자적인 정서적뭉을 가지고 뚜렷한 부주제를 실현하고 있으면서도 《선군사랑》의 위대한 철학을 깊이 있게 밝히

는데로 지향되고 있으며 서로 침투되고 련관되어  
나가면서 하나의 통일적인 화폭을 이루고 있다.

서사시는 형상의 첫 지지점에서 《전선길》에  
담겨져 있는 심오한 운명의 철학을 력대 정치사  
와 우리의 총대철학, 총대정치에 대한 예리한 정  
책적분석과 깊이 있는 주정토로를 통하여 감동  
깊게 펼쳐 보이고 있다.

꺼져 가던 민족의 생명에  
빛을 주고 열을 준 백두산사랑  
총대고향의 영원한 사랑을 안고  
천리전선길 굽이굽이를 수 놓아 오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은인  
**김정일장군!**

이 세상에 천만사랑이 있다 하라  
인류가 전설처럼 전해 오는 사랑이 있다 하라  
허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준 사랑보다  
더 크고 더 뜨거운 사랑이 또 어데 있으랴

시인은 이 세상에 천만사랑이 있다한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준 위대한 사랑보다 더 크  
고 뜨거운 사랑이 없다는것을 소리높이 웨치면서  
선군이야말로 우리 당의 최고사랑, 이 세상 모  
든 사랑을 합친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의  
최고정화로 된다는데 대하여 긍지높이 노래하고  
있다.

서사시는 형상의 둘째 지지점에서 《전선길》이  
안아 온 《삶의 향기》에 대한 문제제시를 통하  
여 이 땅에 아름다운 인간의 대화원을 꽃 피워  
온 파사로운 선군사랑의 위대한 업적과 생활력에  
대하여 감동 깊게 노래하고 있다.

시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선에서 전선으  
로 험난한 길을 이어 가시며 인민들의 가슴속에  
참된 삶을 꽃 피워 주신 로고의 6년세월을 돌이  
켜 보고 있다. 시인은 그렇듯 간고하고 시련이  
겹쌓였던 고난의 6년세월에 우리 인민은 지치거  
나 쓰러진것이 아니라 더욱 강해 지고 억센 인민  
으로 자라났으며 도처에서 세인을 경탄케 하는  
신비의 세계를 펼쳐 나갔다고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다. 위대한 《선군정치》의 해발아래 자강도사  
람들이 태여났고 서해바다의 15용사들과 타래치  
는 불길속에서 목숨 바쳐 구호나무를 지켜 낸 불  
사조의 영웅들이 자라났으며 신념의 심장 하나만  
을 안고 비전향장기수들이 분계선을 넘어 왔다.  
파사로운 그 품에서 세상에 없던 군인가정과 대  
홍단부부들이 태여났고 세계 《마라손여왕》을 비  
롯한 90년대의 영웅대오가 자라났다. 자연의 향  
거를 물리치고 이 나라의 청년영웅들은 100리 대  
통로를 펼치였고 중앙무대와 중대병실들에서 군  
인가족들과 병사들이 부르는 수령결사옹위의 노  
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시인은 이 땅, 이 하늘아래 펼쳐 지고 있는 위  
대한 생활을 한가슴에 통채로 받아 안고 심장의  
필봉을 높이 들어 조국의 대공우에 《인간대화원》  
의 서사시를 단본질로 그어 나갔다.

이 길에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눈보라에도 얼지 않는  
아름다운 꽃이 피여 나  
그윽한 향기를 풍겼어라

...

만발하라  
화창하라  
위대하고 파사로운 선군의 손길이  
정히 가꾸고 키워 낸  
아름다운 인간대화원이여  
이 땅에 영원할 선군정치의 송가여!

시인은 또한 형상의 세번째 지지점에서 《선군  
사상》이 펼쳐 놓은 위대한 《미래》의 세계에 대  
하여 광만에 넘쳐 토로하고 있다.

《선군》은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와 《빨간  
앵두볼》, 《맑은 웃음》을 피워 준 사랑의 품이  
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시고 세워 주신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이 모두다 그이의 원대한 미  
래관에서 솟아 난것들이다. 수천년 내려 오던 봉  
건의 흔적을 통채로 날려 보낸 토지정리의 대자  
연개조도 메기공장과 화장품공장, 대홍단의 감자  
농사와 소금발건설, 구월산, 칠보산명승지와 유원  
지건설도 모두다 오늘의 고생을 래일의 락으로  
바꾸시려는 그이의 《선군사랑》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다.

시에서는 《그때문에 우리는/ 선군시대를 위대  
한 사랑의 시대라고 부른다/ 선군정치를 위대한  
사랑의 정치/ 선군력사를 위대한 사랑의 력사로  
고 부른다//.

인민은 한마음 우러르고/ 다시다시 우러르노라/  
사랑의 력사를 창조하신/ 사랑의 화신 **김정일  
동지!**라고 격동에 넘쳐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우에서 본 형상의 세 지지점우에 서사  
시의 기둥을 세워 놓고 굵직한 정책적선을 타고  
나가면서 석연한 시적론리와 절절한 정서적설득  
력을 가지고 때로는 부드럽고 격동이 넘치는 시  
적묘사로, 때로는 열렬하고 격조 높은 서정토로  
로, 때로는 폭이 있고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무게 있는 대사와 대범하고 호방한 필치로 《선군  
사랑》의 위대한 철리를 선명한 시적화폭으로 감  
동 깊게 펼쳐보여 주고 있다.

서사시에서 시인의 개성적면모는 또한 작품에  
관통되고 있는 길은정론적서정에 의하여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작품에 차넘치는 정론적서정은 높은 정치적식견과 정책적안목으로 현실생활을 폭 넓게 그리고 예리하게 파악하고 분석판단할 줄 아는 능력, 생활의 본질을 파고 들어 열백을 하나에 축도하여 보여줄 줄 아는 예술적일반화의 솜씨, 감성적감각과 사상적지향을 결합시켜 형상적으로 사유할 줄 아는 능력에 의해 담보되고 있다.

시의 생명인 서정은 본성에 있어서 구체적이며 섬세한 생활정서이기때문에 필연적으로 매개 시인들의 주관적인 체험과 그 시인에게 고유한 주장이 표현되기마련이다. 따라서 시에는 시인의 남다른 얼굴이 직접 드러나게 된다. 시적정서에 드러나는 시인의 이러한 개성적인 모습은 작품에 심어진 종자와 소재는 물론 시인의 사고방식과 창작적기호, 창작수법과 취미 여하에 따라 서로 각이하게 나타난다. 가령 이 시인의 경우와 같이 시적정서가 짙은 정론적색채를 띠고 나타날수도 있고 부드러운 정서적색깔을 띠고 나타날수도 있으며 정론적색채와 부드러운 정서적색깔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날수도 있다.

서사시에 관통되고 있는 강렬한 정론적서정은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리성적인것의 주도하에 정책적으로 예리하게 감각하고 철학적사색과 심오한 예술적일반화를 통해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서사시에는 시대와 생활의 본질을 안고 있는 정치적표현들과 구절들이 수많은 선택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가장 절실하고 운명적인 문제, 가장 전형적인 생활감정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전혀 생경한 감을 주지 않고 있으며 생활적으로 절절하게 안겨 오면서 정론적서정을 강하게 풍겨주고 있다.

《...60년대 그날/ 당중앙위원회에 소문없이 오시듯이/ 선군의 폭풍/ 선군의 뒤흔들고/ 그이는 누구의 바래움도 없이/ 조용히 길을 떠나시켰다// 최고사령부가 전선으로 떠 났다/ 우리의 최고사령부/ 그것은 당중앙위원회였고/ 우리의 국방위원회였다!》

이 얼마나 눈물겨울도록 우리의 가슴을 치는 구절이며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휘어 잡는 시출들인가. 이것은 티끌만한 보람도 꾸밈도 없는 진실 그대로의 절절한 토로이다. 그보다 더 소중한 그보다 더 절박한 감정체험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당과 조국과 인민과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한 운명적인 철학이 아닐수 없다.

묻지 마시라  
다 묻지 마시라  
그이 가고 가시는 그 길에  
당의 운명이 있었다

조국의 운명이 있었다  
인민의 운명이 있었다  
우리의 정권이 거기 있었고  
하늘도 땅도 거기 있었다

가장 엄혹했던 력사의 그날에 혁명의 원썩들과의 첨예한 대결장에서 우리의 모든 운명을 한몸에 걸머지신 최고사령관의 짐은 과연 얼마나 무거우셨으랴. 그이도 열이 있고 정이 있는 인간이 시기에 그 짐이 참으로 무거우시였다. 누가 덜수도 덜어 줄수도 없는 무겁고도 무거운 짐이였다. 허나 그 짐우에 조국의 운명, 인민의 운명, 우리의 미래가 실려 있기에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그 멀고 험한 전선길로 떠나셨던것이다.

《그이는 총대기둥으로/ 조국의 지붕/ 붉은기 날리는 사회주의지붕을/ 튼튼히 받들어 올리시었나니// ...선군이란 말을 가벼이 하지 마시라/ 그 어느 나라 당사, 정치사, 군령도사에도 없고/ 그 어느 사전에도 없는 선군/ 이 두 글자속에/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꽃 피우신/ 우리 장군님의 령도방식/ 우리 당의 백전백승이 있나니》

이렇듯 시인의 의도와 사상감정이 넘치는 생활론리적인 시출들을 더듬어 가느라면 우리 생활에서 근본을 이루는 전형적인 체험세계가 펼쳐지고 우리 운명과 하나로 이어진 사활적인 세계가 정론적서정의 물결을 타고 절절하게 안겨 와 심장은 격동으로 끓어 번진다.

《혁명의 장엄한 전환기》, 《생사를 판가리하는 결전장》, 《총대중시》, 《사회주의 출근길》, 《인민정치의 성공담》, 《삶과 죽음의 마지막계선》, 《산천도 선군시대의 명산》, 《사회도 일심단결의 선군사회》, 《선군의 기치》, 《사랑의 화신》 등 서사시에 씌여진 많은 정치적으로 표현들도 모두 다 선군시대의 생활정서와 정서적향취를 한껏 돋구어 주면서 강렬한 정론적서정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서사시에 차넘치는 정론적서정은 또한 《시대정신》의 심오한 철리를 고조된 주관적체험으로 시화한 시인의 주정토로를 통하여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시인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로고를 가슴 뜨겁게 새겨 안으며 감동 없이는 간직할수 없는 극적인 체험을 고조된 시적정서로 토로하고 있다.

시련이 가로 놓인 멀고 험난한 전선길로 병사들과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 주시려 전선길에 오르는 장군님의 《무거운 짐》을 두고 심중의 체험을 절절하게 호소한 격정에 넘치는 주정토로는

얼마나 우리들의 심장을 끓게 하는가. 감성과 리성의 교차속에서 령장과 인간에 대한 심오한 철학을 내적체험속에 굴절시켜 더친 양양된 서정토로는 작품의 정론적서정성을 승고한 높이로 끝없이 승화시킨다.

전선길 굽이굽이 550여단위의 현지지도로 17만 9천여리를 걸으시고 험한 령길을 타고 철령을 넘으신것만도 무려 8차례, 이 놀라운 수자를 헤아려보며 시인은 부풀어 오르는 심장의 격동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다.

그 누가 수자에는  
감정이 없다고 말했더나  
눈물이면 가장 뜨거운 눈물  
걱정이면 가장 뜨거운 걱정이  
이 수자에 다 들어 있거니

이것을 단지 수자로만 부르지 말라  
우리 장군님의 체온이 깃들고  
숨결이 깃들어 있는 이 수자 하나하나  
푸른 하늘 한조각한조각이 되어  
우리의 머리위에 가없이 펼쳐 졌어라

이렇듯 시인은 단신으로 조국의 운명, 인민의 운명이 실려 있는 무거운 짐을 걸머지시고 우리의 머리위에 가없이 열려 진 《푸른 하늘》을 펼쳐주시려 걷고 또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체험을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다.

이 푸른 하늘아래  
이 땅의 24시간  
우리의 하루하루가 있나니  
아침해빛이 흘러 드는 억만 창문들  
우리의 사회주의출근길  
일터에 넘치는 노래소리...

이 푸른 하늘아래 다 있어라  
길가에 설레는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날아 예는 새들의 울음소리  
지줄대며 흐르는 한줄기 시내물  
바라보이고 들려 오는 이 땅의 모든것  
그 어느 하나도 선군의 덕을 입지 않은것이  
없거늘

정녕 선군은  
제국주의 검은 구름을 휘몰아 내고  
인민의 머리위에 펼쳐 주신  
인민운명의 푸른 하늘  
인민만세의 푸른 하늘

서사시에서 시인의 양양된 주정토로는 격동적인 체험과 함께 그러한 강렬한 주정이 폭발될수 있는 시적정황이 충분히 성숙된 조건에서 주어지고 있다. 이것은 시적론리의 타당성을 담보해주는 한편 정서적흐름에 굴곡을 조성하면서 정론적서정을 충만시켜 준다.

서사시 《20세기 령마루에서》는 감성적체험에 기초하면서도 이성적인 체험을 위주로 하여 주도적인 감정을 폭이 있게 펼쳐 나가고 있기때문에 선이 뚜렷하고 정서적깊이가 보장되면서도 선명하게 안겨 오는 특성을 잘 살리고 있다. 마치 계곡을 스쳐 내리는 여울물이나 잔잔한 호수와는 달리 사품치며 용용히 흘러 내리는 대하처럼 시원스럽고 격랑을 일으키며 설레이는 바다와 같이 기세차고 장엄한 모습으로 상징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개성이 뚜렷한 독창적인 체험세계에서 노래하는것이 바로 시문학의 서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서사시 《20세기 령마루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말씀의 정당성과 진리성을 창작실리로 뚜렷이 확증하여 주고 있다.

## 명언해설

《생활을 성실하게 체험하지 못한 작가가 쓴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손끝의 재간은 알리지만 생활을 긍정하는 뜨거운 심장의 박동은 느낄수 없습니다.》

###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언에는 작가가 생활을 성실하게 체험하여야 현실생활을 열렬히 긍정하는 뜨거운 심장의 박동을 느끼는 작품을 써낼수 있다는 뜻이 깃들어 있다.

현실생활은 문학예술작품의 형상원천이며 기본 묘사대상이다. 현실생활을 떠나서는 문학예술이 있을수 없으며 좋은 작품이 나올수 없다. 작가가 현실속에 깊이 들어 가 생활을 성실하게 체험하

여야 뜨거운 심장의 박동을 느낄수 있는 진실하고 혁명적인 작품을 써낼수 있다. 성실한 생활체험은 작가의 창작적열정이 불 타오르고 예술적재능이 꽃 피나게 하는 바탕으로 된다. 현실체험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써낸 작품에서는 손끝의 재간은 알리지만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열렬히 긍정하고 적극 옹호하는 심장의 세찬 박동은 느껴 지지 않는다.



## 청봉의 푸른 이깔 외 1편

문동식

쏟아지는 함박눈 온몸에 맞으  
시며  
청봉숙영지의 솟을길을 헤치시  
는  
빨찌산의 아들 **김정일** 장군  
그이는 승엄한 시선으로 보고  
계시여라  
울울창창한 천고의 밀림을

만고풍상을 다 겪으면서도  
사시장철 푸르심싱싱-  
지동치는 광풍에도 억세게 자  
라난,  
밀림의 역사를 년륜에 감아 안  
고  
억년기둥으로 솟아 오른 이깔  
나무

그이는 생각에 잠기시여  
깊은 수림속을 조용히 건너시  
며  
마음속으로 속삭이시여라  
-너희들은 자랐으리  
꿈결에도 그림던  
어머니조국땅에  
첫 숙영의 깃을 편 5월의 그  
봄밤  
여기서 타오르던 사령부의  
불빛을  
해방의 해빛으로 뜨겁게  
머금고 자라났으리

너 이끼 덮인 이깔나무들이  
진달래꽃송이에 입을 맞추며  
한줄 흙을 그러안고 불을  
부비며  
잠 못들던 선렬들의 감격의  
눈물을  
생명의 자양으로  
희망의 젖줄기로

...  
그날의 잊지 못할 투사들인듯  
솟아 있는 거목들을 쓸어  
보시며  
오래도록 건너시던 우리  
장군님  
정겨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여라

-청봉숙영지의 이깔나무들은  
정말 아름다운 미남  
미녀들입니다

아, 그때  
눈 덮인 푸른 이깔의 바다는  
환희와 걱정애 설레였어라  
달려 드는 일제의 백만대적을  
산악의 협곡에 휩쓸어 버리며  
해와 별 빛나는 백두를 웅위하  
던  
투사들의 무적의 성벽이 되어

그날 위대한 우리 장군님  
여기 무성하는 밀림의 풍경  
에서

숨줄기가 꺼져 가던 민족의 가  
슴에  
뜨거운 피가 되고 맥박이 되어  
준  
30년대 조국의 영웅 아들딸  
백전로장들을 다 안아 보셨  
거니

정녕 그날은, 력사의 그날은  
천출명장 우리 장군님  
길길이 끈게 자란 이깔의 밀  
림에서  
그 어떤 폭풍에도 꺾일줄 모르  
던  
혁명의 1세 항일혁명선배들을  
보시는듯  
어디 가도 찾지 못할 미남 미  
녀로  
세상에 내세워 빛내여 주신 날

오, 그날  
청봉의 미출한 이깔성벽은  
영원히 변함 없는 태양의 위  
병들  
혁명선렬들의 불멸의 모습으로  
청청 푸르른 만리창공에  
영생의 푸른 빛을 한껏 뽐었어  
라  
위대한 장군님의 사열을 받으  
며

## 무지개

시작은 어데고 끝은 어데냐  
태고연한 마식령 천길땅속에  
화려하게 뻗어 있는 무지개동  
굴

내 에서 바라보니  
무지개속에 오늘도 흐르고 있  
구나  
최전선으로 가시던 우리 장  
군님  
병사들의 식사터를 비쳐 주시  
던  
그날의 야전차 전조등의 불빛  
이

흐르고 있구나  
암벽앞에 등잔불을 걸어 놓고  
함마를 휘두르던 무적의 병사  
들  
그들을 오래도록 지켜 보시며

마음의 손길로 땀을 씻어 주시  
고  
붕대 감은 손도 쓸어 보시던  
우리 장군님의 애정의 뜨거  
웁이

흐르고 있구나 무지개속에  
장군님 기시는 길 그끝까지  
위훈의 금별주단 짙아 드리  
리라  
눈물 젖어 따라 서던 병사들의  
눈빛도  
차바퀴를 닦아 주며, 눈비 막아  
드리며  
그이를 따라 가던 마음의 은하  
수

가시여 장군님 헤여진적 있으  
라  
바래워 병사들 떨어 진적

있으라  
어둠이 가리운 동굴속에서도  
전조등불빛과 등잔불빛으로  
하나의 혈불이로 맺히고 영키  
던  
장군님과 병사들의 뜨거운  
혈맥  
여기에 황홀한 무지개로 비쳤  
거니

그 어떤 강적이 이 무지개 베  
여내랴  
그 어떤 검은 구름이 무지개  
가리우랴  
장군님과 혼연일체 우리의 모  
습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  
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무지개  
로  
세월의 끝까지 뻗어 있구나

## 거울

비전향장기수 김용수

거울이 없다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될까?

특히 옷맵시나 화장에 관심이 많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거울은 꼭 필요한 물건이다. 녀자들은 늘 거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화장한것이 지워 졌거나 얼굴에 검댕이나 티라도 묻지 않았는가 하는것을 비쳐 보며 옷매무시도 바로 잡곤 한다.

나에게는 거울을 대할 때마다 떠오르곤 하는 추억이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 어린 시절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감옥생활을 할 때 거울과 관련되어 있었던 이야기이다.

내가 거울을 처음 본것은 아마도 5살쯤 되었을 때라고 기억된다.

하루는 누님들의 방에 들어 갔다가 거울에 비친 웬 소년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저게 누구냐고 소리쳤더니 누님들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제 바로 거울에 비친 나라고 했다.

내가 너무나도 신기해서 요리조리 살펴 보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해보니까 거울속의 아이도 나와 꼭 같은 흉내를 내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때 거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하던것이 오래도록 인상깊이 새겨 져 있었는데 지금도 철 없던 그때를 생각하면 실소를 금할수가 없다.

인류력사를 더듬어 보면 인간이 거울을 사용한다는지는 오래다.

고대사회에서는 동이나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어 사용했으며 중세때에는 구리거울대신 유리거울이 널리 보급되었다고 한다. 구리거울이나 유리거울이 발견되지 못했던 그전의 초기 인간들도 물에 비치는 자기들의 얼굴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이상해서 놀라다가 차츰 기뻐 했으리라.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만들어 진 지금의 유리거울은 19세기 중엽부터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 지금은 이 거울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평범한 생활용품이 되어서 누구도 거울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깊이 생각해 보는 이는 없을것이다.

내가 이 거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것은 남조선의 교도소에 들어 가 있을 때이다. 감옥은

사방이 콘크리트벽으로 막혀 있어서 옆감방의 동지들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그들을 통해서 새 소식 같은것을 입수할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통방을 하는것이다. 그래서 통방은 감옥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과 귀와 신경을 대신해주는 생명선이라고 말할수 있다.

감옥안의 동지들은 통방수단을 리용하여 외부의 정세자료나 적들의 동태도 알게 되고 학습도 하며 투쟁방법이나 전술도 토의한다.

그래서 교도관들도 우리 동지들이 통방을 하지 못하게 늘 신경을 도사리고 감시의 눈초리를 빼지 않는다. 하여 교도관들의 눈길을 피해 통방을 하는 방법을 찾아 낸것이 밤툼만 한 유리쪼각으로 반사경을 만들어 복도에 있는 교도관의 위치나 움직임을 비쳐 보는것이였다.

그런데 그 유리쪼각도 감옥안에서는 구하기가 여간만 어려운것이 아니였다. 교도소것들은 수감자들이 유리창문을 파손시켜 그 쪼각을 훔기로 사용하거나 자살을 하는데 리용한다고 해서 창구들에 유리대신 비닐박막을 쳐놓았다. 거울도 유리로 되어 있다고 해서 구입하지 못하게 했다.

우리는 운동시간에 운동장에 나가는 기회들을 리용하여 자그마한 유리쪼각을 몰래 얻어 가지고 들어 와 뒤면에 검은 종이를 발라서 물체가 반사되게 만들고 거기에 자그마한 손잡이를 달아서 《식구통》이나 《시찰구》로 내밀어 감방밖의 동태를 비쳐 보다가 교도관이 멀리 있거나 앉아서 졸고 있는 기미가 보이면 재빨리 옆감방의 동지들과 통방을 하곤 했다.

이렇듯 옥중투쟁을 위한 무기로 생각해 낸 검은 종이를 바른 밤툼만 한 유리쪼각이 내가 감옥에서 리용한 거울이라면 《거울》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던 내가 이번에는 진짜 거울을 가지게 되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언젠가 감옥살이를 하고 나간 어느 누가 유리대신 수지판에 은을 발라서 만드는 《프라스틱거울》이라는 수지거울을 생각해냈는데 그제 훔기로 쓸수 없는 수지제품이라 해서 교도소측에서도 수감자들이 구입해서 쓸수

있게 허락을 했다.

그렇게 되어 나도 거울 아닌 그 《거울》을 하나 구입하게 된 것이었다.

감옥에 들어 온후 20여년만에 나는 처음으로 자기의 얼굴을 거울에 비쳐 보게 되었는데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거울속의 나는 백발이 성성해 진 늙은이의 모습이었었는데 그나마도 얼굴색은 영양실조로 누렇게 뜨고 창백했으며 주름살투성이인 것이었다.

감옥살이를 시작할 때만 하여도 30대의 건강하고 생기발랄한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백발의 노인으로 변한 일그러진 내 모습을 보니 모진 징역살이가 한스러웠다.

내 얼굴은 정말이지 내가 감옥에 들어 와서 겪은 고난의 굵이만 큼이나 깊이 패인 《플》과 《산맥》으로 겹쳐져 있었다.

그러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결코 서글픈 생각만 한 것이 아니었다. 나의 두눈에만은 굴하지 않은 투지와 신념이 이글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분명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된 공지와 자부심이었고 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어떠한 시련이 닥쳐 온다 해도 끝까지 혁명에 충실하겠다는 굳은 각오였고 결심이였다.

다른 한편 나는 거울속의 내 얼굴모습을 들여다 보면서 이렇게 일그러진 모습을 하고서도 동지들앞에서 잘나체 하기도 하고 겸손하지 못한 태도를 짓기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부끄러워 지고 후회막심하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비록 령어의 몸이지만 매일 옹모도 더 단정히 하고 내가 상대하는 모든분들에게 더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친절하고 웃는 모습으로 동지들앞에 나서리라 결심했다.

거울은 사물의 외형을 그대로 반영하는 수동적인 반사체이다. 때문에 거울은 거짓이 없고 정직하게 아름다운것은 아름다운대로, 일그러진것은 일그러진대로 반사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나설 때면 의례히 거울앞에 서서 자기를 비쳐 보며 옷매무시 같은것도 바로 잡는다.

그리고 예로부터 성인들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그들의 행적을 모범으로 삼고 본 받는것을 두고 귀감으로 삼는다고 했다. 귀감이란 말은 본 받아야 할 거울이라는 뜻이다. 이때의 귀감이란 말뜻은 그 어떤 외형이나 행동거지만이 아니라 사상

과 도덕, 인격과 수양까지 포괄해서 본 받는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의 때나 허물만을 본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티가 끼여 있지 않는가도 투시해 보았다.

량심의 거울에 내 마음속 구석구석까지 비쳐 보면서 한점의 티도, 한점의 때도 없도록 마음을 깨끗이 가다듬는 습관은 오늘도 변함 없다.

이웃들사이에 사소한 일이라도 생기면 내 량심부터 먼저 들여다 보고 웃는 말로 시원하게 말끔히 풀어 버려야지, 생활과정에 조직이나 집단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개인주의나 리기주의때가 조금이라도 끼지 않았는지 거울속에 비친 내 눈동자를 보며 늘 확인하자. 이것은 나의 생활철칙으로 되었다.

내가 조국의 품에 안긴지도 벌써 한해 가까운 날과 달이 지나갔다.

아버이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러울것 없는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나는 가끔 옥고의 나날 창백하고 일그러지고 주름살투성이인 내 모습을 거울속에서 보며 충격을 받던 일을 자주 회상하곤 한다. 비록 외모는 볼품없이 병들어 있었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간직하고 죽어도 그 품속에 안기리라던 그 나날의 맹세를 다시금 생각하곤 한다.

뼈가 부서지고 살점이 떨어 저 나가는 야수적인 고문과 생지옥 같은 감방생활의 나날 추호도 굴함없이 적들과 맞서 싸워 나가던 그때의 불굴의 의지와 기백이 이글거리던 내 눈동자, 처음으로 거울을 통해 들여다 보던 그때의 내 눈동자가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생각된다.

일편단심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위해 살자고 마음 다지던 그때의 그 마음속에는 한점의 티도 없었다고 자부한다.

그것은 나의 영원한 량심의 거울이다.

나는 그 거울에 자신을 비쳐 보며 생각하곤 한다. 오늘도 나는 이 심장에 한점의 티도 없이 살고 있는가?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효모의 정을 간직하고 오직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엄혹한 시련의 그 나날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사답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 내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린다.

나는 오늘도 나의 량심의 거울에 자신을 비쳐 보며 보람찬 하루일을 시작한다.

#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이 비낀 의의 깊은 세부

-단편소설 《다래나무지팽이》를 읽고-

강은별

이 세상에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이민위천》**처럼 숭고한 뜻은 없다.

인민을 하늘로 여기시고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한생의 전부를 바쳐 오신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영상을 우려를수록 위대한 지론의 뜻이 말 그대로 하늘처럼 느껴 진다. 중심이 끝 없고 폭이 무한대한 위대한 뜻을 어떻게 한편의 작은 단편소설에 비끼게 할 것인가?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조선문학》**(주체90년 4호 신용선)에 실린 단편소설 **《다래나무지팽이》**에 탐구된 인상 깊은 세부형상을 통하여 찾아 보고저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에서는 이 위대한 정치를 생활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깊이 파고 들어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려 내야 한다.》**

모든 문학형상에서 다 그러하지만 단편소설에서 세부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이것은 하나의 생활단면, 생활의 한 계기를 통하여 생활이 안고 있는 뜻의 폭과 깊이를 밝혀야 하는 단편소설의 특성과 관련된다.

단편소설에서의 세부는 장편소설이나 기타 생활의 폭이 넓은 문학형상에서의 세부와 비해 볼 때 형상에서 차지하는 몫이 비할바없이 크다.

단편소설에서의 세부는 세부 그 자체로 끝나고 한 인물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하는데만 그쳐지는것이 아니라 소설의 전반적구성까지도 좌우한다고 말할수 있다. 더 나아가서 소설이 밝혀주는 철학적깊이, 소설형상의 높이에까지 결정적영향을 미치는것이 단편소설의 세

부라고 볼수 있다.

단편소설에서 세부문제는 그것이 수령형상소설인 경우 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왜냐하면 수령형상단편소설에서 작가에 의하여 설정된 인상적인 세부에 평범하고 례사로운 인간생활의 높이를 초월하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인간의 숭엄한 정신세계가 비껴 저야 하기때문이다.

단편소설 **《다래나무지팽이》**에서 작가가 발견하고 중심위치에 설정한 세부는 다름 아닌 **《보잘것 없는》** 다래나무지팽이이다.

말라 죽은 다래나무를 꺾어다가 대충 손질한, 이를테면 장식도 도색도 없는 수수한 지팽이, 등산객들이 하나의 멋으로 사들고 산발을 오르다가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썩개치는 까닭에 별로 품을 들어 만들지 않은 이 지팽이를 수령님께서도 그리도 소중히 여기시며 현 지지도의 길마다 차에 보관해 가지고 다니시였다.

작가는 바로 생활에서 너무도 례사롭게 보게 되는 평범한 **《다래나무지팽이》**를 세부화함으로써 아버지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위인적품모를 펼쳐 보일수 있도록 생활의 터발을 마련하였다.

이 지팽이세부는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집약적으로 보여 줄수 있게 설정된 특색 있고 인상적인 생활세부이다.

소설은 80고령의 년로하신 몸으로 조국의 최북단에 자리잡은 어느 한 도를 찾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도 도일보에 실린 자그마한 기사를 보시고 30년 세월 땅을 받들어 묵묵히 일해 오고 있는 한 로당원과 그의 딸을 찾으시고 은정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이다.

소설에서 다래나무지팽이가 등장하는것은 불과 세곳뿐이다.

작가는 아버지수령님의 마음속에 간직된 인민에 대한 숭엄한 감정이 진실하게 비껴 지도록 가장 요긴한 대목마다에만 다래나무지팽이를 등장시키였다.

하면서 아버지수령님과 다래나무지팽이의 호상결부를 눈물없이 받는 받아 안지 못하도록 장면을 펼쳐 보여 주고 있다.

작품의 이야기줄거리가 아버지수령님께서 고령의 몸으로 화려하고 멋진 지팽이가 아니라 소박한 다래나무지팽이를 짚으시고 산간벽지의 이름 없는 방목지를 찾으시는 이야기라면 감정조작은 다래나무지팽이에 비껴 지는 뜨거운 눈물과 숭엄한 격정, 세찬 충격의 련속으로 되어 있다.

첫 장면에서는 80고령의 몸으로 지팽이에 의지하시면서도 인민을 찾아 가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모습앞에서 안타까운 마음과 죄스러움으로 하여 눈물을 금치 못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감정조작의 발단으로 되는것이다.

자신의 추억이 깃든 쪽새골 혁명사적지가 아니라 귀틀집이 있는 오솔길로 발걸음을 옮기시며 수령님께서 말씀하신다.

**《허- 사람의 나이를 속일수 없거든... 요만한 산길에 지팽이를 찾다니... 허허.》**

수령님께서 지팽이를 길우에 내려 짚으며 큰 소리로 웃으시였다.

...

아버지수령님과 지팽이.

우리 언제 한번 민족의 태양이신 우리의 수령님을 지팽이와 결부시켜 본적이 있었던가.

더 다른 설명이 없고 전후사연에 대한 해설이 없다고 해도 독자들은 이 장면에서 죄스러

움으로 하여 눈물을 흘리게 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이 80이 되면 응석받이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락을 누리는것을 레사로운 일로 알고 있다.

허나 한생을 고스란히 우리 인민을 위해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일해 오신 우리 수령님께서 어이하어 80고령의 나이에도 수수한 다래나무지팡이에 몸을 얹으시며 인민을 찾고 찾으시는것인가!

소설은 이처럼 첫 장면에서 고령의 몸으로 인민을 찾아 걷고걸으신 아버지수령님의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만사람의 가슴을 뜨거운 눈물로 적시게 하는것인가를 그 어떤 주정토로도 대신 못할 《지팡이》로 방불히 그려 보여 주고 있다.

소설에서 다래나무지팡이는 아버지수령님의 마음속깊이에 까지 독자들을 이끌어 주면서 설정된 세부로서의 의미를 심화시킨다.

두번째 장면에서는 손잡이에 금장식을 한 훌륭한 지팡이가 아니라 그토록 수수하고 보잘것 없는 다래나무지팡이를 다시 찾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깊은 심중앞에서 인민의 수령의 위대한 뜻이 느껴 저 숨엄한 격정에 휩싸이게 된다.

리준호가 년로하신 아버지수령님께 어쩔수 없이 지팡이를 드려야 하는 피로운 마음끝에 부탁하여 만수대창작사에서 만들어 올린 금세공지팡이.

온갖 지성과 성의가 어린 이 지팡이는 무게 있어 보이는 도색과 조각무늬, 섬세하고도 기묘한 금세공을 한 손잡이가 부근부근하면서도 감칠맛 있게 가공된 훌륭한것이였다.

이제는 보잘것 없는 다래나무지팡이가 아니라 훌륭한 금세공지팡이를 올리게 되어 조금이나마 기쁜 심정으로 서 있는 그에게 수령님께서서는 말씀하신다.

《부관동무, 나는 언젠가 어느 한 소설책에서 이런 대목을 읽은적이 있소.

<세상에는 그 누구한테서 선

사받은 지팡이에 의거하여 한생을 편안하게 살아 가는 사람도 있다.

인생의 앞길을 가로 막는 가시덤불도 그 지팡이로 헤치고 기운이 진하면 온몸의 무게를 지탱하며 평지에서는 그것으로 거드름을 부리고 탐욕이 동할 때에는 거꾸로 추켜 들고 아무나 후려갈긴다.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의 막대기를 천부의 보물로 여기지만 자기의 팔다리가 날이 갈수록 허약해 지는 까닭은 모르는 법이다...>

어쩔소. 그럴듯 한 말이 아니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표정에도 《생각 깊은 그리고 어찌 보면 우수에 가까운 빛》과 《문득》 지으시는 《맑은 웃음》이 비껴 있다.

이 세상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험난한 길을 헤쳐 오신 그 걸음을 영원한 억만리로 이어 가고 싶으시건만 어쩔수 없이 지팡이를 찾으시게 되는 그 피로우신 심정과 금세공을 한 사치한 지팡이가 아니라 인민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인민적인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인민을 찾고 찾으실 우리의 수령님의 숭엄하신 마음이 잘 그려져 있다.

이렇게 하여 다래나무지팡이는 독자들을 아버지수령님께서 지니신 한없이 숭고한 **《이민위천》**의 세계에로 이끌어 주는 《안내자》로도 된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우리는 아버지수령님께서 타신 《인민행렬차》의 도착역을 보게 되는것이 아니다.

소설은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쳐 세번째 장면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

방목지를 찾으시여 주실수 있는 사랑, 베푸실수 있는 아버지의 정을 다 주시고 그러시기도 떠나시기 아쉬우신듯 오랜 시간을 보내신 끝에 방목지를 내리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문득 잊고 오신 다래나무지팡이를 다시 찾으신다.

만수대창작사동무들이 올린

다른 지팡이가 있다고 말씀 올리는 준호의 등을 떠미시며 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말씀은 독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린다.

《내가 지팡이를 짚고 방목지에 찾아 온것을 알게 되면 봄순이는 두말할것 없고 당생활총화때문에 30리나 되는 먼 길을 다녀 온 그애 아버지까지도 그 지팡이를 불안고 눈물을 흘릴거요. 그러지 않아도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젠 제발 험한 길을 걷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데 그 지팡이까지 보게 되면...》

동서고금 어느 력사에 이렇듯 다심하시고 인민을 위하시는 아버지가 있었던가.

년로하신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셔야 할 자신의 피로움보다 인민이 흘리게 될 눈물을 먼저 념려하시는 아버지수령님!

아버지수령님의 이 뜨거운 마음앞에서 독자들은 수령님께서 지니신 **《이민위천》**의 끝없는 깊이가 안겨 와 세찬 충격을 금할수 없게 된다.

이처럼 소설에서 다래나무지팡이는 아버지수령님께서서 한평생 좌우명으로 삼으신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이 집중적으로 표현된 철학적인 세부로 되며 이야기줄거리조직, 감정조직을 비롯한 구성전반, 더 나아가서는 작품이 제기한 주제사상까지 엿볼수 있게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문학작품의 세부는 작품을 통하여 작가가 밝히려는 문제의 철학적깊이까지 담고 있는 의의 깊은 세부로 되여야 한다고 강력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는 의의있고 인상 깊은 세부설정이 단편소설, 특히 수령형상단편소설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아버지수령님과 21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품모를 더 진실하고 격이 높게 그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 위훈

### 양해도

천연의 수림속에 바다를 통채로 옮겨 놓은듯 한광덕저수지는 광덕마을보다도 펴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이 저수지가 완공됨으로 하여 B발전소와 새로 건설된 8개의 중소형발전소들이 갈수기에도 만부하로 전기를 생산할수 있게 되었다.

조국의 지도우에 또 하나 푸른 저수지의 표식이 늘어 나게 된 이 뜻깊은 날에 나는 저수지의 까마득한 언제우에서 제2금속공장건설연합기업소 김길웅책임비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발밑에선 푸른 물결이 출렁이고 수평선너머로 저수지 한복판에 솟아 있는 한쌍의 산봉우리, 그 산판에 빼곡이 들어 선 록음 짙은 수림은 한쪽의 풍경화처럼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참 경치가 아름답군요!》

나는 눈앞에 펼쳐 진 절경에 취하여 탄성을 올렸다.

《물론 아름답지요. 휴양소를 세워도 좋을것입니다.》

김길웅은 50대나이이지만 아직도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눈길로 저수지의 푸른 수면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작가동무, 자연경치에 대해서는 화가들에게나 맡깁시다. 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 그들의 강의함, 불굴의 의지가 얼마나 고결하고 위대한 목적을 실현할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저수지건설과정에...》

책임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 해임문제

저녁시간은 빨리도 흘러 김길웅이 하루일과를 끝 맺는 때는 늘 밤이 깊은 때였다.

그의 책상우에는 책임비서의 수표를 기다리는 문건들이 수두룩이 쌓여 있었다. 문건 하나하나를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 보는 그의 강파로운 얼굴에는 흐뭇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상급당으로 올라 가는 표창내신문건들, 결원된 일군들을 새로 임명하는 간부문건들, 하나하나 문건들에 수표를 끝낸 그에게는 퇴근할 시간이 되었다. 그는 퇴근을 앞두고 하루에 있는 일들을 더듬어 보았다. 그러자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며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부기사장 황현필을 연로보장으로 넘기자는 문제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허리가 구부정하고 도수 높은

안경을 낀 황현필의 갱뿔한 얼굴이 떠올랐다.

65살의 오랜 일군, 기업소가 맡아 하는 여러 대상들중에 늘 어느 한 대상의 부책임자로 현장 지휘부에 나가 있으면서 독자적으로는 별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소심한 사람, 하지만 젊은 시절에 그가 대학최우등졸업생이며 건설과 관련한 기술실무적인 문제에는 조예가 깊다는 말을 김길웅은 사람들로부터 들어 왔다.

그래서 며칠전 기업소가 광덕언제공사를 맡게 되었을 때 책임비서방에 모인 일군들과 기술자들속에서 김길웅은 누구보다도 황현필의 발언에 기대를 걸었다.

금속공장건설을 전업으로 해온 기업소로서는 처음으로 맞닥든 언제공사인데다가 장마철전에 와닥닥 끝내야 할 어려운 과제를 놓고 진지한 협의가 필요하였던것이다. 더우기 이 공사는 얼마전 함경북도를 현지지도하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관심하시는 대상이며 청진시전기난방화와업실현에서 돌파구를 여는 공사라는것을 생각할 때 김길웅의 마음은 몹시 무거웠다.

하지만 협의회에 참가한 젊은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다, 무조건 해내야 한다 하며 열을 올리는통에 김길웅의 마음도 저으기 가벼워 졌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가장 년장자이며 건설경험도 오랜 황현필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황부기사장동무, 의견을 좀 들어 봅시다.》

김길웅이 협의회를 끝내기전에 이렇게 지명했을 때에야 황현필은 힘들게 입을 열었다.

《아직 광덕공사에 대한 파악이 없는 저로서는 똑바른 주견은 내놓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이 공사가 지난 날 우리가 해온 야금기지건설과는 전혀 다르다는것입니다.

물론 공사규모나 총 투자량으로 볼 때 지난 날 우리는 그보다 몇배 큰 대상도 하였다는것으로 자신만만해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렇게 서두를 뻔 황현필은 공사의 난점들을 너무나도 엄청나게 늘어 놓는것이였다.

수력건설이란 기업소가 처음 해보는 파악이 없는 대상이라는것, 거기에 드는 막대한 량의 자재와 설비들을 국가에 손을 내밀수 없는 조건이라는것, 더우기 공사장이 기업소와 멀리 떨어져 저철도역에서도 외파로 산간지대에 있는것만큼 로

력을 전개하고 건설수단들을 옮겨 가는 공정부러 걸린다느것 등 들을수록 숨이 답답해 지는데 젊은 지배인이 듣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 나며 그의 말허리를 꺾었다.

《부기사장동지, 그만 하십시오. 여기선 과업이 어렵다는거나 론하자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배인의 말에 황현필은 《지배인동무, 난 이 공사를 놓고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을 말했을뿐이요.》 하고는 자리에 앉았다.

이 일이 있은후 사람들은 황현필이 이제는 년로보장나이라도 지나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일하기 힘들어 한다는 말로 후임을 내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는것을 은근히 암시하였다.

김길웅은 그때 부기사장의 문제가 행정과 당위원회의 적지 않은 일군들속에서 논의되는 문제라는것을 모르지 않았으나 이렇게까지 빨리 그의 해임이 제기될줄은 몰랐다.

김길웅은 송수화기를 들어 황현필의 사무실을 찾았다.

황현필대신에 경비 나온 젊은 부원이 부기사장은 퇴근한지 오래다는것을 알려여 왔다.

마음이 허전했다. 그래도 김길웅은 이 시간까지 자기 방이라도 지키고 있는 황현필을 만나게 되리라고 기대했던것이다. 그는 수화기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 났다.

련합당위원회 청사밖으로 나서니 안개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황현필부기사장의 집이 있는 농포산쪽으로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 농포산기슭에서도 기업소와 가장 먼쪽에 있는 황현필의 집에 다달았을 때는 퍼그나 시간이 지난 뒤였다.

한동 여러 세대의 단층살림집들중에서 유독 한집 옷방에서만 불이 켜져 있었다.

김길웅이 조용히 주인을 부르자 지금쯤은 잠들어 있을줄 알았던 황현필이 옷방문을 열고 마주 나왔다.

《아니, 책임비서동무가 어떻게 이 밤에?...》

황현필은 의아한 표정으로 김길웅을 마주보며 방으로 들어 가자는 말도 미처 하지 못하였다.

《어쩐지 오늘밤에 황동무를 만나고 싶어서... 아니 불청객이라고 들어 가자는 말도 안합니까?》

김길웅은 알찌근해 지는 마음을 스스로 달래고 싶어 속에 없는 룡담까지 했다.

그제야 황현필은 책임비서를 옷방으로 안내하였다. 방안에는 편수책상이 있고 그우에 책장이 놓였는데 황현필은 등근 밥상을 놓고 그우에서 무슨 글을 쓰던 모양인지 몇개의 책들과 도면들, 종이무지들이 무질서하게 널려 저 있었다.

《방이 어지러워서... 어서 앉으십시오.》

황현필은 밥상우에 널린것들을 거두며 김길웅에게 방석을 권하였다.

김길웅은 황현필이 거두는 책들중에 《언제건설》이란 책제목을 얼핏 보았다. 외국문기술잡지들이며 인민대학습당에서 출판한 기술자료들도 있었다.

김길웅은 갑자기 가슴속에서 불뭉치 같은것이 솟구쳐 올랐다. 광덕언제공사를 앞두고 기술자료들을 연구정리하고 있었던것이였다.

《책임비서동무, 옷이 젖었구만요.》

황현필이 안개비에 후줄근히 젖은 김길웅에게서 의아해 하는 눈길을 떼지 못한채 하는 말이였다.

《이쯤이야 뭐랍니다. 광덕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료들이군요.》

김길웅은 인민대학습당에서 나온 기술자로 하나를 집어 보며 이렇게 물었다.

《언제공사란 우리 기업소가 처음 해보는 대상이여서 공사에 앞서서 알고 있어야 할 기술문제들이 적지 않군요.》

황현필의 대답이였다.

그제야 김길웅은 등근 밥상옆에 쌓인 책무지옆에 있는 두툼한 책에 눈길이 갔다. 《광덕언제공사를 위한 기술자료집》 뚜껑에 씌여 있는 글을 읽으며 끄당겨 펼쳐 보니 중편소설두께만 한 책 한권이 거의다 채워 저 있었다.

김길웅은 다시한번 가슴이 뭉클했다. 사람들앞에서는 귀맛 좋은 말을 할줄 모르나 돌아 서서는 공사를 위하여 남 모르는 수고를 아낌없이 바치고있는 이 년로한 일군에 대한 미더움으로 하여 가슴이 후터워 왔다.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린 오늘까지 살아 오면서 이 마음 끝은 늙은이가 남 모르게 바쳐 온 노력이 어찌 이번뿐이겠는가.

김길웅은 책임비서로서 자기가 아직까지 놓쳐왔으며 끝까지 놓칠뻔한 한 인간의 참다운 모습을 두고 생각이 깊어 졌다.

황현필의 해임을 운운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그는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못한것만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한평생을 건설로 늙어 오면서 오직 당에서 맡겨 준 임무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겠는가 하는 생각밖에 모르는 황현필의 성실하고 깨끗한 량심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귀중한것이였다.

황현필이 침묵을 깨뜨렸다.

《책임비서동무가 이 밤에 왜 저를 찾아 왔는가 하는데 대하여 짐작할수 있습니다. 녀려 마십시오. 자리를 내놓을 때가 되긴 되였습니다. 그래서 일손을 놓기전에 이런것이라도 끝내서 넘겨 주자고 서둘렀습니다.》

황현필의 진정을 알면 알수록 가슴이 뜨거워지는 김길웅이였다. 하지만 황현필의 이 말에는

동의할수 없었다.

《그래 황동무는 정말 자기 직무를 넘겨 주고 싶습니까? 황동무자신의 로쇠가 이젠 그 일을 담당할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말입니까?》

김길웅의 목소리는 높아 졌다. 아직은 얼마든지 더 일을 할수 있다고, 그 누가 감히 자기를 일터에서 떼어 놓을수 있는가고 왜 본격하여 소리치지 못하는가. 그것이 안타까웠고 분하였다.

황현필은 말문이 막혀 버렸다. 책임비서의 격한 물음은 그를 당황하게 했다.

젊었을 때 《호랑이직장장》으로 불리우던 그는 부기사장이란 직무에 옮겨 지고 나이가 많아지면서부터 기업소의 모든 일에서 자기의 뚜렷한 몫이 점차 줄어 들고 있다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최근에 와서는 새로 부임된 젊은 세대의 일군들앞에서 자기의 주장이 흔히 불필요한 《로파심》으로, 《소심성》으로 인정되고 마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사람은 이렇게 늙고 그래서 세대가 교체되는것이라고 자기를 위안해 보려고도 해보았다.

자기에 대한 해임이 논의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격분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어쩔수 없는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책임비서가 자기를 찾아 준 방금전까지만 해도 책임비서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책임비서의 그 격한 질문앞에서 황현필은 큰 충격을 받았다.

책임비서만은 자에게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더 큰것을 바란다는것을 깨달았다.

자기야말로 책임비서가 바라는 그런 사람이외의 다른 사람으로 될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흥분시켰다.

《책임비서동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 이 황현필이 <호랑이시절>은 다 지나갔지만 <시라소니>로 자기 한생을 총화할것 같습니까?》

황현필의 목소리는 격해 졌다.

김길웅은 그의 손을 힘껏 잡았다.

《황동무, 난 바로 지금의 황동무를 믿고 있소!》

두사람의 눈길은 뜨겁게 부딪쳤다. 두사람 다 상대방을 새롭게 보게 된 뜻 깊은 밤이었다.

그때 일을 돌이켜 보며 김길웅은 자책어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나는 이렇게 나의 곁에서 일하는 동지들에 대하여 깊이 알지 못하였습시다. 그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것보다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훌륭한 일군이였지요. 실지 이번 공사에서 그는 큰 몫을 맡았습니다...》

방금전까지만 하여도 삼복의 폭양을 내리퍼붓던 하늘이 어느 사이엔가 구름으로 덮이고 마주 보이는 산마루우에 엷은 비구름을 몰아 오고 있었다.

날씨가 갑자기 차지며 비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졌다.

《날씨가 차지는군요.》

책임비서는 나를 넘려하여 이렇게 말했다.

《지나가는 소나기겠지요.》

나는 떨어 지는 비방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가며 책임비서에게 다음말을 재촉하였다.

《지나가는 소나기지요. 여긴 하루에 4계절을 다 겪는 고장이랍니다. 이 공사기간에 우리는 이 고장의 사람들뿐아니라 풍토에도 적응되었답니다.》

책임비서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 기다리던 사람

청진으로부터 광덕수저지까지 가는 수백리 길우에 해발 천여 m인 부용령이 있다.

이 령을 향간에서는 《빙설령》이라 부른다.

이 령을 넘는 길은 경사가 급하고 굽인돌이가 많아 오랜 경험과 높은 기능을 가진 운전사들도 진땀을 빼며 통과하는 위험한 개소들이 도처에 있었다. 그중에도 《심술굽인돌이》라고 향간에서 부르는 곳은 길자체가 경사가 급한데다가 갑자기 심하게 구부러 저 화물자동차가 통과하기 제일 힘든 곳으로 알려 져 왔다.

그 어떤 차든 이 굽인돌이에서는 굴러 떨어 지든가 미끄러져서 애를 먹지 않고는 통과할수 없다는것으로 하여 붙은 별명이였다.

5월 초순, 안개가 한치 앞도 분간할수 없이 짙은 밤, 이 굽인돌이를 앞에 놓고 여러대의 대형운반차(추레라)들과 대형자동차, 굴착기와 불도젤들로 이루어 진 긴 행렬이 멈춰 서게 되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매우 드물던 이 심심산골의 령길에 이렇게 많은 대형륜전기차들이 와 서게 된것도빙설령이 생겨 처음 있는 일이었다.

맨 선두에는 대형자동차와 쇠바줄로 끌려 오는 굴착기가 있었는데 굴착기는 기복이 심한 먼길을 오느라고 운전칸이 한쪽으로 기울어 졌고 자동차들의 차체에도 바퀴에서 튕겨 난 진흙감탕이 마마자욱처럼 얼어 붙어 있었다.

불무지두리에 둘러 앉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장거리운행에 지친 심한 피곤이 어리어 있었고 작업복들에는 땀과 진탕, 흙먼지가 어지럽게 게발려 있어 그 일행의 지나온 로정이 얼마나 간고했는가를 말해 주고 있었다.

...황현필이 광덕언제공사를 책임지고 나가게 되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다.



지난날 작은 건설대상에서도 부책임자이상으로는 되어본적이 없는 그였기때문이었다.

하지만 황현필이 천여명의 로력을 광덕마을에 전개한후부터 놀라울 정도로 일자리가 났다.

지질조사가 빠르게 선행되어 수백m의 연제를 한쪽으로는 콘크리트타입으로 다른쪽으로는 진흙다짐우에 토언제를 쌓을데 대한 설계가 나왔다.

콘크리트타입을 위한 혼합물장과 제재소, 400m에 달하는 잔교가 건설되었다. 그리도 힘들게 생각하였던 목재가 저수지 침수구역의 나무들을 베어 쉽게 해결되었고 잔교우에 부설할 레루도 오래전 일제시기에 폐설된 림철자리에서 찾아 내어 리용되었다. 콘크리트타입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다.

그러나 토언제공사가 자리를 내지 못하였다.

돌이나 흙을 1km이상 되는 곳에서 날라 와야 했는데 기계화수단을 들이 밀기전에는 계획된 공정기일을 보장할수 없었다.

황현필은 광덕공사장의 일을 젊은 부원에게 맡기고 기업소로 돌아 왔다. 책임비서의 방으로 가고 싶었으나 발길을 돌려 건설기계화사업소로 나가 일군들과 운전사들을 만났다.

넓은 설비들을 이끌고 수백리 험한 길에 나선다는것은 어리석은 모험이라고, 그 로상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기대들만 망쳐 버리고 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황현필은 그 생각을 반박할 말이 없었다.

책임비서를 만나야 하겠다는 생각이 또다시 그를 유혹하였다.

그런데 한 젊은 불도젤운전수가 그에게 말했다.

《부기사장동지! 군대식으로 명령을 주십시오. 안변청년발전소를 건설할 때 우린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앞에 놓고도 주저한적이 없었습니다.》

황현필은 듣던중 답답하던 가슴을 열리게 하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랐다.

《이름이 뭐요? 언제 제대됐소?》

황현필의 이 말에 불도젤운전수는 군대식으로 힘차게 대답하였다.

《전명표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최근에 찾아 주신 부대에서 복무하다가 지난해에 제대되었습니다.》

황현필은 젊은 제대군인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끝없이 미더웁게 안겨 왔다. 자신에게서 부족되는것이 바로 그런 신념이었다는것을 그제야 그는 깨닫게 된것이었다.

그리하여 장거리운행에 나설 일행이 조직되었다. 물론 그속에 전명표도 자기 불도젤과 함께 망라되었다. 첫 걸음부터 험치 않은 행로였다.

하지만 황현필은 일행을 이끌고 동요없이 난관

을 이겨 내면서 3일낮밤을 이어 왔다. 드디어 이 행로의 가장 위험한 《심술굽인돌이》에 이른것이었다.

…불무지는 타올랐다. 밤이 깊어 지면서 해발고가 높은 이 산지에서는 솜옷을 입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추워 졌다.

전명표는 불무지에 삭정이들을 집어 넣으며 또 다시 황현필에게 말했다.

《부기사장동지, 낮에 녹았던 땅이 다시 얼어 붙은 이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황현필은 결심을 내릴수가 없었다. 대형추레라 운전사 장신현, 한생을 대형차운전사로 별의별 일을 다 겪어 본 그의 생각은 어떤가?

《…내 나이 60이 가까이 되도록 큰 차를 몰고 있지만 아직까지 길이 이렇게 위험한 곳을 맞닥들리게 된건 처음이요. 체대길이가 18m나 되는 추레라를 이런 급경사의 굽인돌이에 내몬다고 하면 그전날 같으면 나자신이 정신이 빠진 운전사라고 비난했을겁니다. 하지만 어찌됐습니까. 어떻게든 통과해야 하는데… 방법은 오직 하나 추레라를 조금씩 후진, 전진하면서 굽인돌이의 각도를 맞추어 내는것입니다. 위험하지만 한번 해볼 용기는 있습니다.》

장신현은 황현필의 지지와 고무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황현필은 아무 말도 못했다.

《추레라에 실은 불도젤들을 부리우고 만일의 경우 추레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앞뒤에서 쇠바줄로 추레라를 붙잡아 주면…》

운전수가 내놓는 말에 황현필은 마음속으로 경탄하였다. 추레라운전수의 생각이 자기 희생을 각오한 비장한것이였다.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만 취해 준다면 통과할수 있다는 생각이 황현필에게 한가닥 희망을 주었다.

《차라리 쇠바줄로 모든 차들을 한줄로 엮어 매고 이 구간을 단번에 통과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전명표였다.

하지만 황현필은 깊은 생각에 잠겨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무사히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지휘일군인가. 그러나 선뜻 결심을 내리기에는 자기 마음속에 아직 무엇인가 부족하고 미타한것이 있다는것을 그는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다.

급작스레 꺾어 든 굽인돌이, 한뼘도 여유가 없는 좁은 길,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아찔한 벼랑…

그는 지난 3일간에 몸도 마음도 몹시 지쳤다는것을 깨달았다.

바로 이때 두줄기 전조등이 빠른 속도로 이곳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승용차는 불무지앞에 와서 멈춰 섰다.

승용차에서는 책임비서 김길웅이 내렸다.  
사람들이 반색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소!》

김길웅은 승용차에서 무거운 려행용가방과 함께 배낭을 부리우며 사람들에게 말했다.

《책임비서동지!》

황현필은 책임비서에게서 려행용가방과 배낭을 받으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불렀다.

《부기사장동무가 수고했소. 도당전원회의에 참가해서도 난 마음을 놓을수가 없었소.》

김길웅은 불무지둘레에 사람들을 앉히고 가지고 온 가방과 배낭을 풀었다.

《매식인들 변변히 했겠소. 먼저 식사들부터 합시다.》

김길웅의 목소리를 들으며 황현필은 갑자기 마음이 든든해 지며 배심이 생기는것을 느꼈다.

이 순간에 와서야 황현필은 자기가 얼마나 책임비서를 마음속으로 기다렸는가를 깨달았다.

이 위험구간을 극복하기 위하여 결심을 채택할 수 없었던 매들이 책임비서의 말 없는 고무를 받고서야 풀린다는것을 뜨겁게 느끼었다. 식사를 하자 모두 활기를 띠었다.

사람들은 벌써 과거사로 된 사흘동안의 일들을 돌이켜 보며 자주 웃음을 터뜨렸다.

황현필이 드디어 결심을 내렸다.

그는 먼저 추레라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어려운 구간을 통과할수 있게 길을 다지였다. 한편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갖추고 모든 차들이 쇠바줄로 서로 튼튼히 려결한 상태에서 신호를 주고 받으며 통일적으로 움직이게 했다.

황현필의 지휘에 따라 한치한치 전진하였다.

한밤중의 기온이 가장 낮아 지는 새벽, 짙은 어둠을 밝히는 승용차의 전조등까지 집중되었다.

100m 도 채 안되는 구간이었지만 웅근 4시간나 마 걸렸다. 어려운 구간을 극복했을 때는 누구라 없이 땀이 속내의를 적시고 겉옷에까지 내배었다.

## 참모습

사람의 참모습은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드러난다. 크지 않은 광덕마을에 천여명의 사람들이 들게 되니 공공건물에게까지 숙소를 정하게 되었다.

책임비서 김길웅은 련합기업소가 맡아 하는 여러 건설대상들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어려운 광덕언제공사장에 나와 살았다.

한쪽에서는 콘크리트타입이 시작되고 다른쪽에서는 토언제를 쌓기 위한 진흙다짐공사가 벌어지고 있었다.

자동차와 중기계들이 밤낮으로 가동되면서 날라온 흙을 맞들이와 질통으로 날라다가 토언제를

쌓았고 타입공들은 한톤짜리 광차를 물고 긴 잔교우를 달렸다.

광덕고등중학교 한병룡교장네 집을 지휘부로 정한 황현필은 현장시공지도뿐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 료전기재들에 대한 연유와 부속품공급 등 전반 일을 맡아 안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김길웅책임비서가 현장에 있어 황현필은 언제나 마음이 든든했다.

어느 날 황현필은 김길웅에게 말했다.

《...현장진료소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책임비서 동무의 심장이 점점 더 나빠 진다고 합니다. 병원에 들어 가서 며칠간이라도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습할수 없는 결과가 올수 있다고 합니다.》

김길웅은 대답했다.

《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저 떨어 진 토언제가 앞선 콘크리트언제수준까지 오를 때까지만 참자고 합니다.》

그러나 황현필은 자기 주장을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책임일군의 말이라면 말없이 받아 들이던 지난 날의 부기사장이 아니었다.

《그건 안됩니다. 책임비서동무는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 일군들을 믿지 못합니까? 내가 아무리 못 미덥다 해도 책임비서동무가 치료를 받는 그 기간도 감당 못할것 같습니까?》

노여움까지도 감추지 않는 황현필의 강경한 요구는 김길웅을 기쁘게 했다. 큰 일을 책임지고 일하는 과정에 점점 배짱이 크고 대가 있는 일군이 된 이 로년의 일군이 끝없이 미더웠던것이였다.

책임비서에게 그런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여럿이었지만 황현필의 그 노여움앞에서는 무작정 거절할수가 없었다.

《부기사장동무, 그럼 이번 단기경쟁총화나 하고 제가 병원엘 다녀 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길웅은 황현필의 강경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날 밤 광덕마을을 떠난 승용차는 두줄기 전조등을 비치며 빙설령의 굽인돌이를 오르고 있었다. 책임비서의 심장질환에 대하여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승용차운전사도 초조한 마음으로 차를 몰아 가고 있었다.

불규칙적으로 뛰는 심장부위를 오른 손으로 힘껏 누르며 참기 힘든 진통을 숨기느라고 진땀을 빼던 김길웅은 갑자기 운전사에게 차를 세우게 했다.

《전명표동무!》

차문을 열고 김길웅이 이렇게 불렀을 때에야 운전사는 배낭을 무겁게 지고 마주 오는 불도젤 운전수를 알아 보았다.

장거리은행때에 낮을 익힌 젊은 제대군인, 광덕공사장에 와서도 사회주의단기경쟁에서 편이여 혁신자의 영예를 받은 불도젤운전수를 운전사도 알고 있었다.

차문을 열고 땅에 내린 김길웅은 어쭙게 인사를 하는 불도젤운전수의 등에 진 배낭에 눈길이 갔다. 어깨를 파고 드는 배낭끈우에까지 진하게 내뻗 땀발이 차안의 불빛에 비추어 졌다. 무거운 중기계부속품들이 분명하였다.

《전명표동무, 어디서 오는 길이요?》

땀으로 온몸에 목욕이라도 한듯 한 젊은이에게 정겨운 눈길을 주며 김길웅이 묻는 말이었다.

《무산광산 공무직장에 불 일이 있었습시다.》

무산광산이라면 여기서도 40~50리가 잡된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광덕마을까지 걷느라엔래 일아침에나 가닿게 될것이었다.

《래일 광덕에 오는 후방차가 있겠는데...》

김길웅은 혼자말처럼 이렇게 외우며 전명표의 어깨에서 배낭을 벗기였다. 그리고는 운전칸안에 배낭을 실었다.

《전동무도 올라 타고요!》

책임비서의 말에 전명표는 당황해 하며 《책임비서동지, 전 아침까지 무조건 현장에 가닿아야 합니다.》 하며 그자리에 서 있었다.

《운전사동무, 차를 돌려 세우시오.》

전명표에게 하는 대답 대신에 김길웅은 운전사에게 말했다.

《청진으로 가는 차를 돌리란 말입니까?》

운전사가 불 부은 목소리로 이렇게 되물었다.

운전사의 이 도전적인 질문이 책임비서의 건강에 대한 녀려로부터 오는 엇드레질이라는것을 잘 아는 김길웅은 진정으로 미안해 하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래일에는 꼭 청진으로 가가요.》

승용차가 방향을 돌리게 되자 불도젤운전수가 미안해 했다.

달리는 차안에서 김길웅은 전명표에게 말했다.

《전동무는 어쩌면 이렇게 무거운걸 지고 걸어서 100리길에 나섰소?》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책임비서에게 불도젤운전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불도젤이 부속품을 기다립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하루빨리 완공보고를 드려야 할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전명표는 다르게 말했다.

《전 군대에서 성질이 느리다는 비판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성질이 급한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애 쓰고 있습니다.》

김길웅은 전명표의 이 본의 아닌 대답에서 오히려 그의 소박하고도 진실한 마음을 뜨겁게 읽게 되는것이였다.

《난 전동무와는 정 반대로 어려서부터 늘 성질이 급하다는 비난을 받곤 하였소. 그러니 전동무와 나는 늘 서로 상대를 보충해 줄수 있는 천생연분이란 말이지. 허허!》

이 말끝에 차안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그 웃음은 말로써는 내치지 않았지만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을 알게 된 만족한 웃음이었다.

사람들의 언행에서 곁에 내비치는것보다 안에 간직되어 있는 속대사를 들을줄 모른다면 그게 무슨 지휘일꾼이란 말인가.

김길웅은 언제나 사람들에게서 마음속깊이 간직된 그 속대사를 들으려 했다.

## 2일간

책임비서는 운전사와 한 약속을 지킬수 없었다. 그날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심상치 않았던것이다.

6월이지만 여기 광덕지구에서는 눈이 녹아 내리는 계절이었다.

높은 산지대의 얼음과 눈들이 비를 맞아 녹아 내리며 때때로 큰 홍수를 일으켰다.

때 이르게 내리기 시작한 장마비가 눈석이물과 합쳐 저 완성되지 못한 저수지의 수면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 고장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장마가 때 이르게 오면 무서운 홍수가 난다는것이었다.

날이 밝을녘부터 언제에서 좀 낮은 토언제쪽으로 물이 무섭게 밀려 들었다.

지휘부에서는 비상동원령을 내렸다.

자재부문, 후방부문 일꾼들까지 토언제를 높이는 일에 총 동원되였다.

비는 온종일 내렸다. 자동차와 중기계들이 발동을 끌 사이도 없었다. 속옷까지 비에 젖고 땀에 젖은 옷을 말릴 시간도 없었다.

저수지에 세워진 눈금판에는 수면이 시간당 2cm로부터 3cm, 10cm 까지 높아 가고 있었다.

자연과의 이 치렬한 싸움에 지쳤지만 사람들은 승벽내기로 돌과 흙을 날랐다.

현장에서 주먹밥으로 끼니를 예우면서 일을 다그쳐서야 한밤중에 토언제의 높이가 콩크리트언제의 수준에까지 높아 졌다.

힘겨웠던 하루일을 총화한후 김길웅책임비서는 지친 몸으로 숙소로 돌아 왔다. 당장 쓰러지면 며칠동안 깊은 잠속에 들것만 같던 그였지만 잠자리에 누우니 잠이 오지 않았다.

...끝 없는 생각의 갈피를 넘기던 김길웅은 새

벽 4시에 자리에서 일어 났다. 밖에서 내리는 비 소리가 더는 누워 있을수 없게 했다.

날은 푸름히 밝아 오는데 골안에서 내려 오는 시내물은 소리를 내며 흘러 내렸다. 서둘러 마을을 벗어 나 제방이 울려다 보이는 산등성이길에 나섰을 때에는 비에 온몸이 폭 젖었다.

다급한 걸음으로 등성이길로 올라 토언제의 아래에 이른 그는 제방쪽밀으로 습새여 나오는 물줄기를 발견하였다.

김길웅은 한순간 그 자리에 굳어 졌다. 제방쪽밀으로 물이 샌다는것은 얼마 안 있어 터진다는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무서운 환각이 그를 사로잡았다.

제방쪽밀으로 물이 습새는 곳은 세곳이나 되었다.

김길웅은 그 순간부터 자기가 어떻게 제방쪽우에 서 있는 방송선전차에까지 달아 올라 갔으며 방송원을 통하여 현장과 온 마을에 비상경보를 내리게 되었던가를 기억하지 못한다.

《제방쪽이 위험하다》는 방송원의 다급한 목소리에 자리를 차고 일어 난 건설자들이 순식간에 공사장으로 달려 나왔다.

사람들의 소용돌이속에서 김길웅은 황현필을 찾았다. 역시 새벽에 공사장에 나온 황현필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를 위해서라도 자기만은 침착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자각이 책임비서의 마음속에서 리성을 되살려 주었다.

《물이 새는 곳은 아직도 세곳입니다. 비물과 눈석이물이 가속도적으로 늘어 나는 조건에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김길웅은 황현필이 한시바빠 땀철한 리성으로 되돌아 오기를 바라며 침착하게 물었다.

그제야 황현필은 갑자기 들이닥친 위험앞에서 당황했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주머니안에서 전자수산기를 꺼내들었다.

《...제방쪽우 물넉으로 새롭게 가언제를 쌓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보적인 계산에 의하더라도 수천㎡의 흙, 수백㎡의 돌을 쌓아야 하는데 이것은 현재 설비와 로력으로 3일작업량입니다.》

황현필은 책임비서에게 아픈찬 수자를 말하는것을 몹시 미안해 했다. 하지만 김길웅은 황현필의 손을 부여잡으며 확신에 넘친 어조로 말했다.

《좋습니다! 부기사장동무가 산출해 낸 수자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불의의 정황속에서도 우리 두사람이 당황하지 않고 방도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3일작업량을 하루동안에 해낼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우리 다같이 풀어 봅시다.》

잠시후 중기계와 자동차들이 힘찬 동음을 울렸

고 단위책임자들의 구령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토언제우에는 흙마대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비는 계속 억수로 쏟아 지고 저수지의 물은 사납게 소용돌이치며 금시에 토언제를 떠밀고 나갈듯 기승을 부렸다.

《언제가 터진다!》

누군가 다급한 소리에 쪽밀을 내려다 보니 습새던 물이 점점 더 커지며 당장 쪽이 터져 나가는것만 같았다.

결정적인 행동이 요구된다는것을 자각한 김길웅은 흙마대를 둘러 메고 사나운 물결이 소용돌이치는 저수지안으로 들어 섰다. 뼈속까지 얼구는듯한 저수지물은 책임비서의 가슴팍에까지 울리었다.

이것은 전투명령이 되어 천여명건설자들의 가슴가슴에 파급되었다.

수백명이 김길웅의 뒤를 따라 물안으로 들어 섰다. 물은 얼음처럼 찼다.

(쓰러지지만 말자!)

김길웅은 뼈속까지 스며 드는 랭기에 금시 심장이 멎는것만 같은 아픔을 참으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중기계와 자동차들의 작업을 지휘하던 황현필이 다급히 김길웅의 옆으로 다가왔다.

《책임비서동무, 그 몸으로 무슨 일을 칠려고 그러니까?》

김길웅은 역시 물안으로 들어 서려는 황현필을 막으며 말했다.

《불무지를 피워야겠습니다. 교대로 몸을 녹이도록 조직해 주십시오!》

황현필은 그제야 자기 할바를 깨달은듯 마을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억수로 쏟아 지는 비속에서 어떻게 많은 불무지들을 피우겠는가.

《사람이 쓰러졌다!》는 웨침이 울려 그쪽을 보니 행정부서의 한 일군이 물에서 의식을 잃었다. 급히 달려 가 현장진료소에서 구급대책을 취하도록 대책을 세운 황현필이 돌아 왔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 났다.

장작무지를 가득 실은 트랙트르가 비속을 뚫고 마을쪽에서 달려 오고 있었다. 그뒤로 광덕마을사람들과 학교교원들, 학생들, 아낙네들과 늙은이들 수백명이 달려 오고 있었다.

집집마다 한해 땀감으로 차곡이 쌓아 놓았던 장작단들이 소달구지에 실려 나왔다.

토언제우에 수 많은 불무지들이 한시에 타올랐다. 사람들은 물안에서 파랗게 얼어 든 입술들을 겨우 움직이면서도 불무지앞으로 서로 남의 등을 떠밀었다. 부득이 교대조를 짜야 했다.

밤알만 한 우박이 쏟아 졌다. 이 고장에서도 희귀한 자연현상이었다.

하지만 자연의 광란이 제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하여도 인간의 의지와 단결력을 이겨 낼수는 없었다. 마을사람들이 삶은 감자와 국수, 김이 문문나는 국통을 이고 부지런히 마을과 공사장을 오가고 있었다.

토언제의 물벽쪽으로 가언제가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가언제의 물벽으로 석축을 동시에 해나가야 했다.

…책임비서와의 이야기는 지나간 공사의 나날로부터 다시 현실로 되돌아 왔다.

한철에 4계절을 다 겪는다는 이곳 광덕지구의 기온은 한밤중이나 새벽이면 겨울날씨처럼 춥다가도 한낮이면 삼복의 여름처럼 뜨거운 별이 내려 쪼인다. 그러나 천연수림속에 하나의 큰 인공 바다를 펼친 광덕저수지의 수면에서 흐느적이는 시원한 바람이 있어 우리는 아무런 무더위도 느끼지 못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쪽배 두척이 우리가 서 있는 콩크리트언제앞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쪽배우에는 노를 젓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그들의 머리우에서 흰 물새가 날아였다.

《물새가 어느새 찾아 들었군요. 양어사업소가 생겼답니다. 아마도 저 사람들이…》

책임비서는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 저 가는 쪽배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채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나는 그의 다음 말을 재촉했다. 그제야 생각에서 깨어 난듯 그는 나에게 눈길을 돌렸다.

《찬 물속에서 온종일 얼어 펴면서 또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이 고장의 날씨는 초겨울처럼 추워 졌지요.

그런데 물이 습새는 두곳에서는 물이 멈춰 졌는데 한곳에서만은 계속 물이 습새여 나왔습니다.

사람들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황현필부기사장이 나에게 다가왔지요.

<책임비서동무, 이젠 물안에서 다 철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었지요.

<철수하다니요? 아직도 뚝밑으로 물이 새고 있는데…>

나의 말이었습니다.

<그건 뚝이 새는게 아닙니다. 지하수에서 터져 오르는 샘물줄기입니다.>

황현필부기사의 확신에 넘친 말입니다. 그렇다면야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을 나 자신도 믿을수 없었지만 모두가 인정할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황현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저수지의 물온도와 동쪽밀의 습새는 물온도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두가지의 물이 한 굽에서 흘러 내린 물이 아니라는걸 증명해 주다는 것이었지요.

일리가 있다고 하면서도 공사의 운명이라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결과와 관련된 일이어서 나 자신도 결심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황동무는 단호히 결심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가 옳았습니다. 얼마후에 여기 저 콩크리트수문우로 저수지의 물이 넘어 흐르는 승리의 순간이 닥쳐 왔습니다.…」

김길웅은 그때의 걱정이 되살아 나는지 잠시 말을 끊고 바닥으로부터 수십 m 높이에 있는 수문에 눈길을 주고 있었다. 지금은 저수지의 물이 수문에까지 채 올라 차지 않았지만 그 수문을 넘쳐 흐르던 그날의 광경을 눈앞에 그려 보았다.

…순간에 터져 오른 환호성, 서로 얼싸안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 수문아래로 폭포가 되어 떨어지는 물줄기를 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언제우에서 달려 오는 사람, 서로 찾고 부르는 사람…

세개의 수문을 넘기 시작한 물은 잠시후 세가닥 폭포가 되어 광덕골안에 굉장한 물소리를 내며 박하천으로 흘러 내렸다.

…끝 없는 환희에 웃고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김길웅은 더는 몸을 지탱해낼수 없었다.

사람들의 손길에 부축되자 정신을 잃은 김길웅을 방송차에 눕히고 의료일꾼들이 달려 왔을 때 그의 혈압은 60아래로 떨어 졌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하였다.

…그때 일을 돌이켜 보며 김길웅은 말하였다.

《…우리는 지켜 냈습니다. 광덕저수지와 그 밑으로 펼쳐 진 8개리의 사람들, 그들의 생활을 지켜 냈지요. 보다 중요한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린 우리의 맹세를 지켜 냈다는것입니다.

이 과정에 황현필부기사장은 <호랑이직장장>시절을 되찾았습니다.

공사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을 다 영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아름다운 정신을 지닌 강한 사람들이란것을 나날이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작가동무, 이 모든 사람들이 떼서롭게 맞고 보내는 오늘의 모든 생활이 그대로 위훈이 아닐까요?》

책임비서의 이 말과 함께 나의 마음속에서는 광덕언제공사에서 있었던 인상 깊은 장면들이 영화화면처럼 눈앞에 펼쳐 졌다. 그 화면의 한 گوش에 서 있는 한사람을 놓고도 우리는 후세에 길이 전할 위훈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수가 있다!

그들을 하루빨리 자랑하고 싶은 충동으로 하여 나의 심장은 뜨겁게 달아 올랐다.

## 6월의 금강속사

(금강산에서 열린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돛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장에서)

신흥국

### 기발이 오른다

기발이 오른다, 금강산 하늘가에  
단일기 오른다, 아리랑 노래속에  
엄숙히 일어 서 우리를 때  
저도 몰래 축축히 젖어 드는 눈굽

기발은 저리도 쉽게 오르는것을-  
반세기 넘어넘어 가슴치며  
애 타게 부르던 그 모든 말들이 생각난다  
먼저 간 열사들과  
어버이 세대의 백발모습 떠오른다

심장이 뼉다  
기발로 오르는 하나된 3천리  
내 조국의 푸른 지도 우러러  
안정을 잃는것인가 술렁이는 대회장

평!- 따가운 눈물은 눈가에 그냥 돌고  
불 타는 마음 하늘가엔 기발로 오른다  
아름다운 통일세상 그려 주며  
6월이 계양한 단일기  
오, 태양의 빛발 안고 펄펄 날린다

### 언제면 깰가

연회장이다  
말이 갈아 통역도 필요 없어  
자, 다 같이 축배!  
풍습 갈아 설명도 필요 없어  
이렇게 쫓는거야 축배!

챙!-  
유리잔들 합쳐 지며 내는 소리  
갈라 진 땅의 세월 부동켜 안는 소리가  
단번에 기울인 이름 높은 평양술에  
저봐라, 서울사람 불덩이 안왔단다

노래없이 이 날을 보낼손가  
《조선은 하나다》합창  
사진없이 이 자리 있을손가  
손 잡고 어깨 결고 한모습 찰칵

어허, 취하네 취하네  
세계의 명산 금강산에서  
기묘한 바위에 눈이 취하고  
옥계수 물소리에 귀가 취하고  
향긋한 숲향기에 코가 취한다지만

우린 흠뻑 취하네  
도수 높은 통일열기에  
술 취한건 시간 가면 켜다 하지만  
우리 맘 언제 가도 꺾것 같지 않네  
아, 깨면 안돼!

### 한마음

너무도 깨끗해 함께 만져 보았지  
계곡따라 내려 있는 하얀 돌들  
썰고 다듬어 놓아 둔 백옥인듯  
너무도 맑아 함께 잠그어 보았지  
소에 담긴 옥계수 맑은 물  
그냥 거짓말 같아  
하지만 아서라, 손 잠가 보니 정말 물인것을

등산이 끝났을 때  
함께 다닌 그 친구 남쪽의 벗  
담배를 꺼내며 하는 말  
-옷먼지 한점 떨어 질가 조심스러웠고  
한점 공기 흐려 놀가 담배를 못 피웠어요  
서울 가면 이것을 글로 쓸거예요  
이러히도 아름답게  
금강을 지켜 주신 고마운분들의 이야기

나는 손을 덥석 잡았네

누구나 꼭 같은 한마음  
 평양 가면 나도 쓸거요  
 확! 불달아, 불이 달려  
 빨갭게 타드는 우린 한마음  
 서로 나누어 피우네  
 그대 주머니에도 내 주머니에도 똑같이 있는  
 멋 있어, 담배 이름도 《한마음》

## 나도 이름 하나 지어야지

옛 사람들 금강을 이렇게 불렀다지  
 보석처럼 빛나는 봄은 금강산  
 록음속에 옥계수 쏟아 지는 여름은 봉래산  
 울긋불긋 단풍드는 가을은 풍악산  
 기암절벽 뿔내는 겨울은 개골산

그러면 나도 이름 하나 지어야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등산길 하얗게 덮은  
 수백의 북남대표 통일맛이 한모습  
 금강 생겨 처음 보는 풍경이라

대표의 자격으로  
 시인의 이름으로 짓는 이름  
 단일기 날리는 6월의 풍경속에  
 4계절 금강의 아름다움도  
 금수강산 3천리 모습도 다 펼쳐 저  
 6월의 금강은 오호, 제일산!

## 온 남녘이 다 알아

그들이 어떻게 다 알가  
 수령님 사업하신 금수산집무실  
 금고안에 간직된 전우의 사진사연  
 그들이 언제 다 보았을가  
 서사시 《백두산》  
 예술영화 《조선의 별》

꿇길줄 몰라라  
 연회장에서는 어깨 결고  
 《동지애의 노래》  
 극장에서는 음악반주에 맞추어  
 《김정일장군의 노래》  
 구룡연 람승길에선 이 아름다움마저 뒤에 두시고  
 수령님식사 보장하신 김정숙어머님이야기

서울에 산다는 젊은 리사도  
 대구에 산다는 나이 많은 스님도  
 ××협의회 조직국장도, ××운동 집행위원장도  
 하나같이 하는 말  
 -백두산3대장군 따라 배우는건  
 오늘 남녘의 추세예요

오, 분별장벽 아무리 높아도  
 태양의 빛발은 가리울수 없구나  
 갈라 저 산 세월 아무리 모질어도  
 천출위인전설은 3천리에 꽃 피누나

무슨 말이 더 필요할가  
 온 남녘이 다 알아  
 세상은 넓어도 우리 겨레  
 백두산일가분들만 알아

## 6월의 금강아

위엄 있어 남성 같은 외금강은  
 온화하여 녀성 같은 내금강 껴안고  
 명랑해 자식 같은 해금강은  
 그 품에 안겨 들어  
 금강은 세계의 명산

대표들모두 탄성이네  
 푸른 숲은 기암절벽 이고 지고  
 폭포수는 바위벽 내리며 물보라 날려  
 나무 잎잎은 억만구슬 달아  
 금강의 모습은 절경

어느 하나도 동떨어 짐 없이  
 서로 받들고 이끌며  
 수수만년 한식솔로 살아 온 금강아  
 우리 동포 이렇게 손 잡고 마음 합친다면  
 이 세상 으뜸민족으로 길이 살리라  
 굽이굽이 절승경개로 깨우쳐 주는구나

내 폭풍 몰아 쳐도 6월을 잊지 않으리  
 6월을 잊으면 민족의 세월을 잃기에  
 내 어디에 가도 금강을 안고 살리라  
 금강에 살아 애국에 살고 통일에 살고 싶어  
 이렇게 운명처럼 얹혀 진  
 오, 6월의 금강아!

주체90(2001)년 6월 금강산에서

## 서정과 운률의 조화

리주정

서정성은 시문학의 생명이며 기본특성이다. 소설은 재미나고 실감 있는 이야기로, 극작품은 극적인인력으로 흥미를 돋구지만 시는 풍부한 서정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

서사시 《백두산》에 나래치는 승엄함과 장엄함, 서정시 《조선은 싸운다》에 퍼득이는 격노와 《흰바위에 앉아서》에 굽이치는 청춘의 랑만, 서정시 《그네》와 《휘파람》에 아롱이는 애모쁨, 서정시 《새들은 숲으로 간다》에 설레이는 복구건설의 환희, 서정시 《나의 조국》에 그윽하고 열렬한 조국애, 서정시 《어머니》에 타끓는 당에 대한 흠모와 헌신의 열정!

아름답고 풍만한 서정이 없다면 시문학이 어찌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로,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열정의 나팔소리, 시대의 메아리로 울릴 수 있으랴.

삶의 보람과 투쟁의 열정을 안겨 주는 시의 아름다운 서정은 언제나 그에 조화된 운률을 요구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의 서정은 운률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하여 다른 문학작품의 서정과 구별된다.》**

소설이나 극작품에서도 서정은 있다.

단편소설 《내 고향의 작은 다리》나 텔레비전극 《중달새》에서처럼 풍만한 정서를 펼쳐 놓으면 서정이 있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시에서의 서정은 생활화폭에 대한 정서 깊은 묘사나 주정토로, 서정적인 극조직보다 음악적인 언어형상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시의 서정은 우선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서정적 주인공의 뜨거운 열정으로 감수하여 그에 적절한 감성적어휘들로 표현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루어 진다. 시의 서정은 다음으로 그에 조화된 운률을 통하여 완성된다. 정서적으로 물들여 진 어휘들을 잘 선택할뿐아니라 시행의 의미적구조와 시어성음의 음향가(고저, 장단, 강약)를 고려하여 시어의 선후관계를 랑송에 편리하게 조화시켰을 때 시의 서정은 운률이라는 자기의 확고한 존재방식을 가지게 된다. 순서의 견지에서 볼 때 이것은 시의 서정을 위한 마지막과정이다. 그러나 운률이 시의 음악적형식인것만큼 운률이 없으면 음악성도 없고 음악성이 없으면 시의 음악적내용을 이루는 서정도 없게 된다.

서정과 운률의 조화적관계에 대한 이러한 견해에 비추어 1.4분기 《조선문학》에 발표된 시들을

볼 때 일정한 성과들을 찾아 볼수 있다.

이 시들에서는 운률의 첫째 요소인 박자가 서정에 잘 어울리고 있다.

박자는 원래 음악에서 음의 장단과 강약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긴것과 짧은것, 강한것과 약한것이 서로 대응, 반복되면서 형상대상에 대한 총적인 사상감정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것으로써 감정의 구체적인 상태와 과정을 나타내는 선률의 기초에 놓인다.

시에서도 박자는 운률조성의 첫째 요소로서 시어성음의 대응과 반복을 통하여 시의 음악성을 조성한다. 음악에서 2/4박자의 강약, 3/4박자의 강약약의 주기적반복으로 선률이 흘러 가게 하듯이 시에서도 시어성음이 대응과 반복을 통하여 서정이 흐르게 한다는것이다.

번쩍- 암흑을 찢는 푸른 번개발 번개발

파르릉- 천리 산정을 뒤흔드는 퇴성

왜놈들 벼락치던 투사들 그 총성 그 섬광

오늘도 그대로 남아 번쩍이며 메아리치는게지

(시 《백두산정소묘》 박성선, 《조선문학》 주체90년 2호)

《번쩍》과 《파르릉》, 《암흑을 찢는 푸른 번개발》과 《천리 산정을 뒤흔드는 퇴성》, 《총성》과 《섬광》, 《번쩍》과 《메아리》와 같이 의미의 대응과 반복에 말소리의 대응과 반복을 조화시킨것은 시의 서정을 위한 매우 세련된 운률조성수법이다.

시 《만민의 당부》(홍문수 《조선문학》 주체90년 1호)에서는 수사학적부름말 《새 세기여!》의 교차반복을 통해 세상을 향해 더치는 만민의 격정, 서정의 거대한 진폭에 어울리게 운률을 잘 조성하고 있다.

1련 새 세기여!

노을을 서둘러 펼치지 말라

...

4련 그러면 새 세기여 너는

서둘러 비구름 가져 내고

푸르디푸른 하늘을 펼치며

...

운률조성의 둘째 요소인 말소리의 흐름새도 아름다운 운률을 창조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물론 운률조성에서 기본은 대응과 반복을 보장하는 박자이다. 그러나 굴곡과 굴림새를 보장하는 흐름새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시 《고운 아기 걸음마 땀적에》(정동찬의 시초 《나의 국토》, 《조선문학》 주체90년 3호중에서)에서는 의성의태어와 울림소리, 된소리, 터침소리의 음향을 활용하여 독특하고 아름다운 굴곡과 굴림새를 조성하고 있다.

1련에서는 첫 걸음마를 떼는 아기의 모습과 움직임을 생동하게 나타내는 《아장아장》으로 첫 시행을 주고 거기에 2행을 련결시켜 8·8조의 평온한 틀조를 조성한다. 3행에서는 1행과 2행에서 토로된 정서와 3행의 정서가 잘 어울려 고조되도록 속도감이 나는 7·5조의 상승률을 조성하고 있다.

아장아장/  
고운 아기// 걸음마/ 땀적에//  
나풀 나비// 한쌍// 날아 왔으면//

2련도 이와 같은 수법을 똑같이 적용하여 서정적주인공이 노래하려고 하는 사상감정의 바탕을 진한 서정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한뼘두뼘/  
고운 아기// 걸음마/ 놓을적에//  
사뿐/ 밟는 땅/ 꼭싹했으면//

이상에서 1. 4분기 《조선문학》에 발표된 일부 시들의 운률조성에서 거둔 성과들을 서술하였다.

그러면 시의 운률조성에서는 박자와 흐름새가 기본인가?

물론 서정에 운률을 조화시키기 위한 언어구사와 시행조직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그에 앞서 생활에 대한 시인의 정서적 체험이 뜨겁고 시의 정서적내용이 고도로 양양되어 있어야 한다.

시의 생명인 서정도, 서정의 음악적형식인 운률도 생활에 대한 시인의 정서적체험의 열도와 고도로 양양된 시의 정서적내용에 의하여 규제된다.

서사시 《백두산》의 승엄한 서정과 류창한 운률은 백두산의 호랑이,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숭배심과 혁명의 성산 백두옹자에 대한 격찬에서 생긴것이며 서정시 《새들은 숲으로 간다》의 환희로움과 경쾌한 틀조는 미국놈을 때려 잡은 승리자의 손으로 다시 공장을 일떠세운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 보다 행복해 질 앞날에로 훨훨 나래치는 청춘의 푸른 희망의 퍼덕임인것이다.

시인의 현실에 대한 뜨거운 체험과 고도로 양

양된 시의 정서가 서정과 운률의 조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것은 시 《이삭에게 주는 사랑가》(김정곤의 련시 《전야의 사랑가》, 《조선문학》 주체90년 1호중에서)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시에서는 매 시행에서 정서적내용의 구획과 운률적구획이 조화되어 마치 춤 추는 분수와 같은 아름다운 운률이 조성되어 서정이 나래치게 하고 있다.

...  
이삭아//  
땀을 달라면// 깡그리/ 땀을 줄테다//  
살점을/ 달라면// 살을 떼줄테다//  
갓 서른/ 오르도록// 입밖에도/ 못 내본//  
사랑!/ 그 사랑이/ 필요하다면// 사랑을/ 줄테다//  
지어// 목숨을/ 내라면// 목숨까지도/ 바칠테다//

레몬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1행에서는 부름말 《이삭아》를 제시하고 2~6행에서는 그에 대한 정서적해명을 주고 있다. 매행의 전구에서는 정서발현의 전체를 주고 후구에서는 그에 대한 정서적해명을 주었으며 매행은 앞행의 정서를 이어 받아 승화시킴으로써 마감행(6행)에서 절정을 이루고있다.

이 시의 후반부에서처럼 시행의 반절성을 보장한것은 시운률조성에서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다. 정서적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매행이 하나의 완결된 의미를 가졌으며 운률적전지에서 볼 때 매행의 전구와 후구가 성음상 대응과 반복으로 시적정서와 조화되어 운률은 서정의 날개로 되고 있다.

이처럼 시에서 서정과 운률이 잘 조화될수 있는것은 쌀의 절박성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뜨거운 체험과 그것을 고도로 양양된 시적정서로 승화시킨 시인의 능숙한 언어형상능력과 관련된다.

병사들의 호박밥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쥬기밥, 학교를 떠나 소령이밀굽에 구멍이 나도록 벌을 돕는 아이들, 엄청난 보파리에 머리태를 묻고 밤길을 걷는 녀인들, 봉쇄환의 독뱀으로 우리를 칭칭 감으려는 제국주의악종들과 같은 대상들에 대한 시인의 절절한 체험은 목숨같이 귀중한 총을 놓고 이삭과 인연을 맺지 않으면 안된, 하여 이삭을 억만자루의 총으로 감수하는 경지에 이른 다.

쌀의 절박성에 대한 바로 이러한 절절한 체험과 그런 진실하고 열렬한 체험을 쌀을 위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려는 양양된 정서로 승화시켰기에 시에서는 서정에 조화된 아름답고 세련된 운률을 창조할수 있는것이다.

메마른 정서적체험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글자

수를 맞추고 시줄을 조절해도 운율이 아니라 기계적인 반복밖에 나오지 않는다.

1. 4분기에 발표된 일부 개념적인 시들의 경우를 보면 시적체험의 응결물인 시상이 상식에 머물러 있다보니 시의 정서적내용을 고도의 양양이 아니라 지루한 설명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현실에 대한 뜨겁고도 개성적인 체험과 그에 대한 열렬한 토로에 서정의 생명력이 있으며 그에 조화된 운율의 담보가 있다.

결국 시에서 서정과 운율의 조화를 보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선 현실에 대한 정서적체험이 무한히 뜨거워야 한다.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에 대한 시인의 개성적인 체험이 뜨거워 독창적인 시적사상감정이 탐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 그것을 시적정서로 양양시켜야 한다. 뜨겁게 달아 오른 정서속에서 절구가 맷히도록 생

신한 시적계기를 정하고 체험된 정서를 양양시킬 수 있는 정서적으로 물들여 진 시어들을 옮겨 선택하여 행과 련을 조성해야 한다. 매행, 매련이 상대적으로 완결된 정서적내용을 가짐으로써 그것 없이는 시의 서정구조가 성립될수 없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시의 행과 련을 조직할 때 그 정서적내용과 시어들의 의미가 더 잘 드러나고 시적사상감정이 더 정서깊이 느껴 지도록 시어흐름의 음악성을 조성해야 한다. 박자와 흐름새를 잘 보강해야 할뿐아니라 민족어의 우수한 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은것이 운율조성이다.

운율조성을 시창작의 원숙한 기교발현과정으로 보면서 독특하고 세련된 운율조성의 명수로 될 때 우리 시인들은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훌륭한 시작품들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더 잘 받들게 될 것이다.

## 상식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컴퓨터분야에서는 《하드웨어》란 말과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이 말들이 컴퓨터의 기본술어로 되게 되는데는 이런 일화가 있다.

지난 세기 처음으로 컴퓨터가 개발되었을 때 개발자들은 이 기계를 두고 《인간의 두뇌를 대신하는 기계》라고 이야기하였다.

당시까지 생산된 모든 기계는 어느것이나 인간의 육체로동을 대신하는 기계였는데 정신로동을 대신해 주는 기계가 나왔다니 모두가 의아해 하며 제 나름대로 생각하였다. 그 기계는 필경 사람처럼 생겼을 것이다. 실사 다르게 생겼다고 해도 자그마하고 양간할 것 이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첫 컴퓨터를 보려고 모여 들었다. 그런데 정작 마주 서보니 길이가 30m 나 되는 육중한 철함뭉치였고 그안에는 전자관과 도선, 조작기구들이 짝 차 있었다. 무게가 자그만치 30t 이나 되는 이 기계에는 전자관만 해도 무려 1만 8천개(전자관식 텔레비존수상기 1천대분에 해당함)나 들어 있어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계는 양간한 것이 아니라 《굳은 장치(하드웨어)》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그의 작업과정을 유심히 보았다. 조작공들이 무슨 책을 들여다 보고는 종이에프를 집어 넣고 가동시켰다. 그러자 그 육중한 기계가 가동하면서 해당하는 답을 내주는 것이었다. 이처럼 큰 기계도 연한 종이에프에 의해 가동되었던 것이다.

하여 구경꾼들은 《하드웨어(굳은 장치)》가 《소프트웨어(연한 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컴퓨터라고 하면서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다고 선전하였다.

이렇게 되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의 기본술어로 되게 되었다.

하드웨어란 컴퓨터본체나 주변의 장치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소프트웨어란 컴퓨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명령》이나 《처리》를 주는 부분, 즉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그것을 서술한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크게 체계프로그램과 응용프로그램으로 나눈다. 체계프로그램은 하드웨어를 조종하며 하드웨어의 기능을 리용자에게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며 응용프로그램은 자료기지프로그램, 음성인식프로그램 등 많은 프로그램들이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과 대체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언어를 리용하여 처리하는 기술이며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과 그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과 방법론, 지도서, 서술한 문건 등을 포괄하고 있다.

만일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컴퓨터 자체는 아무 일도 할수 없는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지적로동에 의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의 리용분야를 넓혀 주고 그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하여 더욱 큰 관심을 끌며 독자적인 산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 나의 멋 외 1편

김성옥

무릎까지 걷어 올린 차림새 그대로  
포전으로 가는 길  
그 길에 정답게 인사를 나눌 때면  
눌러 쓴 농립모 채양도 흔들흔들 춤을 추네  
해 뜨는 아침의 그 상패함

가래장부로  
하루계획 걸싸게 해제끼고  
논두렁에 걸터앉아  
나누어 피우는 잎담배의 구수함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네

모내기철이라  
양수장 빈 공지에 둘러 앉아  
저저마다 싸온 밥팩을 펴놓고  
권커니 들거니 축내는 밥맛은  
또 얼마나 달던가

오락회시간엔 그 언제나 1번수

또 나를 불러 내니  
에라 모르겠다  
《춘향전》의 방자놀이 곱새춤을 추었더니  
농장원들모두가 허리를 그러안고  
들판이 떠나갈듯 웃어 대네

이렇게 웃고 떠들며  
무릎을 맞대고  
두손을 맞잡고  
마음도 숨결도 맞추어 가니  
산천경개도 흥에 겨워 빙글거리네

멋이라네  
농장원들과 활 마음 열어 놓고  
흠뻑 땀 흘릴 때가  
크게 웃음을 터칠 때가  
농촌의 당일군  
내 사는 멋이라네

## 유치원마당가에서

아롱아롱 무지개색갈로 단장한  
유치원꽃대문을 지나는데  
어느새 보았는지  
넘어 질듯 아이들이 달려 오네  
달려 와선 서로가 승벽내기로  
매여 달리네

나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는 아이들  
유치원마당에 들어 가 동무하자네

별찬 사내녀석들  
내 목을 감아 쥐고 간지럽히며  
무작정 목마를 태워 달라네

어린 손목들이

내 목에 휘늘어 지니  
내 집의 응석받이 손주이런듯  
가슴에 차오르는 뜨거움

아이들과 키 맞추며  
나도 아이되어  
어울리는 이런 때  
공차기로 허물어 진 담장도  
바로 잡아 주는 이런 때  
이런 때가 더 길다면 얼마나 좋으랴만

오만가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줄  
찾고 있는줄  
알거나 할가  
이 아이들은...

## 넓어 지는 땅

윤경찬

## 1

작업반실에서 진옥은 불도젤운전수 강철호와 마주 앉아 있었다.

《반장동무! 아직 결심을 못했습니까?》

청년은 마치 즐거운 일이라도 권고하는듯 싱글 벙글 웃고 있다. 동실한 얼굴에 키는 크지 않지만 바위처럼 단단해 보이는데다 운동선수처럼 머리를 바투 올려 깎아서 어딘가 위압적인 감이 느껴 지는 체격이다.

진옥은 청년의 물음에 대답할 말이 없이 앓은 땀이책상을 내려다 보며 잠자코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농장일을 성의껏 도와 주려는 청년에 대한 고마움보다 자기의 립장을 자꾸만 난처하게 만들곤 하는데 대한 야속함이 은근히 살아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책임운전수 강철호는 토지정리사업에 동원되어 진옥이네 작업반에 배속된 첫날부터 처녀반장과 의견이 맞지 않았었다. 원래 진옥은 토지정리전투의 분위기도 고려해서 품이 적게 들면서도 실적을 올릴수 있는 도로옆의 기본포전에서부터 일을 시작하려고 했었다. 강철호는 작업대상들을 쭉 돌아 보더니 제일 구석진 막대골에서 불도젤의 첫 동음을 울리자고 제기했었다. 이유는 작업반의 토지정리대상중에서 막대골이 제일 어렵기때문이라는것이였다.

《싸움에서도 장수를 먼저 꺼꾸러뜨리면 그다음엔 물 먹은 담벽이지요.》

진옥은 애초의 계획이 뒤집어 진것으로 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으나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대로 동의했었다. 더우기는 강철호를 이미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여서 될수록 그와 시비를 가르고 싶지 않았던것이다. 그런데 막대골 토지정리에 달라붙은지 이틀만에 청년은 끝안의 모든 포전들을 1,500평 규격포전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들고 나오는것이였다. 사실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설계 일군들과도 1,000평짜리로 합의를 본 문제였다.

《그 끝안에 삽날을 박아 보니 땅도 좋고 토심이 깊어서 계단식으로 포전을 만들고 복판으로 포전길을 쭉 뚫으면 끝안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질겁니다. 군지휘부와는 제가 토론해 보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하는건 우리 고향사람들의 소원이랍니다. 하지만 소원한다고 해서 뭐나 다 실현되는건 아니지 않나요. 지금 형편에선...》

사실 진옥반장으로서의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토지정리를 시작하면서 농장에서는 일감이

2배로 많아 졌던것이다. 요새도 그는 무척 바쁜 몸이였다. 한창 마감고비에 이른 벼탈곡도 끝내야 했고 새해농사차비도 지금부터 짜고 들어야 했다.

눈앞에 할 일은 가득한데 날자는 누가 쫓기라도 하는듯 화살처럼 달아났다.

《립동이 눈앞이에요. 벼탈곡을 다그치자요.》

《퇴비생산을 놓쳐선 안돼요.》

처녀는 라드는 초풍다리마냥 짧아 지는 가을해를 따라 가 붙잡기라도 하려는듯 밤낮없이 쿵쿵 뛰며 다녔다. 그런판에 계획에도 없는 일거리를 또 만들려는 강철호의 제기를 진옥은 선뜻 찬성할수 없었다. 그래서 현재 벌려 놓은 일감만 해도 아름차다고 알아 들으리만큼 설명해 주었는데 그때는 리해가 되는지 잠자코 있다가 오늘 또 그 문제를 들고 온것이였다.

서산마루를 넘어 가던 해빛이 창가로 밝게 비치들고 있었다. 청년은 대답을 기다리기에 지쳤는지 창가로 다가서서 화분에 시선을 멈추었다. 창턱우에 놓인 화분에는 말라 버린 제라늄줄기에 몇송이의 종이꽃이 매달려 있었다. 언젠가 진옥이가 꽃이 없는 화분이라고 그냥 내쳐 둘수 없어 꽃방에서 사다가 매달아 놓은 종이꽃이였다. 그렇게라도 해놓으니 그때는 방안이 한결 환해 지는것 같았었다.

강철호는 화분을 이리저리 돌려 보다가 손가락으로 종이꽃들을 탁탁 튕겼다. 그러자 종이꽃에서 먼지가 일어 났다가 서서히 가라앉는것이 해살을 통해 똑똑히 보였다. 순간 진옥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이 방의 주인으로서, 더구나 처녀로서 남자들앞에서 게으른 구석을 보인것만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던것이다.

청년은 처녀의 심중은 개의치 않고 화분을 이리저리 돌려 보며 입을 열었다.

《반장동무 꽃 가꾸는 재미를 모르는것 같군요.》

꽃이란 보는 재미도 좋지만 가꾸는 재미가 더 크답니다. 싹은 언제 트고 잎은 언제 돋고 꽃망울은 언제 터질까... 이런 기다림속에 물을 주고 해빛을 쬌고 그래서 푸른 잎새우에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 그 향기가 방안에 차넘칠 때의 기쁨이란 유별한것이지요. 그런데 이 종이꽃은 방안의 분위기를 더 답답하게 하는것 같군요. 내 반장동무에게 좋은 꽃뿌리를 얻어다 줄테니 한번 키워 보십시오.》

《고맙지만 전 그럴새가 없답니다.》

처녀는 뻥뻥한 기운이 풍기는 어조로 대꾸했

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 사람들은 생활을 보다 더 아름답게 창조하려는 의욕과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게 되지요. 그러니 일감이 많을 때일수록 웃으십시오. 가장 비상한 정황에서 목숨을 내뿜던 영웅들은 그 마지막순간에 웃었습니다. 얼굴을 찡그리고선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 없으니까요.》

듣고 보면 심각한 이야기인데도 싱글벙글하면서 룡담조로 말하니 어딘가 싱거운 인상이 느껴졌다. 누가 뭐 그래야 한다는걸 논리적으로 몰라서 속을 태우는가. 인간은 자기를 초월할수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도 처녀는 강철호의 의견대로 1,500평 구역포전을 할수밖에 없으리라는것을 어렴풋이 예감하였다. 불도젤과 같은 성미로 군지휘부에 자기의 주장을 고집할게 뻔했던 것이다.

강철호가 나간 뒤에도 처녀는 그런듯이 앉아 있었다. 생각하면 그와 마주 앉아 쫓아 쫓아 다니는 말들을 주고 받았다는게 어이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야릇한 느낌이 감겨 도는 것이었다.

(화분을 가꾸는 재미? 정신적인 여유? 그때 일을 넘두에 두고 하는 소리가 분명해. 하필 저 사람이 우리 작업반에 올건 뭐람. 일두 참.)

진옥의 눈앞에는 올해 여름 강철호를 처음 만나던 일이 생생히 되살아 났다.

...

김매기가 한창이던 어느 날 막대골의 오불꼬불한 논두렁길로 한 청년이 찾아 왔다. 땅크병출신의 제대군인, 군토지건설사업소 불도젤운전수, 이름은 강철호... 이웃집 녀인이 자기 조카라면서 그 청년을 소개했을 때 진옥은 일을 더 하고 시집 가겠다면서 적당히 넘겨 버렸었다. 그랬는데도 오늘 그쪽에서 찾아 온다기에 아예 만나지부터 않으려고 조용한 별관에 혼자 나와 있었던 것이다.

왜서인지 처녀는 남의 소개로 생면부지의 남자와 마주 선다는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고향을 버리고 어디로 누굴 따라 간단 말인가. 그런데 그 청년이 별관에까지 찾아 나올줄이야...

청년은 진옥을 찾아 술한 작업장을 해매인듯 땀을 철철 흘리면서도 병사시절의 습관때문인지 목단추 하나 열어 놓지 않고 있었다.

《전달 받지 못했습니까? 제가 온다는걸...》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어째서 정식으로 맞아 주지 않는가 하는 항변이었다. 상대방이 싫든좋든 선 보러 온 사람에게 레의도덕이야 지켜야 할게 아닌가 하는 청년의 뒤대사를 속으로 읽으며 처녀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뜨거운 벌에 탄 처녀의 감실감실한 얼굴엔 땀방울이 송골송골했고 물때가 앓은

손엔 논김이 쥐여 저 감탕물이 툭툭 떨어 지고 있었다.

《미안해요. 전 사실... 그런 문제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절 리해해 주세요.》

처녀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뽕대가 어디 있으랴. 그것은 더는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처녀의 위엄 있는 명령과도 같은 것이었다.

살 켜 버포기들사이에서 개구리들이 논두렁에 뛰여 올라 웬일인가 해서 통방울눈을 디룩거렸다. 반들거리는 군화교송이에까지 렴치없이 올라앉은 개구리를 한참이나 내려다 보던 청년은 무릎을 꿇고 앉아 군화를 벗었다.

《허참, 보름달 보고 면도질한다더니... 어쨌든 헛걸음시킨 대가로 일감이나 주십시오. 까짓거, 농촌지원 나온셈 치지요.》

진옥은 몇번이나 만류했으나 청년은 바지가랭이를 걷어 올리고 무작정 논판에 들어 섰다.

절버덕 절버덕...

무거운 침묵속에 논김 잡는 소리만 무겁게 들려왔다. 멀지 않은 곳에서 뜸부기가 두사람의 침묵이 제 보기에다 안타깝다는듯 뜸북뜸북 속상한 소리로 울어 댔다. 인기척 없는 들판에 단들이 불어서 일을 하자니 처녀는 공연히 몸가짐이 어색해지고 헛손질이 많아 저 돌피를 잡는다는게 아까운 버포기만 뽑아 놓곤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처녀는 속이 안달아 났다. 반장이라는게 하루종일 논판에서 김매기만 할수는 없었던 것이다.

풀베기현장에도 가봐야 하고 관리위원회에도 들러야겠는데 여기서 해를 다 보내면 어쩐단 말인가. 그렇다고 청년을 혼자 남겨 두고 자리를 먼저 뜰수도 없었다. 하여튼 이 사람과 빨리 헤어져야 마음속부담이 없어 지겠는데...

한참동안 망설이던 진옥은 드디어 허리를 폈다.

《그만합시다.》

《벌써요?》

《전 가볼데가 있어서...》

《그럼... 가보십시오. 아직 해가 많은데 전 좀 더 있다 가지요.》

자기가 일손을 놓으면 강철호도 떠나갈줄 알았는데 그는 여전히 허리를 굽히고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다.

진옥은 별수없이 논두렁에 먼저 올라 섰다.

(처녀한테 거절 당하고도 낮색 하나 변하지 않으니 별사람이야. 남자들은 다 그럴까?)

울퉁불퉁한 포전길로 자전거를 몰아 가며 처녀는 자기가 그를 너무 뽕대한것 같아 속이 편안치 않았다. 거절 당한 남자쪽에서 너무 심상한 태도를 보이니 처녀는 오히려 자기가 눈에 차지 않아 그러는듯 싶어 마음이 싱숭생숭해 졌던 것이다.

해종일 여기저기 돌아 가던 진옥은 아무래도 청년의 일이 마음에 걸려 다시 막대골로 올라 갔다. 자기와의 관계에선 아무런 결실이 없다 해도 어쨌든 농장일을 성의껏 도와 준 사람이 아닌가. 아까는 함께 일하면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못했는데 떠나는 사람에게 작별인사라도 제대로 하고 싶었었다.

청년이 일하던 논판은 돌피 하나 없이 깨끗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가버린 뒤였다. 그런데 그가 자기 친척집에 남기고 간 말은 처녀의 가슴에 웅이처럼 들어 박혔다.

《그 동문 심장이 작더군요. 그런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땅을 다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옥은 쓴웃음을 짓고 말았다. 그에 대한 좋은 인상들이 자기의 가슴에서 순식간에 지워 지면서 허전한 느낌만 들었다. 처녀에게는 그가 남긴 말이 청혼을 거절 당한데 대한 일종의 보복으로 느껴 졌던 것이다.

(그 사람도 결코 대범한 남자가 아니였는가? 내가 사랑할줄도 모른다구? 하긴 아무렇게나 생각하라지. 농사만 잘 지을수 있다면 그런것쯤은...)

...

정말이지 처녀의 머리속에는 오직 농사일밖에 없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작업반장으로 선 거된 진옥은 자기들이 농사를 잘 짓지 못해 나라의 형편이 더 어려워 졌다는 죄의식으로 하여 늘 쌍 머리를 수그리고 살았다. 얼마나 많은 시련이 생활을 위협했던가. 통강냉이로 끼니를 에우고 그것마저 떨어 진 집들을 위해 크지 않은 식량자루를 덜어 내던 그때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소스라쳐 일어 나 벌로 나가곤 하는 처녀였다.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내자. 그런처럼 생활의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가 나에게겐 없다.)

처녀의 얼굴에서는 청춘의 발랄한 웃음과 생소한 기운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날줄 몰랐다. 자기는 물론이고 간혹 작업반원들이 농사일을 떠난 다른 문제를 제기할 때면 지금이 어느 때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잊었는데 가고 준절하게 꾸짖으며 살아 왔었다. 밤중에 본 어둑서니는 불수록 커진다더니 행복한 세상에서 고생을 모르고 자란 처녀에게는 눈앞에 닥쳐 진 일시적난관들이 어찌할수 없는것으로 느껴 졌던 것이다. 그의 작은 가슴에 어찌나 농사걱정만 콕 들어왔던지 지난해에 농장에는 이런 일화가 생겨 났다.

어느 날 진옥은 숙보관에 쓸 안료를 사려고 리상점에 들렀었다. 안료를 사들고 돈을 치르는데 판매원녀인은 거스름돈대신 매장아래서 약크림단지를 꺼내들었다. 언제 보나 벌판에서 바람을 맞으며 사는 처녀를 생각해서 주는 것이었다.

《이건 좋은거야. 처녀뎐 뽕시를 볼줄 알아야 해. 꽃이 왜 향기를 풍기는지 알겠지?》

《고마워요.》

하면서 처녀는 매장앞을 떠나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렸다.

《뭘 또 살게 있나?》

한참만에 진옥은 약크림단지를 도로 내밀며 무척 미안한 어조로 말했다.

《차라리 이것보다 호미나 한개 주세요. 저기 자루가 짧은거루요.》

《호미? 작업반에 호미가 모자라나? 수리분조에 새로 버린게 많아.》

《그래두 더 있으면 좋지요 뭐.》

판매원녀인은 입을 딱 벌리며 경악한 기색을 지었다. 지금껏 상점일을 해오면서 화장품대신 호미를 요구하는 처녀를 처음 보았던 것이다. 그 소문은 당장에 크지 않은 농장마을들로 날개가 돋힌듯 퍼져 나갔다.

《세상에 이런 처녀도 있어요!》 하고...

그때부터 어른들은 농사일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 제 집 자식들을 욕할 때면 의례히 그 일을 입에 올리곤 했다. 진옥반장 절반만큼이라도 하라고...

그러나 그때 처녀는 자기의 행동이 행복한 꽃시절에 대한 눈물겨운 자기 부정으로 된다는데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 2

진옥은 꿈속에서 사랑하는 애인과 꽃밭속을 거닐다가 멀리서 들려 오는 불도젤의 발동소리에 잠에서 깨어 났다. 동이 트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운전수들은 벌써 발동을 건 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앉은 처녀는 방금 꿈속에서 자기와 함께 꽃밭속을 걷던 청년이 누구였던가 생각해 보았으나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생판 모르던 사람 같기도 하고 눈에 익은 모습 같기도 한데 알쏭달쏭하면서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꿈속의 처녀가 분명 자기였던지도 아리송했다.

처녀는 꿈속에서 본 얼굴을 기억해 내려고 애쓰는 자신이 어이없이 느껴 저 혼자서 웃으며 밖으로 나섰다.

머리수건을 동이며 대문을 나서는데 할아버지의 석침한 기침소리가 등뒤에서 울려 왔다. 얼마전에 칠순고개를 넘겼지만 아직도 정정해서 손녀의 일을 도와 주려고 원심을 쓰는 할아버지였다. 토지정리가 시작되면서 할아버지는 막대골에 노상 붙어 사는데 발동소리와 함께 일어 난결 보니 또 거기에 가려는 모양이었다. 해방전에 그 땅에서 소작살이를 했고 해방후에 분여 받았던 땅도 거기에 있어 누구보다 감회가 크기때문인지 하여튼 로인의 모습은 요새 막대골에서 하나의 풍경처럼 되어버렸다.

《조반을 안 먹고 가느냐?》

《배 고픈 때 들어 오겠어요.》

《보아 하니 네가 요즘 막대골에 발길이 떠진 것 같더라. 그럼 못 쓴다. 우리 고장을 잘 살게 해주자고 장군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인데 주인들이라는게 강 건너 불 보듯 하면 안돼. 저기 1반에서는 불도젤운전수들에게 닭곰이랑 자주 해준다더라.》

며칠째 진옥은 벼탈곡이 딸리는 바람에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 선 토지정리장에 별로 낯을 돌리지 못했었다. 그저 분조장들을 시켜 지원자들이 애로되는것이 없는가나 알아 보았고 몇번 후방사업을 조직했을뿐이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오전에 진옥은 통통한 팔이 드러나도록 소매를 걷어 올리고 여러가지 음식을 만드느라 부산을 피웠다.

《기름진 돼지고기국에야 시원한 김치가 제일인데 뭘 자꾸만 볶아 대느냐?》

딸의 일손을 도와 주던 어머니가 참견했다.

《그래두 어디 그래요? 반장이 나온다면 모두 쳐다볼텐데.》

어머니는 더 지청구할념을 앓고 부뚜막으로 돌아 섰다. 농장일이라면 집기둥이라도 뿔아 가야 시원해 하는 외동딸이었던 것이다.

점심때가 다 되어 진옥은 작업반녀인들과 함께 음식보따리를 맞들고 막대골로 올라 갔다. 골안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 가고 있었다. 수십정보의 땀기논들은 계단식으로 큼직큼직하게 합쳐 지고 논두렁들은 기하학적직선으로 뻗어 나가고 있었다. 골안은 여기저기서 와르릉거리는 불도젤들의 동음으로 드릉드릉 울렸다. 논두렁을 허물고 점점 소리를 높이며 전진하던 불도젤이 갑자기 와릉 탕탕탕... 용을 쓰면서 산더미 같은 토랑을 밀어 냈다. 그리고는 성을 가라앉히듯 다시 고르롭게 통통거리며 뒤로 물러 선다. 그 찰나 부드러운 대지에 은빛으로 연마된 무쇠삽날이 건듯 들리며 해빛에 거울처럼 반사되어 눈 부신 빛으로 번쩍인다. 그것은 흡사 장한 일을 한 사람이 어깨를 으쓱하며 만족한 웃음을 터치는듯 싶다. 여기서도 번쩍- 저기서도 번쩍- 대지는 온통 무쇠삽날의 《웃음》으로 빛나고 있었다.

교대운전수에게 조향대를 넘겨 준 강철호가 운전간에서 훌쩍 뛰여 내리더니 농장원녀인들이 논두렁정리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간다. 아마도 청춘의 넘치는 활력을 어떻게 소비해야 할지 안달이 난 모양이다. 진옥은 그쪽으로 몇걸음 옮기다가 문득 서버렸다. 어쩐지 그와 마주 설 일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처녀의 감정이란 섬세한 것이어서 강철호를 단순히 작업반에 배속된 불도젤 운전수로만 대하게 되지 않았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앞에 서면 몸가짐이 긴장해지곤 하는데 화가 나기까지 했다. 농장원녀

인들은 강철호의 일숨씨를 흘린듯이 바라보다가 저마다 한마디씩 해댔다.

《아저씨 언제 농사일을 다 배웠어요?》

《군대때 못해 본 일이 없지요. 단지 처녀 하나 후려 보지 못했답니다.》

《운전수아저씨, 처녀 소개하랴요?》

《봐둔 처녀 있어요?》

《있지요.》

《정말?》

《정말 아니구요. 한번 선을 봤는데 퇴짜를 맞았지요. 자긴 바쁘다나요. 그 처녀한테 장가 들자면 꼬부랑령감이 되고 말겠지만 그래두 기다려 봐야지요. 처녀가 고우니까요.》

강철호는 삽날에 묻은 흙을 탁탁 소리나게 털며 시치미를 떼고 말했다.

《애개개, 시집두 못 가게 바쁜 너자는 간부인게지요? 우리 반장처럼.》

《암만 높은 간부래두 그 처녀 눈이 멀었어. 나 같으면 놓치지 않았겠는데.》

진옥은 더 듣고 있을수 없어 다른 사람들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 3

마가울철이다. 쌀쌀한 기운이 골안에 풍겨 돌아다. 그래도 다들 점심을 푸짐하게 치른 뒤여서 얼굴이 불깃불깃했다.

《임자네들 모여 앉은김에 내 옛말 하나 할가?》

진옥이 할아버지는 마치 무대면막앞에 나선 배우처럼 불도젤삽날앞에 올방자를 틀고 앉아 담배쌈지를 부시럭거리며 말을 이었다.

《자네들은 이 골안을 왜 막대골이라고 하는지 모를거야.》

《알 아요. 골짜기가 막대기처럼 길게 생겼다구...》

할아버지옆에 앉아 있던 1분조의 막냉이가 말참네를 했다. 로인은 그 총각의 머리를 쥐여 박으며 짐짓 엄하게 물었다.

《이 너석아, 누가 그러던?》

《우리 아버지가요.》

《그건 네 애비가 잘 몰라서 그러는거야.》

《체...》

모두들 로인이 무슨 재미 있는 소리를 하려나 해서 호기심어린 눈길들을 모았다. 진옥이도 귀가 솔깃해 졌다. 여직껏 이 땅을 다루어 오면서도 막대골의 유래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게 없었던 것이다.

《어느 먼 옛날이었지...》

로인은 멀리 흘러 간 옛날을 바라보듯 가늘게 실눈을 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머리를 열었다.

- 먼 옛날 세상의 특이한 풍경을 살아 생전에 다 돌아 보자고 산천구경을 떠난 한 선비가 하루는 이 골안을 지나게 되었다. 그 선비는 올망졸망한 논배미들이 꼭 들어 차 있는 골안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슨 뻘끼논들이 이렇게 많고. 이것두 세상에 희귀한 풍경이겠다.)

그 선비는 심심풀이로 논배미들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다. 그런데 논배미들이 손바닥 같고 오불교불한 논두렁들이 그물고 같아 30개쯤 세고는 삭갈리고 40개쯤 세고는 또 눈이 사물거려 정확히 세어 볼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선비는 도대체 논배미가 몇개나 되는지 꼭 알아 내리라 결심하고 첫 배미부터 막대기를 하나씩 꽂아 가며 세어 보다가 눈앞이 뻥뻥 돌고 다리가 너무 아파 종시 끝장을 보지 못하고 떠나버렸다.

불도젤의 무한케도우에 앉아 있던 강철호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발을 달았다.

《그러니 이젠 그 선비가 저승에서 다시 와봐도 옛날처럼 품 놓고 세어 볼 필요두 없구 어디가 어딘지 아예 알아 볼 재간이 없겠군요.》

《그렇지 않구. 그 선비만이 아닐세. 난 옛그제 해방후에 내가 분여 받았던 땅에서 논두렁들이 허물어 지는것을 보며 울었네. 참으로 사연 많은 뻘끼논들이었지. 이 끝안의 논들은 우리 마을 황지주님의 소유였는데 그놈의 승인 없이는 논두렁 하나 허물지 못했어. 옛날의 선비는 논배미를 종시 다 세어 보지 못했지만 황지주는 몇평짜리 뻘끼논이 몇개인가를 뜬금으로 외우고 있었지. 그놈한테 이 끝안 토지문서가 목침만 한게 있었으니까. 전후 협동조합이 생긴후에 우린 토지정리를 하면서 뻘끼논들을 합치긴 했지만 오늘처럼 천지개벽을 할 생각을 꿈에두 못했어. 옛날부터 땅을 주름 잡는건 하늘의 신선만이 할수 있는것으로 알았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바둑판같은 논판을 만들라고 우리 장군님께서 임자네들을 보내주셨으니 그때 쫓겨 간 지주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다시 와본다 한들 옛날의 모습을 흔적이나 찾겠나.》

로인은 마디진 손가락으로 눈곱을 찍었다.

《할아버지, 이제 여기서두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기계로 농사일을 하는걸 꼭 보시게 될겁니다. 산에는 과일들이 주렁지고 포전길엔 유모차가 달리고... 멋 있지요?》

진옥은 강철호의 공상세계에 저절로 말려 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물론 비행기니 유모차니 하는게 지나친 비약이긴 하지만 어쨌든 랑만적인 그의 생활자세는 부러웠던것이다.

(정말 우리 농장에두 그런 날이 올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강철호가 무한케도우에서 뛰어 내리며 좌중을 향해 소리쳤다.

《여러분! 이젠 오락회를 한바탕 해봅시다.》

그의 제기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박수를 치며 불도젤을 중심으로 빙 둘러 앉았다.

들판에서 벌여 지는 격식 없는 오락회라 해도 거기에는 누구나 함부로 무시할수 없는 자기나름

의 규률과 질서가 있는 법이다. 비록 웃음과 익살로 날을 세우는 규률이라 해도 그것을 함부로 무시하는건 대중에 대한 모욕으로 되는것이다. 그러니 암만 일이 바쁘다 해도 진옥은 저 혼자 훌쩍 가버릴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처녀는 속이 점점 달아 올랐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다는데 어느 시간에 노래를 부르며 앉아 있는단 말인가. 벼탈곡이 팔려서 오늘은 족담기까지 동원시켰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가보지 않고는 건딜수 없었다.

혼자 바재이던 진옥은 드디어 용단을 내려 슬그머니 일어 섰다. 이만큼 앉아 있었으면 자리를 뜬다 해도 사람들이 리해해 주리라 믿었던것이. 나야 작업반장이 아닌가.

강철호가 그를 불러 세운 곳은 오락회장소에서 퍼그나 떨어 진 곳이었다.

《반장동무가 그렇게 가버리면 섭섭한데요.》

(아이참, 이젠 노래를 안 부르는것까지 간섭하러는가.)

그러나 진옥은 류달리 이글거리는 청년의 눈길과 마주치는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안됐어요. 일이 밀려서...》

《허참, 언제 보나 바쁘다는 소리뿐이군요. ... 반장동문 산불 끄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산불이 났을 때는 당황해서 헤덤비지 말고 그 주위에 저지선을 파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불길이 번지는데로 따라 가며 끄려고 했다면 산을 다 태우고 말지요.》

그때 중요한건 당황하지 않고 배심을 가지는건데 배심이란건 신념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현실에서 토지정리는 그 산불저지선과도 같지요. 그런데 반장동문 겁을 먹은것 같군요. 사실 난 오늘... 반장동무의 노래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젠... 정말입니다.》

《용서하세요. 전 지금 바빠요.》

상대방의 마음뿐아니라 자기 심장까지도 싸늘하게 얼구는 목소리였다.

처녀는 정말 그렇게밖에 말할수 없었는가. 그는 과연 총각의 진심도 읽을줄 모르는 매정한 녀자였는가. 아니다! 처녀는 그 진심어린 목소리가 오히려 두려웠던것이다. 일에만 몰려 온 생활의 타성은 그 진심을 억지로 외면하게 했던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뻥뻥한 녀자로 오해 받을가봐 불안하기도 했다. 처녀는 달리는 대답할수 없는 자신의 메마른 태도를 변명이나 하려는듯 서글픈 어조로 말을 이었다.

《동무말처럼 제가 현실에 겁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에겐 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어요. 제 본분을 다한 그때에 가선 나도 남들처럼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겠지만 지금은 그럴수 없어요. 이젠... 이젠 제 운명이랍니다.》

《운명이라구요?》



강철호는 기가 막힌 어조로 처녀의 마지막말을 되풀이했다. 언제나 싱글벙글하던 그의 얼굴이 순간에 엄해 졌다.

《동문 생활의 모든것을 스스로 희생시키면서 농사일만 걱정하며 사는걸 장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똑똑히 알아 두시오. 그렇게 <고달프게 살면서 자기 본분을 다하러 한다>는 그건 어리석은 영웅성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동무처럼 인간적인 아름다움마저 희생시키면서 가까스로 지탱해야 할 정도는 아니지요. 우리 세상은 미래를 확신하는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인간들이 건설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굳건해 지지요. 그런데 동문 어떤 <운명>에 대해 말하려는거요?》

진옥은 머리를 번쩍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진심을 리해 받지 못한데서 오는 억울함과 야속함이 짙게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강철호는 처녀의 항변 같은건 들을 가치도 없다는듯 성큼성큼 멀어져 갔다.

진옥은 억이 막혀 말은 못하고 청년의 뒤모습을 쫓아 보았으나 앞을 가리우는 눈물때문에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여직껏 남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고 살았다. 눈물을 연약한 녀성의 표현으로 알고 있는 남자들에게 자기의 보다 강한 측면을 보이고 싶었기때문이라고 할지... 그런데 그날만은 어쩌선지 눈물이 자꾸만 흘러 내렸다. 지금껏 자부해 오던 자기의 생활방식이 여지없이 부정당한데서 오는 허무감때문인가, 아니면 여태 희생시켜 온 생활의 그 모든것들이 너무도 값없이 평가되었다는 아쉬움때문인가. 인생의 다양한 색깔들에 결는 팔지 않으리라느것이 제 스스로 정해놓은 생활자세여서 그 누가 뭐라고 한들 새삼스레 분노할진 없다고 스스로 위안하려 해보았지만 처녀는 폭풍을 만난 바다처럼 마음이 심란해 지는것을 견줄수 없었다.

밤 늦도록 진옥은 낮에 있었던 일로 하여 잠들지 못하고 뒤치락거리고 있었다. 옷방 사이문이 방긋이 열리더니 독한 썬레기담배냄새가 아래방으로 밀려 내려 왔다. 할아버지도 아직 자리에 눕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아직 자지 않느냐?》

할 말이 있으니 옷방으로 올라 오라는 소리였다.

진옥은 무거운 표정을 지우지 못하고 할아버지 앞에 마주 앉았다.

《땅은 날마다 주름살을 펴고 젊어 지는데 넌 어쩔다고 잔뜩 찌프리고 다니느냐?》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어성을 높였다. 낮에 자기들이 다루는걸 멀리서 일아 본게 틀림 없었다.

진옥은 어느때없이 엄격해 진 할아버지의 질책에 그만 설음이 북받쳐 올라 어릴적 응석 부리듯 울먹울먹한 소리로 말했다.

《난 아무래두 반장노릇 못하겠어요. 정말 힘들어서...》

《이것아, 그게 패배주의라는거야. 땅이란건 너처럼 안달복달해선 다루어 내지 못해.》

《그러니 어쩌면 좋아요?》

《담이 커야지. 철호 그 사람처럼. 그래야 범을 잡을수 있어.》

범을 잡지는 못해두 범한테 쫓기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처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할아버지 입에서 강철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까봐 슬쩍 말머리를 돌렸다.

《할아버진 사람들앞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다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흠족한 표정을 띠우며 자랑스레 말했다.

《그것두 요전날 철호 그 사람이 귀뜸해 주더라. 토지정리가 얼마나 큰 일인지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구수한 이야기를 하나 생각해 보라구 말이다.》

또 강철호로구나.

진옥은 호- 하고 한숨을 내쉬며 사이문을 닫고 내려 왔다. 멀리에서는 불도젤이 쉬임없이 통통거리고 있었다.

## 4

날씨가 추워 지면서 막대골토지정리는 점점 실적이 떨어 졌다. 땅이 얼기 시작하면서 불도젤이 작업하기 힘들어 졌던것이다. 게다가 교대운전수가 독감으로 앓아 눕는통에 강철호는 밤이나 낮이나 벌판에서 떠날줄 몰랐다.

설상가상이라더니 논란 한가운데서 커다란 바위돌이 나타나며 일을 방해할줄이야. 바위주변을 빙 둘러 파보니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불도젤에 쇠바줄을 걸고 당겨도 꺾적하지 않았다.

진옥은 폭약이라도 구해 불가 하고 생각해 보았지만 폭약을 얻는대도 살림집들이 가까운 곳에서 발파를 하면 위험하다고 모두들 반대하는 바람에 주저 앉고 말았다. 그러니 어느 세월에 정대로 이길 다 까낸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일하다간 온 겨울 막대골에 붙잡혀 있을것만 같아 진옥은 속상하기 그지없었다. 생각다 못해 그는 논두렁을 본래의 위치에서 조금 옮겨다가 그 바위우로 지나가게 작업조직을 했다. 직선으로 뻗어나가던 논두렁이 꺾이는게 마음엔 걸렸지만 속수무책으로 앓아 있기보다는 나을것 같았다.

다음날 오후쯤해서 막대골에 올라 갔던 진옥은 아연해 지지 않을수 없었다. 논두렁은 본래의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던것이다. 마음한구석이 깨름했었는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것을 보게 되니 한견으로는 안도의 숨이 나가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거예요?》

진옥은 작업조를 책임진 사람에게 거의 신경질

적으로 물었다.

《불도젤 윤전수가 반대합니다. 그런 속임수를 쓰는게 무슨 땅을 다루는 농사꾼인가가요. 그 사람의 말까지 듣고 보니 아무래도 우리 생각이 짧은것 같아서...》

그래, 강철호의 말이 옳다. 하지만 대책이 있어야 할게 아닌가. 남의 안타까운 속을 알지도 못하면서 속임수를 쓴다구?

처녀는 당장 강철호를 만나 가슴속에서 고백치는 울분을 터뜨리고 싶었다.

《그 사람이 어딜 갔어요?》

《쇠바줄이 더 있어야겠다면서 군에 갔지요. 불도젤 서너대루 동시에 당기면 될것 같은데 쇠바줄이 모자란대구...》

진옥은 그 순간 바위돌을 처리하게 되었다는 안도감보다 안타까움이 맴돌기만 하고 있었다. 그는 자책으로 하여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비겁쟁이에게 허수아비도 장수로 보인다니...

그날 밤 막대골에서는 불도젤의 동음소리와 함께 우등불이 활활 타올랐다. 하지만 처녀는 불길이 타오르는 그곳에 섰 못 나가보지 못하였다. 강철호와 마주 서면 수치감에 머리를 들수 없었던 것이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번 했는가. 직선으로 뻗어 나가던 논두렁이 나때문에 꺾일번 했으니 내가 이 땅에 무슨 허물을 남기려 했는가. 그러구 두 이 땅의 주인이라구?)

밤하늘을 배경으로 우등불은 세차게 타오르고 있었다. 하늘중천에 불꽃을 날리며 춤 추듯 타오르는 그 불길은 분명 강철호의 모습 그대로였다.

불빛이 너울거리는 창가에 하염없이 서 있던 처녀는 용기를 가다듬고 밖으로 나섰다. 가슴속에 앙금처럼 가라앉아 자기를 괴롭히는 그 모든것을 강철호앞에 당장 털어 놓지 않고는 견딜수 없었던것이다. 자기는 분명 강철호에게 사죄하러 간다고 나선 길이지만 어쩌서인지 야릇한 흥분이 살아 올랐다. 그를 만나러 가는 진의도를 자기도 명백히 알수 없었던것이다.

막대골에 다달으니 바위는 이미 뿔혀 진 뒤였다. 뿌리채 뿔히워 진 커다란 바위돌에는 아직도 녀대의 불도젤과 련결되었던 쇠바줄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진옥은 자기의 가슴속에 무겁게 자리잡고 있던 온갖 잡념의 덩어리들도 다 뿔히워 나간듯 싶어 오래도록 바위돌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우등불주위에는 작업반원들이 여러명이나 둘러앉아 있었다. 아마 그들도 이 밤 그냥 잠들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그 누구도 진옥이가 밤중에 나타난것을 별다르게 여기지 않았다. 그저 웅당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왔는데 하는 표정들이었다. 강철호는 굵직한 나무가지를 우등불에 던져 놓으며 하던 말을 계속했다.

《...사실 지금 우리 농촌엔 토지정리보다 더 절박한 일도 많고 당면한 농사문제만 해도 한두가지가 아니지요. 그러나 당에서는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토지정리에 물질적, 로력적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우리 농촌을 공산주의리상촌으로 꽃 피워 이 땅에 강성대국을 건설하시려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사업이기때문이지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미래를 확신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일본새라고 하시면서 토지정리사업은 농촌에 남아 있던 봉건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이 땅을 로동당 시대의 토지, 사회주의토지로 되게 하는 위대한 혁명이라고 하시였지요. 정말이지 우리가 하고 있는 토지정리는 단순히 땅만 넓히는 자연과의 투쟁이 아니라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일시나마 좁아 지고 어두워 졌던 일부 사람들의 마음까지 넓혀서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든든히 심어 주는 변혁이라고 할수 있지요...》

진옥은 강철호의 말이 꼭 자기를 녀두에 두고 하는 소리 같아 머리를 들수 없었다. 지금까지 처녀는 생활에 결는 팔지 않고 성실한 농사꾼의 자세로 살아 온것을 자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엔 오늘을 이기려는 모지름은 있었어도 래일에 대한 랑만은 없었다. 통털어 굶이 없는 생활... 이 얼마나 어이없는 청춘인가.

이웃포전에서 왔던 불도젤도 돌아 가자 작업반원들도 하나 둘 자리를 뜨니 우등불주위에는 강철호와 처녀반장만 남았다.

《반장동무도 들어 가 보시지요.》

하지만 처녀는 들어 갈수 없었다. 강철호가 이 밤을 또 새울게 뻔한데 어떻게 저 혼자 들어 갈수 있단 말인가. 문득 처녀에게는 올해 여름 강철호를 처음 만나던 때의 일이 생각났다. 그때도 지금처럼 조용한 이 골안에서 단둘이 일을 했었다. 너무도 묘한 운명의 조화가 아닌가. 다른것이 있다면 그때는 강철호가 자기를 찾아 왔지만 오늘은 자기가 그를 찾아 온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강철호가 어서빨리 자기곁에서 떠나가 주었으면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이 사람은 지금 날 어떻게 생각할까?)

처녀에게는 이것이 현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하고 그리고 가장 절박한 문제로 생각되었었다. 이 순간에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것 같지 않았다.

진옥의 심중을 아는지 모르는지 강철호는 가까이 세워 둔 불도젤윤전칸에서 비닐에 싸두었던 꽃모를 꺼내들었다.

《내 손으로 작업반실 화분에 심어 주고 싶었는데... 한번 잘 키워 보십시오.》

제 자리에 다시 앉은 청년은 우등불에서 타오른 불꽃들이 하늘에 닿아 박힌듯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못별들을 바라보며 랑만적인 어조로 뒤를

이었다.

《반장동문 꽃망울이 만첩으로 피어 나는걸 보려구 밤을 새워 본적이 있습니까? 군사복무시절에 난 중대병실의 화분에서 꽃이 피는걸 보려고 밤 늦도록 창문턱만 지켜 본적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소르르 잠이 들어 황홀한 꿈나라에 실려 갔었는데 갑자기 <기상!> 하지 않았습니까. 비상소집으로 야간훈련을 마치고 아침에 돌아 오니 글썽 꽃이 활짝 피어 있지 않았습니까. 어찌나 신기하던지 밤새 훈련으로 지친 몸들이지만 그 꽃을 보느라니 피곤한줄도 모르고 마음이 이상해 지더군요. 생활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지켜 선 병사의 자각을 느꼈다고 할가. 이제 여기서도 고운 꽃이 피고 그 꽃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면 반장동문 더 아름다와 질겁니다. 생활을 사랑할줄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법이니까요.》

언제 이 비슷한 말을 들었더라... 아니, 그때는 전혀 다르게 말했었지.

《그 동문 사랑할줄도 모르더군요.》

지난 여름 강철호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남기고 간 말이였다.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희뽀하게 느껴 졌던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말이 옳았었다. 자기는 생활전체를 사랑할줄 몰랐었다.

사랑, 그것은 벅차고 참된 생활의 거세찬 격류속에서 미래를 확신하는 강의한 인간들만이 느낄 수 있는 환희의 분출이다!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던가. 일이 바쁘다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것이 결국은 발밑의 난관만 보고 래일을 략관하지 못한 나약한 자의 초조감이었던 말인가. 옳을수도 있다. 자기가 정말로 굳센 인간이었다면 어떤 시련앞에서도 오늘처럼 당황하지 않았을것이다.

인생에 정말로 숙명이라는것이 있다면 생활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것이 우리 시대 인간들의 피할길 없는 《숙명》이고 그것으로 우리 사회가 굳건해진다는것을 어째서 망각했던 말인가. 그래서 바위처럼 억세고 든든한 그의 결에 나란히 서기만 한다면 생활의 어떤 시련도 웃어 줄만 한 배심이 생기련만...

진옥은 두손에 조심히 받쳐 든 애리애리한 꽃모에 고개를 수그린채 속삭임에 가까운 나직하고 애뜻한 소리로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이 꽃이 필무렵엔... 우리 농장을 떠나시겠지요. 그리구 다신... 안 오시겠지요?》

침묵.

대답할 말을 잊고 한순간 굳어 졌던 강철호는 청신한 밤공기를 폐장깊이 들이키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푸근한 겨울밤, 몽롱한 달빛, 구수한 흙냄새... 농촌의 밤정서는 청춘들의 마음까지 깨끗이 정화시켜 주는듯 싶었다.

우등불은 점점 더 세차게 타오른다. 불길은 무한한 우주를 향해 몸부림치며 날아 오른다.

강철호는 한참만에야 갈리듯 한 어조로 말했다.

《난 여기 와서 일하는 동안에 이 땅에 정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리가 완성된 다음에는 이 넓은 대지에서 마음껏 기계를 몰아 가며 농사를 지어 보고 싶단 말입니다. 물론... 이진... 동무가... 허락해야... 내 욕심이 너무... 크지요?》

그는 어쭙게 웃으면서도 불길처럼 이글거리는 눈길로 처녀를 태워 버릴듯 바라보다가 불도젤로 성큼성큼 걸어 갔다. 와르릉...

불도젤의 동음소리가 밤의 적막속에 잠겨 있던 골안을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전진하며 바위가 앉았던 자리를 메우기 시작했다.

한번 또 한번... 포전은 언제 구멍이가 있었던가 싶게 한모양으로 미끈해 진다. 진옥은 불도젤의 작업모습을 보며 자기의 마음속공백도 생활에 대한 이름 못할 환희로 짝 들어 차는것만 같았다.

(고마워요, 철호동무!)

...

한해의 마지막을 대자연의 정서로 충만시키려는듯 함박눈이 내리고 있었다. 진옥이네 작업반은 이해안으로 막대골토지정리를 끝내기로 결의해나섰다.

한해의 마지막날 밤 그들은 총 돌격전투를 들이쳤다. 여기저기서 우등불이 타오르고 불도젤의 힘찬 동음소리가 사람들의 웨침소리, 웃음소리와 함께 골안을 들었다 놓았다. 진옥은 기계화수단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진 곳들에 질통을 지고 달렸다. 밤새껏 달렸다. 그래도 힘든줄 몰랐다. 그의 결에는 강철호가 있었다. 바야흐로 어느덧 함박눈이 몇자 동녘하늘이 푸름푸름 밝아 오기 시작했다. 멀리 하늘가에 아침노을이 장엄하게 어리더니 미구하여 찬란한 해돋이가 시작되었다.

새해가 밝아 오고 있었다. 새 세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새해군요!》

처녀는 환희에 젖은 어조로 입을 열며 나란히 해마중을 하는 강철호를 바라보았다.

《그렇소. 이 땅에 새 세기가 펼쳐 지고 있소!》

붉은 태양아래 막대골은 몰라 보게 달라 진 자기의 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울망줄망하던 폐기논들은 간데 없고 넓은 규격포전들이 시원스레 펼쳐 진 한가운데로 포전길이는 활주로마냥 뻗어나갔는데 누런 석비레포장길은 마치 짧아진 대지에 수여된 황금띠처럼 눈앞에 안겨 왔다. 이런것을 두고 천지개벽이라고 하는가. 아, 이제 우리의 래일은 얼마나 밝고 아름다울것이나.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량만과 희열에 차넘칠것이나....

사람들은 남이 해놓은 일을 구경하듯 감동에 젖은 눈길로 대지를 굽어 보다가 약속이나 한듯

말없이 강철호의 불도젤주위에 모여 들었다. 비  
록 입고 있는 옷들은 수수하고 흙이 묻은 작업복  
차림이지만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환희로 빛나  
고 있었다. 사람들은 숨막힌 분위기에 싸여 삼가  
웃짓을 여미고 멀리 평양하늘을 우려했다.

그것은 새해와 더불어 새롭게 태어난 드넓은  
대지에서 휘황한 미래를 꽃 피우려는 이 땅의 주  
인들이 영원한 청춘대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드리는 감사의 인사였다.

답시

## 소탈한 《친구》

남철훈

여기는  
강성대국건설의 불바람 이는  
수력발전소건설장  
오늘도 도우러 나온 지원자들 많아  
아침부터 언제타입장은 흥성이는데  
물 낚은 작업복차림의 젊은이 하나  
일손이 껌싸서 눈길을 끌었네

혼합물 다지는 그 솜씨 하도 능란해  
건설자들 귀속말로 소근거렸네  
-어데서 지원 나온 기능공일까?  
타입공 째째 먹게 해대는걸...

땀 들이는 건설장의 짙은 실참에  
그 젊은이는 타입공들속에 끼여 앉더니  
꽃밭에도 담배를 권하는 푸쩍이 좋아  
어느새 허물 없는 말동무 되었네

발전소를 빨리 세워  
전기가 뽕뽕 나와야  
강성대국건설도 앞당길수 있다며  
당보에 실린 사설내용  
구수하게 엮어 가는 말주변도 좋아  
또 한번 타입공들 혀를 찼다네

어데서 지원 나왔나 물어 보며는  
그 대답은 웃음으로 넘겨 버리고  
그 젊은이 엉뚱하게 비쳐 보는 말  
-휘틀우에 발판을 건너 지르고  
자동차가 혼합물을 직접  
쏟아 넣으면 좋겠는데...

-거 정말 멋진 생각인데!  
속도전엔 그 방법이 제격이야  
이 친구 꽤찮아, 통이 크단 말이야  
아예 우리 건설장에 눌러 앉지 뭐

타입공들 《친구》의 잔등을 툭툭 치며  
롱담 절반, 진담 절반에 웃음꽃 피웠네

순식간에 언제휘틀우엔 발판이 깔리고  
자동차들 들이닥쳐 혼합물을 쏟아 붓는데  
현장방송 듣고 달려 온 지배인에게  
통이 큰 《혁신자》를 타입공들 소개했네

-저기 언제우에서 붉은 신호기 들고  
자동차를 안내하는 저 동무가 바로...  
순간 지배인은 너무도 뜻밖이어서  
그 자리에 못 박힌듯 굳어 졌네  
-아니 새로 온 당비서동무가 벌써?!

-네?! 당비서동지라구요?  
아뿔싸, 큰 실수를 했군  
타입공들 제 이마를 치며 중얼거렸네  
-그렇게도 틀이 없고 소탈하니  
당비서인줄 알수가 있나  
그 《뉘우침》속에  
새로 온 당일군에 대한  
첫 인상담이 깔려 있었네  
존경과 믿음이 담겨 있었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당비서는 타입공들속에 함께 있었네  
선동과 이신작직으로  
건설자들의 심장을 움직이니  
하루가 다르게 언제는 쑥쑥 높아 갔네  
감탄의 목소리도 높아 갔네

-우리 당비서동지 일본새가  
항일유격대식이어서 좋단 말이야!  
아무렴  
우리 장군님 슬하에서 배운  
일본셀테지

## 제일강산아!

리일섭

### 령이 높은줄 알았더니

여기로구나 박달령 박달령  
구름우에 솟은 아아한 메부리  
굽이굽이 돌고 돌아 아흔아홉굽이  
우리 장군님 넘으신 칠보산 관문령이

어데를 보랴 그 어디에 서보랴  
일만 메부리마다 비낀 사랑과 은정  
칠보산경치의 아름다움에 앞서  
이 가슴 걱정으로 뉘뛰게 하나니

썰어 보는 한떨기 푸른 잎새도  
불어 오는 한줄기 바람결도  
뜨거워 못 잊어 가슴 뜨거워  
그날의 그 사연 끝없이 속삭이는듯...

이렇게 열리고 다져 진것 아니냐  
날마다 웃음 넘친 우리의 밝은 앞길은  
이 땅 높고 험한 길 앞장 서 걸으시는  
장군님 로고의 그 자욱자욱으로

령이 높아 령길이 가파로와  
인민들이 넘나들기 힘들겠다고  
산중턱에 굴을 뚫러 길을 열자고  
오늘도 이 심장에 울려 오는 그 메아리어

오, 박달령 박달령  
오를 땀 네 메부리 그리도 높더니  
올라 서보니 네 령우에 하늘 같은  
우리 장군님 은덕이 펼쳐 저 있구나

### 조약대에 오르며

물자랑 나무자랑 하많은 자랑중에  
바위자랑 으뜸인 동해명승 칠보산

봄날의 안개속에 잠기면 산호바위  
가을날 꽃단풍에 어울리면 불바위

어디서 보면 기묘한 그 모양 다 불가  
어느 때 보면 신비한 그 모습 다 불가

볼수록 천태만상 볼수록 천변만화라  
억만년을 살면 이 아름다움 다 알가

오르면서 볼 땀 깃을 편 새바위  
내리면서 다시 보니 웅크린 곰바위요

서로서로 조화롭고 개개가 떨어 짐 없이  
산천에 빛에 어울려 황홀경 펼친 절승

아침해빛 비칠 땐 구슬 같던 바위  
저녁노을 비끼니 진주바위라

이 땅의 이름 없는 못바위도  
예 갖다 놓으면 명바위 되겠네

### 맛으로도 본다네

내칠보 탐승길에 오르면  
천불봉 만사봉 경치도 멋이지만  
맛으로도 약효로도 이름 높은 송이버섯  
누구나 한번 맛 보고 가시라네

해칠보 백사장에 나가면  
솔섬 달문 경치도 절경이지만  
어장마다 펄펄 뛰는 생선  
누구나 한번 들어 보고 가시라네

어델 가나 풍성한 산해진미  
 식탁마다 넘치는 칠보산 향취  
 그 맛에 더욱 정드는 산천  
 그 맛에 더욱 살고 싶은 고장

금강산구경도 식후라 했거늘  
 이 아니 맛 보고 칠보산을 보았다 하랴

장군님 가꾸고 빛내시는 인민의 명승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으뜸이라

칠보처럼 마음씨 곱고 아름다운  
 칠보산사람들과 함께  
 눈으로도 다 볼수 없던 명승의 경치  
 어허- 맛으로 한가득 안아 봄이어

## 쌀더미에 반해 쌀향기에 취해

천섬을 쌓았나  
 만섬을 쌓았나  
 층층 층암이 쌀가마니런듯  
 하늘가에 치솟은 칠보산의 로적봉

불수록 흐뭇해 불수록 마음 든든해  
 천리방선에 찢어 보낼 쌀더미더냐  
 내 나라 온 겨레 모여 앉을  
 통일잔치 큰 상에 올릴 그 몫이라더냐

기쁨이 천섬이면 자량은 만섬이라  
 용해공총각들 터치는 환희도 층층  
 탄부도시처녀들 날리는 웃음발도 섬섬  
 모두모두 덧쌓아 칠보산의 제일봉

네 쌀더미에 반해  
 네 쌀향기에 취해  
 날아 가던 학들도 바위로 굳어 졌나  
 이름 없는 못바위도 풍년할아버지 됐네

## 제일강산아!

천불봉을 비치는 찬란한 아침해빛  
 골에 서린 안개를 걷어 낼 때  
 맑은 자태와 부드러운 곡선미를 드러내며  
 수집은듯 일어 서는 승선대의 바위바위

월락봉에 솟아 오른 둥근 달빛  
 산악을 덮은 어둠을 밀어 낼 때  
 깎아 지른 의지와 장엄한 위용 펼쳐며  
 천하를 굽어 보는 만물상의 바위바위

멋이로다 장관이로다  
 봉이마다 드러내는 찬연한 미  
 산악마다 솟구치는 역세인 기상  
 내가 반했던가 네가 홀렸던가 갈 길도 잊어...

오, 누가 무정함을 목석에 비꼰더냐  
 어느 이름 모를 바위라도 말이 통해

천만년 마음 더놓고 살고 싶은 산천  
 뉘으로 매혹되는 명승의 칠보산이어

네 력사가 깊어 수수천년  
 어느 시대 어느 때 오늘처럼  
 민족의 자랑으로 이름 떨친적 있었더냐  
 인민의 명산으로 빛을 뽐은적 있었더냐

웃음 넘친 한줄기 탐승길에도  
 태양의 그 미소 어리어 오고  
 기묘한 하나의 바위에도  
 위인의 그 예지가 빛발치는 땅

그래서 더더욱 반하고 끌리는 산천  
 정녕 못 버려 죽어도 못 버려  
 그 품에 하나의 바위로 굳어 진대도  
 정으로 뜻으로 얹혀 질 나의 조국 제일강산아!

# 매표구

저자 모신

역자 정운

## 1

지난해 3월 취재임무를 마친 나는 본사로 돌아 오기 위해 열차에 올랐다.

차칸이 복잡했지만 다행히도 인차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내가 앉은 맞은편 자리에서 첫눈에도 농사꾼티가 나는 두 중년사나이가 무슨 말인지 주고 받고 있었다. 잠자코 앉아서 듣자 하니 서안역에서 내린 다음 로현까지 가는 장거리빠스가 있다가니 없다가니 하는 이야기였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후 3시에 빠스가 있어요.》

차창쪽에서 맑고 청신한 목소리가 분명 그들을 향해 날아 왔다. 목소리의 주인은 그리 크지 않은 키에 스물네댓 나보이는 소박한 차림의 단발 머리처녀였다. 줄곧 책에 얼굴을 묻은채 조용히 앉아있다가니 여직껏 그 처녀에게 주의를 돌린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자신 있게 한 말이어서 대번에 눈길을 모은 그에게 나이가 지숙하고 점잖아 보이는 사람이 물었다.

《혹시 요현쪽으로 가는 장거리빠스는 없소?》

《있어요.》 처녀가 제격 대답했다.

《정각 4시에 떠납니다.》

《좀 더 빠른건 없소?》

《있긴 한데...》 처녀가 잠간 망설였다. 《아마 그 빠스 타긴 어려울거예요.》

《몇시에 떠나게?》

《1시예요.》 대답은 했으나 그는 뭔가 생각하다가 다시 다음 말을 덧붙였다.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열차가 서안에 멎는 시간은 12시 37분입니다. 제가 략도를 그려 드릴테니 이제 서안에서 내리면 역앞쪽으로 가세요. 조금 나가느라면 8번 빠스정류소가 있을거예요. 거기서 빠스를 타면 장거리빠스역까지 갑니다. 서두르면 탈수 있을거예요.》

점잖은 사람이 략도를 받으며 말했다.

《고맙소. 처녀동무, 그래 동문 늘 장거리빠스를 타군 하오?》

《아니.》 처녀가 머리를 가로 저었다. 《타지 않습니다.》

《그럼... 집이 서안에 있소?》

그가 역시 도리질을 했다.

점잖은 사람이 이상한듯 처녀를 쳐다보았다.

《그럼 서안에 자주 다니는 모양이지?》

《가긴 했지만 한두번밖에 안돼요.》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자연히 승객들의 주의를 끌었다. 누군가 궁금했던지 물었다. 《그런데 동문 어떻게 서안사정을 그리도 잘 아는가요?》

《...》

무엇이 주저되는지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못했다. 하지만 인차 《그저...좀 알고 있을뿐이에요.》라고 간단히 대답하고는 다시 책을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확실히 그 처녀의 거동은 승객들의 호기심을 자아냈다. 그리하여 나도 은근히 그가 다시 입을 벌리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워낙 말하기 싫어 하는 성미인지 그는 더이상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반시간쯤 지나서 처녀는 열차에서 내렸다.

본사로 돌아 온후 며칠 지난 어느 날 철도국에서는 저녁에 자기네 부문 일꾼들과 로동자들의 기술발표회가 진행되는데 보도해 주었으면 하는 전화를 걸어 왔다. 그에 대한 취재임무를 받은 나와 석동무가 부랴부랴 떠나느라고 했지만 우리가 현지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발표회가 막을 올린 뒤였다.

사람들이 짝 차 있는 회관안의 여기저기를 두루 살피면서 겨우 자리를 찾아 앉은 우리는 인차 발표자들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발표자들은 대체로 머리가 희숙한 오랜 철도공들이었는데 서론 남짓해 보이는 사람도 간혹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발표자가 연단에 나섰다. 그를 보는 순간 내 눈이 대번에 커졌다. 뜻밖에도 열차에서 만났던 그 처녀가 눈에 띄었던것이다.

사회자가 어느 역의 매표원으로 근무하는 처녀는 전국각지의 중요역들까지의 거리와 차표가격들에 정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가상적인 손님자격으로 객석에서 한 청년이 무대에 올랐다. 그가 제법 러객다운 무표정한 낯빛을 일부러 지으며 처녀에게 물었다.

《동무네 역에서 은천역까지의 거리는 얼마며 차표값은 얼마가요?》

그 말이 끝나기 바쁘게 처녀가 얼른 대답했다.

《그곳까지는 1,460km이고 차표값은 25원 80전이에요.》

청년이 놀라와 하는 기색을 지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는 전국철길략도를 보며 다시 물었다.

《소주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1,900km 이며 차비는 29원 30전이에요.》

폭우가 쏟아 질 때처럼 요란한 박수가 터졌다.

매표부문에서 오래도록 근무해 왔다는 나이 지숙한 늙은이가 흥미가 동한듯 두눈을 습벅이며 자리에서 일어 섰다.

《큰 역들은 그런데 작은 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자처럼 할수 있을까?》

《잘하지는 못합니다.》 처녀가 얼굴을 살짝 붉히며 겸손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응하선의 서하구까지는 얼마요?》

《1,682Km 이고 차표값은 28원 30전입니다.》

《령고선의 재가림까지는?》

《1,100Km 에 23원 60전이에요.》

늙은이가 더 이상 묻지 않고 만족스러운듯 천천히 머리를 끄덕였다.

《동문 이름이 뭐요?》

《한옥란입니다.》

《언제부터 매표원일을 하나?》

《3년 됐어요.》

《3년이라구?!》

두눈이 휘둥그래지며 늙은이가 관중들을 향해 돌아 서서 두손을 높이 쳐들었다.

《대단하오! 정말 대단해! 평생토록 매표부문에서 일해 오지만 저런 동무는 처음 보외다!》

미처 박수가 터지기전에 사회자가 또다시 큰소리로 말했다.

《한옥란동무는 우리 국산하 역들에서 열차들이 도착하는 시간과 출발하는 시간까지도 정통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에 대해 들어 봅시다!》

열관적인 박수소리가 려이어 울렸다.

그야말로 직업이 다른 우리뿐아니라 오래동안 철도부문에서 종사해 온 사람들까지도 못내 감탄케 하는 보기 드문 처녀였다. 그가 발표한 내용들은 물론 자기 직무상 범위에 속한것들이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단조롭다 아니할수 없는 수자들을 그토록 깊이 정통하리만큼 머리속에 새기느라니 그가 기울인 노력은 그 얼마였겠는가! 과연 그가 어떻게 그처럼 환히 기억할수 있었을까? 혹시 그가 누구도 견줄수 없는 천재적인 기억력을 소유한것은 아닌가?...하다면 서안시에서 운영되는 장거리버스들과는 또 무슨 련관이 있는것인가?

나의 머리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려이어 꼬리를 물었다. 본사에 돌아 오자바람에 책임주필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우리는 약 보름가량 지난후 다시 그 처녀를 찾아 갔다.

나와 석동무를 반갑게 맞이한 당위원회 서기가 우리를 매표실로 안내했다. 한창 긴장하게 일하고 있는 매표원들속에서 우리는 인차 낮 익은 한옥란의 얼굴을 가려 볼수 있었다. 능란한 솜씨로

수관알을 튕기다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알아듣기 쉽게 묻고 대답하기를 거듭하면서 가끔 손님들에게 뭔가 적은 마분지장을 보이기도 하고 알아듣기 어려운 남방방언으로 짹막하게 이야기를 주고 받기도 하는 그의 일처리솜씨는 몹시도 능란했다.

1시간가량 기다리는데 그가 마침 매표구문을 달았다. 우리가 기차라는것을 알자 그는 대뜸 어색해 했다. 신문에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우리가 여러번 곱씹어 말하면서 거듭 재촉해서야 그는 별수 없다는듯 호- 하고 긴 숨을 조심히 내쉬고는 비로소 이야기를 시작했다.

...난 1974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답니다. 모두들 열차매표원이 된 날 두고 부러워들 했지만 나는 사실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많은 돈을 다루어야 하는 일이 어찌지 계름직했으니까요. 그러나 어찌됐나요. 일단 배치는 받았으니 일은 해야 했습니다.

승객이 많고 열차가 복잡한 우리 역 매표소에서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신속히 처리하는것이 더없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일이 생소한 나로서는 늘 꾸물거리면서 진종일 매표소앞에 늘어 선 려객들과 일일이 대상하느라 참말로 입술이 다 닳아 빠질 지경이었어요. 그건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려행상식이 없는 손님들과 맞다들 때면 답답하기 그지 없었어요. 글썽 《급행은 작은 역에서 서지 않아요.》 라고 하면 《기차가 서지 않는 정거장도 있단말이요?》 라고 하면서 제편에서 짜증을 내니까요. 언젠가 한번은 83열차 표를 산 손님이 고성기에서 울리는 83열차가 19시까지 늦어 졌다는 말을 듣고는 다시 와서 물려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1시간쯤 지나면 열차가 오기때문에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더니 대뜸 성이 나서 《동문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왜 사람을 속이는가 말이지?! 방충에서 방금 19시간 늦어진다고 하지 않았소?》 라고 하더군요. 이러루한 일들은 씩없이 꼬리를 물었답니다. 점차 짜증만 나면서 성격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거칠어 졌어요. 나의 신경질적인 정신상태는 인차 손님들에 대한 봉사태도에 그대로 반영되었어요. 얼마 안있어 그것은 습관화되기 시작했으니 난 전혀 감촉하지 못했답니다.

언젠가 겨울날이었는데 중년나이쯤 되어 보이는 한 손님이 54열차가 화현역에서 서는가고 묻더군요. 그런데 내가 한 말을 잘못 들었는지 그가 《뭐라구요?》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다시한번 말해주었는데 《뭐라구요?》 하고 또 묻지 않겠어요. 아무리 말해도 《뭐라구요?》 라고만 하니 대뜸 짜증이 나더군요. 그래서 《월 자꾸 뭐라구요만 곱씹어요, 옆으로 비켜 서세요!》 하고 쏘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들었는지 말았는지 알뜰한 표정을 짓고 있던 그가 다시 돈을 들여 보내지 않겠나요.

《화현까지 가는 차표를 주시오.》

그만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더군요. 오히려 제편에서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를 잠깐 바라보던 난 머리를 기웃하며 《뭐라구요?》 하고 한마디 했어요.

《화현차표 말이요.》

《뭐라구요?》

줄을 서고 있던 손님들이 와-하고 웃었어요. 그제서야 영문을 알아 차렸는지 그가 얼굴을 붉히더군요.

《이건 무슨 봉사태도요?!》

《무슨 봉사태도? 흥!》 나의 입에서는 신경질이 서린 목소리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요, 아주 좋은 태도지요! 그런데 동문 <뭐라구요>란 말을 몇번이나 해요. 아직까지 살면서 그 말밖에 못 배웠어요? 내가 동무 본을 따서 말하니 단 두 번째만에 성을 내는 주제에……》

난 그만 매표구문을 광하고 달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한 말이지만 그때 정말이지 억울하게만 느껴 지더군요. 사흘도 못되어 난 또 사천으로 가는 한 손님과도 다투었습니다. 차표를 사겠다며 그 사람이 매표구로 들어 민 큰 돈이 말썽을 일으켰던거지요. 난 잔돈을 바꾸어 오라거나 그는 못 가겠다거나 하면서 말이예요. 물론 그때도 난 표판매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떠들었지요. 그는 눈을 부릅뜬채 날 《더러운 계집애》라고 욕을 했고 난 또 나대로 《사천 얼뜨기》라고 손님을 모욕했지요.

다음날은 설명절이었답니다. 로동무가 우리 집에 오기로 약속된 날이었지요. 참 로동무가 누군지 모르시겠군요. 로병양이라구 기관구에서 일하는 조수예요. 그때 아마 내가 그와 사귀지 반년은 되었을거예요. 그런데 난 그만 설날에 그가 온다는걸 알리지 못했답니다.

그날 아침 일찌감치 일어 난 나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 부끄럽기도 했지만 로동무가 온다는걸 이야기했어요. 했더니 어머니가 왜 미리감치 알리지 않았는가고 질책하더군요. 느지막해서 인상이 정력적인 로동무가 오자 어머니 너무 기뻐 고기를 썰다, 쌀을 인다 하면서 부산을 피웠답니다.

그런데 글썽 간장이 떨어 지지 않았겠나요. 그래서 내가 한달음에 상점으로 달려 갔습니다. 당장 써야겠기에 급해 나더군요. 한데 글썽 판매원이란 녀자가 누군지 아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지 않았나요. 한참이나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기다리다 못해 별수없이 《판매원동무, 간장 좀 사자요!》 하고 소리쳤

어요. 했는데도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다시 제 말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판매원동무, 바빠서 그러는데 빨리 간장을 좀…》 하고 말도 미처 못 끝냈는데 그가 돌아 서더군요. 하지만 그의 얼굴표정은 곱지 못했습니다.

《병뚜껑도 열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간장을 담겠어요?》

그의 말에는 분명 생트집 같은것이 섞인것으로 느껴 저 나도 가만 있지 않았어요.

《판매원동문 왜 그렇게 신경질을 부려요. 동무와 다투려고 온것도 아닌데…》

《뭐 다투러 온게 아니라구?》

《그래요, 한데 동문 봉사태도가 왜 이렇게…》

《뭐, 봉사태도? 흥! 동무에게서 배운거지요.》

《뭐…뭐라구요?…》

너무나도 분했으나 난 억이 막혀 더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인차 마음을 다잡은 나는 상점이 터져 나갈만큼 목청껏 고아 댔답니다.

정월초 이튿날 낮근무를 설 때 난 매표실에 함께 있는 동무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 대신해서 모두들 그 판매원을 욕했어요. 한참 그러고 있는데 퇴서기동지가 매표실안에 들어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도 하소연했지요.

내 말을 마지막까지 듣고 난 서기동지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옥란동무가 그런 봉사태도에 대하여 본격해 하는건 매우 좋은 일이라고 보오.

동무나 그 판매원은 모두가 봉사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겠소. 그러니 이번 일을 거울로 삼고 앞으로 사업과정에 다른 사람보다 저자신을 늘 비추어 보는것이 좋을것 같구만.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읽어 보오.》라고 하며 주머니에서 편지 한통을 꺼내주더군요. 내가 받아 든 편지는 로양강철공장에서 일한다는 한 로동자가 쓴 것이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올해 3월 초에 저의 안해가 해산을 해야했기에 우린 전보를 쳐서 어머니가 로양에 오도록 했습니다. 이틀후에는 어머니가 떠난다는 전보도 받았구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도록 어머니 오시지 못했습니다. 이제나저제나 하며 또 한주일을 지나 보냈는데도 역시 종무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보를 쳤더니 이제 도착해도 몇번은 더 했겠는데 무슨 소리냐는 회답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것일가?

후에 알고 보니 실은 이렇게 되었답니다. 외지에 다녀 본적이 없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저의 동생이 《로양》이라는 글을 종이에 써서 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차표를 떼러 갔을 때 어머니 매표원에게 《로양》이 아니라 《루양》이라고 말한것 같습니다. 늑은이라 발음이 정확치 않아서였겠지요. 그러자 2호매표구에 있던 짧은 량태머

리 매표원처녀가 두말 않고 차표를 떼준 모양입니다. 문득 종이생각이 난 어머니 인차 그것을 꺼내들어 매표원처녀에게 보이려고 했지요.

그런데 글썽 그 찰나에 매표구문이 팡 하고 닫기더랍니다. 여러번 두드렸으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하는수없이 밖으로 나온 어머니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차표를 보였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는 사람마다 《루양》이라고 하기에 마음 놓고 렬차에 오른 모양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혀 생소한 루양역에서 내린 어머니는 하루종일 없는 아들집을 찾아 헤매다가 저녁무렵에야 비로소 왕청 같은 곳에 잘못 왔다는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위낙 고혈압병이 있는 어머니는 그만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실려 갔을 때에는 벌써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렀구요. 그때부터 열흘 남짓이 깨어 나지 못했으니까요. 후에 병원에서는 병위급전보를 보내왔더군요. 그제서야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고 우리는 황망히 루양으로 갔던겁니다.

어머니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받은 고통은 컸습니다. 물론 생각되는것도 많았구요. 저의 경우를 놓고 보아도 지금껏 말은 일을 되는대로 하고 책임을 지는 립장에서 하지 않은 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립장을 가져야 하는가를 똑똑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야 무슨 일이든지 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일이라 할수 있지요. 실지로 우리의 모든 일거일동이 근로자들의 리익과 얼마나 밀접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련관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매표원동무에 대하여 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도 모르며 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난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요즈음 이런 현상이 더 빈번해졌을까요? 무엇때문에 지난 날에는 훌륭하게 인정되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나쁜것에 그리도 쉽게 오염될까요? 이런 여러가지 물음들을 제기하느라 참말로 생각이 많아 집니다. 난 간부동지들이 그 매표원동무를 너무 심하게 비판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가능하다면 그 동무에게 내가 쓴 이 편지를 보도록 하여 그자신이 인민적인 매표원의 책임에 대하여 얼마간이나마 느끼게 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겠습니다...

눈앞이 흐려 와 난 편지를 마지막까지 다 읽지 못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이 험한 말로 날 마구 욕했다 해도 내 가슴이 그렇

게까지 쓰러지는 않았을거예요. 그는 책임을 묻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날 위해 주었고 날 정신차리도록 해주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느낀바지만 그는 참말로 학식이 있고 수양이 있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난... 난 도대체 뭐였겠어요!

두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난 《서기동지, 제가...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심에 넘쳐 말했답니다. 그러는 날 보며 서기동지가 다시 《옥란동문 그래 어떤 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오?》라고 물었어요.

《손님들을 불손하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또?》

《...》

《옥란동무!》 서기동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틀리면 반박해도 좋습니다. 내 보기엔 동무에게서 가장 중요한건 매표사업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것이라고 생각하오. 물론 아무리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라고 해도 혼자서 많은 손님들을 대상하느라 시끄러울것만은 사실이지. 하지만 우리가 늘 대상하는 손님들이란 어떤 사람들이요? 그들중에는 여러해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도 있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때문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자주 시계를 보며 우리의 매표소앞에 줄을 서고 있는거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표 파는 일이란 국가건설이나 인민생활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 아니겠나.》 그가 잠시 동안을 뜸해 나를 찬찬히 바라보다가 다시 하던 말을 계속했어요. 《도시구경 한번 못해 본 산골농민들이 미처 알아 듣지 못하고 동문서답할 때엔 짜증이 날수도 있지.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들은 낡은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기차를 타게 된 사람들이라는걸 생각했어야 하지 않을까. 사실 겉모양은 람루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들의 가슴속엔 우리와 똑같이 기쁨도 슬픔도 있는거요. 그런즉 우리 매표원의 일이란 당과 국가의 혜택이 려객들에게 더잘 미치게 하고 그들의 가슴마다에 나라의 주인된 공지와 자부란 안겨 주는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사업이라고 할수 있소.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망정 그들의 얼굴에 조금이나마 그늘지게 할수 있을까...》

서기동지의 말은 그리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한마디는 나의 가슴속에 무거운 저울추를 매다는것처럼 느껴 졌답니다. 머리를 수그린채 줄곧 듣고 생각을 깊이 하느라 나니 또다시 눈곱이 젖어 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나는 이리 뒤척 저리 뒤

척 하면서 온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날부터 나의 봉사태도는 달라 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대련으로 가는 차표를 사겠다기에 29원을 내라고 하였어요. 그랬으나 돈 낼 녀름은 앓고 손님이 묻더군요.

《얼마라고요?》

난 표값을 다시한번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는 또다시 《얼마요?》라고 하지 않겠나요.

그래서 큰소리로 여러번 곱셈했어요. 그런데도 그의 얼굴표정은 아직 알아 듣지 못했다는것이 확연했습니다.

어느때 같으면 화가 12번은 더 동했겠으나 난 이미 마음 먹은바도 있어 인내성 있게 몇번 더 소리쳤지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 난 나중에 표값을 종이에 적은 다음 그에게 내보였답니다. 그래서야 손님은 돈을 내놓았구요.

그런데 나에게서 표를 분명 받았는데도 그는 무엇때문인지 매표구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또 있어요?》

내가 의아해 하자 그가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처녀동무, 정말 고맙소! 귀를 앓다나니 잘 듣지 못해서 내가 그만...모두들 날 보고 화를 내는데 동문...정말 고맙소!》

연신 고맙다며 그 사람은 큼직하고 빨간 사과 한알을 꺼내서 나에게 주지 않겠나요. 그러자 옆에서 지켜 보던 손님들모두가 박수를 쳐주었구요.

솔직한 말이지만 그때 나에게서는 매표구앞에 서 있는 손님들이 전에도 없이 돋보이면서 그들이 참말로 더없이 친근하게 느껴 졌어요. 두손으로 그 사과를 받아 들자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 졌구요.

그후부터 난 자신에 대한 요구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사실 따져 놓고 보니 매표구앞으로 오는 고객들중에는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했어요. 손님들이 서 있는 매표구밖에도 나가봤구요. 그러느라니 매표실안에서는 뚜렷한 말들이 밖에서는 희미하게 들린다는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나의 가슴속으로는 여직껏 많은 고객들이 말을 똑똑히 못 들었겠는데 오히려 내편에서 그들에게 신경을 부렸으니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못 견디게 파고 들었어요. 줄곧 생각하고 또 생각던 끝에 난 《안양, 난양》, 《상반, 항반》, 《서안, 수안》 등 헛갈리기 쉽겠다고 여겨 지는 역 이름들을 마분지에 깨끗이 써서 내보이군 했어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오는 손님들의 말씨가 다르기때문에 여러 지방방언들을 익히기 위해서도 노력했어요. 매표원 주동무가 많이 도와 주었습니다.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매우 열정적인

동무지요. 말재간이 좋은 그는 문예선전대경력도 있어 상해말이나 광둥말들에 정통하고 있었어요.

그는 매일 날 가르쳤어요. 또한 나는 잠시간마다 전국철도역분포도를 그리고 중요역들까지의 거리와 표값을 적어 놓고는 그것들을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도 그리고 출퇴근 버스칸에 앉아서도 나는 줄곧 외우는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답니다. 이전에는 로동무와 함께 영화 보러도 가고 위수강가에 가서 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는 로동무의 도움을 받으며 암기했어요. 그는 묻고 나는 대답하면서 말이에요. 한동안 줄곧 그러는 날 보고 어머니는 《너 정신 나가지 않았냐?! 실 때야 조금이라두 쉬어야지. 무슨 km 요 뭐요 하면서 밤낮 중 녀름 외우듯 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렇게 석달쯤 지나니 일이 험해 지는것이 알려더군요. 그래서 년말까지 난 단 한번의 실수도 없이 20만장이나 되는 표를 팔았답니다. 어느 날 서기동지가 편지를 한통 가지고 오셨어요.

《옥란동무에게 보내온거요!》

속이 두근거리더군요. 내가 또 무슨 일을 저질렀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펼쳐 들고 보는 순간 내 눈이 의심되었어요. 뜻밖에도 그건 감사편지였으니까요. 썩 오래전에 보내온것이었는데 서기동지가 일부러 뒤늦게야 내놓은것 같더군요. 그날 서기동진 얼마나 기뻐 하셨는지 몰라요. 《이 편지 쓴 사람은 옥란동무를 두고 <컴퓨터>라고 올리켰더군. 평소애 실수가 많았던 동무가 역이름들과 표가격들을 정통하여 <컴퓨터>로 까지 알려 졌으니 얼마나 좋소! 여기엔 뭔가 철학적인것이 있단 말이요! 하하하...》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나도 웃었어요. 모두들 것처럼 밝은 웃음이 된 내 얼굴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주동무도 날 살짝 건드리고는 까르르 웃었어요...

## 2

처녀가 여기까지 말하고는 잠간 입을 다물었다. 내가 그에게 차물을 따라 주는데 석동무가 《그러는 과정에 혹시 애로되는 점들은 없었소?》하고 물었다. 잠자코 있던 처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1976년 3월엔가 내가 공청단에 입단할 때였습니다. 매표소에서 함께 일하는 공청단원언니가 공청 간부회의에서 나의 입단심의를 한다고 알려 주더군요. 심의에서 제기되는 의견이나 비판들을 하나하나 적어 두었다가 꼭 고치리라 마음 먹은 나는 필기장까지 하나 준비해 가지고 회의에 참가했어요. 하지만 난 얼마 안 있어 아무것도 가려 들을수 없었어요. 처음 발언한 사람이 뜻밖에도 《동문 혹시 매표원일을 그 누구에게 선

심을 쓰기 위해 하는건 아니요?》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동문 쓸데없이 편지질이나 하면서 얻자는것이 뭐요?》, 《안내실이 나 방송실에서 할 일도 다 가로 타고 앉자는 의도는 뭐요?》, 《동문 간부들, 지어는 당일군에게 아침하는 자신에 대해 돌이켜 본적이 있소?》라고 저마끔 한마디씩 하더군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마음이 피로와 그 자리에 더이상 서 있을수 없었어요. 그래서 문밖으로 뛰쳐나간 나는 아무것도 가려 볼 경황도 없이 매표실로 가서 역이름들을 정성껏 써넣은 마분지장을 책 집어던졌어요. 눈앞이 흐려 졌어요. 인민을 위해 복무하려고 애쓴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그건 모두 개인감정이고 억측이야. 난 잘못이 없어. 정말 없단 말이야. ...런이어 겹쳐 지는 이런 생각에만 움해 있는데 누군가 매표실에 들어 왔어요. 퇴서기동지가 오셨던거예요. 그를 보는 순간 눈언저리에 고여 있던 눈물이 나의 두볼을 적시며 건잡을수 없이 흘러 내렸어요. 난 가슴을 들먹이며 어린애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난 더이상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겠어요. ...다시는... 난 소나 같아요. 낮에도 밤에도 일만 하는...그러나 채찍에 얻어 맞기만 하고...내가 왜 소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내 말을 막지 않고 들으며 서기동진 무슨 생각에 잠긴채 담배만 피우고 제쳤어요. 이윽하여 내가 얼마간 진정되자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옥란동문 혹시 자기가 훌륭한 일을 하기때문에 못사람들의 박수를 받을만 하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요?》

조용하기는 하나 그 말이 어쩐지 귀전을 세계 울리는것 같아 나는 저도 모르게 머리를 쳐들었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잘됐다고 볼수 없는거요!》별로 서두르지 않고 서기동지가 말을 계속했어요. 《모든 일이 그렇게 쉬울것 같으면야 전국의 몇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미전에 벌써 퇴봉이 됐지.》

서기동지가 방금전에 내가 던져 버린 그 마분지를 들고는 거게 묻은 먼지를 닦았어요.

《동문... 이런 어리석은 일도 <소>가 되는것도 원하지 않는단 말이지. 옥란동무,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할테니 들어 보겠소?

해방전에 오직 혁명 하나만을 위해 설산을 넘고 초지를 건느면서 별의별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다 겪은 혁명가가 있었소. 해방후에도 그는 휴식도 향수도 모르고 낮에 밤을 이어 인민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쳤지. 그의 사업은 늘 말할수 없이 바빴더랬소. 그에게는 정녕 낮과 밤이 따로 없었고 춘하추동이 따로 없었소. 그래서

모두들 그분의 사무실 전등은 영원히 꺼질줄 모른다고들 했지. 직위가 높은분이였어. 하지만 그인 늘 소박한 차림을 하고 로동자, 농민들속에 들어 가 그들과 한가마밥을 먹었었다오. 그분의 휴식시간은 너무나도 모자랐소. 그래서 한번은 함께 일하는 일군들이 련명으로 그분이 자기의 몸을 돌보고 휴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벽보를 써붙인적이 다 있었지. 그분은 동지들의 비판을 허심하게 접수한다고 하셨소. 하지만 나이가 많으니 당을 위해 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도 하셨소. 그인 늘 자기는 인민의 소라고 하셨지. 실지로 그는 한평생을 열정적인 인민의 <소>처럼 살아 오셨소. 근면하고 성실하게 로고를 마다하지 않으며 인민을 위해 쟁기를 끌고 밭을 갈고 파종을 하면서 그 길에서 행복을 느끼군 하셨지.

그분이 앓고 있는 병은 중했소. 그이가 앓는 기간 항간에서는 그의 병세와 련관된 수많은 전설들이 전해 졌소. 그것들을 보면 대체로 복잡한 치료과정에 그이의 병이 기적적으로 나아 졌다는 내용들이었소. 그분을 아끼는 인민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했으면 그런 전설까지 생겨 났겠나...》

서기동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흐려 졌어요. 하지만 난 잠자코 듣기만 했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있어서.》 서기동지가 애써 자신을 억제하며 이야기를 마저 했어요. 《그분의 병세는 갈수록 더 엄중해 졌소. 이미 마지막최후시각이 가까와 졌음을 자각한 그인 인민을 위한 일에 더 마음을 쓰셨소. 한마디 말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였으나 그분은 조국과 인민의 래일을 위해 흐릿한 목소리로나마 <인터나쇼날>을 부르셨소. 자신의 병이 그리도 심했으나 그인 의사, 간호원들에게 <난 괜찮으니 다른 환자들을 돌보오.>라고 하셨지... 후에... 후에 그이가 서거하셨다는 소식이 전해 졌을 때 조국의 산과 강과 더불어 전체 중국인민이 통곡했소. 사람들은...그런 분도 세상을 떠나신단 말인가 하고 절규했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꼭 감고 있는 서기동지를 보며 내가 오열을 터뜨렸어요.

《...전 압니다. 총리동지에 대한... 우리의 주는 래동지에 대한 이야기라는걸 말입니다...》

서기동지의 눈에서도 맑은 눈물이 마구 흘러 내렸어요.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채 한동안 다물고 있던 그의 입에서 마치 먼 곳에서 울리는듯한 말소리가 흘러 나왔어요. 《옥란동무, 사실 난 여직껏 30년남짓이 당생활을 해오기는 하지만 총리동지를 생각할 때마다 매번 나라는 인간이 아직도... 입당하려면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요...》

내가 손수건으로 눈물이 얼룩진 얼굴을 닦는데

문이 벌컥 열리면서 《서기동지!》 하는 부름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주동무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서기동지에게로 달려 가 가슴 들먹이는걸 보면 그 역시 문밖에서 죄다 듣고 있었다는것이 확연했어요. 그가 문득 돌아 서며 《언니, 난... 난 꼭 인민에게 충실한 <소>가 될테야요.》라고 절절히 속삭였어요.

우리 둘은 서로 와락 껴안았어요.

...

그후 며칠동안 난 어쩐지 전보다 퍼그나 성찰한듯 한 기분이었어요. 워낙 말하기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나에게는 말이 더 적어 졌어요. 그래서 모두들 내가 변했다고들 했구요. 주동무도 많이 달라 졌어요. 노래도 잘 부르고 웃기도 잘 하던 애 어린 처녀가 늘 새초롬히 앉아 무슨 생각에만 잠겨 있었거든요. 그만큼 서기동지가 들려준 이야기에서 우리가 받은 충격은 컸던거예요. 우리 둘은 소문을 내지 말고 객들에게 대해 더 많이 알려 자기 일에 하루빨리 정통하기 위한 경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객들의 일반적인 요구를 여러모로 따져 보았어요. 그러는 과정에 객들의 특징에 따라 3가지 부류로 갈라볼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매일 대상하는 객들중에는 우선 불리한 시간에 차에서 내리는 손님들이 있고 다음은 계속 리용해야 할 교통수단 때문에 애로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목적지나 류숙할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는 한걸음 더 내디더 우리 역뿐아니라 철도국관하 역들에서 열차들의 도착, 출발시간과 성안의 주요 도시들에서 운영되는 여러 버스들이 떠날 시간을 알아 내어 머리속에 익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표원의 사업범위를 벗어 난것이라고 해도 객들에게 필요한것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나섰답니다.

5.1절날 난 로동무와 함께 그의 집에 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28일에 내가 한창 벽을 마주하고 앉아 열차시간표를 외우고 있는데 그가 불쑥 우리 집에 들어 서지 않았나요. 얼굴이 몹시 그늘져 가지고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로동무?》

했으나 아무 대꾸도 않고 그가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거듭 물어서야 대답하더군요.

《옥란이, 다시는 이따위것들을 수고스럽게 암기하느라고 그러지 마요!》

《건 왜요?》

《아직은 나도 모르겠소.》 어지간히 흥분한듯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뒤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야 할게 아니요. 전번에 입단심의할 때도 그렇고...》

그제서야 난 그의 말뜻을 알아 듣고 정색한 낮빛을 지었어요.

《로동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혹시 동문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예요?》

《그건 생각해서 뭘 하요. 뒤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는거지.》

《그럼 그런 뒤소리들이 정확하다고 봐요?》

《정확하든 안하든 지금 그런걸 론할 경황이 있소?》

화가 동해 크게 소리치는 그를 바라보느라니 난 참말로 피로왔어요.

《로동무, 진정하고 제 말을 좀 들어 봐요.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하는건 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동무도 나때문에 립장이 딱해 진다는것도 말이에요...》

내가 말을 미처 끝내기도전에 그가 벌떡 일어섰어요.

《내 립장이 딱해 진다구?!》 그가 주먹을 불끈 쥐며 계속했어요. 《난 다른 사람들의 말밖에 오를 동무를 그냥 방임해 둘수 없어 그런다지 않소. 그런데 동문...》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만 두고 그가 책 몸을 돌리며 문밖으로 달려 나갔어요.

우리 집 뒤로 멀지 않는 곳에는 넓고 조용한 모래밭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 난 혼자서 그 모래밭을 따라 걸었어요.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마음은 온통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강가에 있는 조약돌을 보니 언젠가 로동무와 함께 강물에 누가 돌을 더 멀리 던지는가를 겨루던 일이 생각났어요. 제방너머에서 자라는 뽕나무아래에서 손님들과 티각태각했던 일을 들려 주던 생각도 말이에요. 그때 로동무는 말없이 웃으며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기분이 상하여 난 더이상 아무것도 보지도 생각지도 않고 걸음만 내짚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뚝 걸음을 멈추고 머리를 들어 보니 동쪽으로 세차게 굽이쳐 흐르는 위수강너머로 연한 구름에 휩싸인 진령산이 휘우듬히 보이고 강물과 하늘이 맞붙은 저 멀리 창공에서 매들이 억센 나래를 편채 날아 예는것이 눈에 띄었어요. 눈앞에 펼쳐 진 아름다운 그 전경은 이상스럽게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가슴을 그 어떤 알지 못할 걱정으로 눌뒀게 했답니다. 난 워낙 그 어떤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성미가 아니였어요. 하지만 그날은 웬일인지 력사, 혁명, 인류의 리상... 여직껏 개념적으로만 인식되던 이러한 술어들이 구체적인 현실로 머리속에 펼쳐 진듯 했어요. 난 한자리에 못 박힌듯 오래도록 서서 눈앞의 전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녕 이 모

든것이 내 조국의 강산이로구나! 바로 저 산과 강과 대지에 총리동지의 시신이 재가 되어 뿌려졌겠지. 인민을 위해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 그인 것처럼 뜨거운 심장을 바쳤다. 하지만 그의 빛나는 정신은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는것이다. 개인재산도 자식도 없이 숭고한 위업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인민과 조국을 위해 자기의 시신마저 바친것이다! 그런데 난 하찮은 개인감정에 사로잡혀 울적해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런 생각이 쉽없이 떠오르면서 가슴속에서는 심한 자책감이 머리를 쳐들기 시작했답니다. 마침내 나는 마음속으로 《안된다! 내가 가는 인민복무와 잇닿아 있는 이 길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 절대로 안되구말구!》 하고 되뇌이며 단숨에 매표실까지 달려 갔어요.

### 3

예전처럼 난 고객들을 위한 일에 열성을 다 했어요. 잠시간이 조금만 생겨도 대합실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찾아 가 힘 자라는것 도와 드리면서 누가 뭐라고 하던 일에만 몰두했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주동무와 함께 서안에 가서 도시락도와 빠스시간표들을 배겨 와서는 시간을 짜내어 그것을 머리속에 익혔어요. 오직 일을 위해서만 애 쓰는 나를 두고 매표실의 동무들모두가 지지를 보였으며 입단심의때 트집을 걸던 사람들마저도 점차 느슨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로동무에 대한 생각도 날 가끔 괴롭혔으나 애 써 억제하며 일에 열중했어요.

7월 중순 어느 날 난 밤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밖에서 비가 내려선지 매표구앞에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8시 30분이 채 못되었을 때였어요. 50살 남짓이 나보이는 농민티가 나는 한사람이 대합실에 불쑥 들어 서서는 다짜고짜 매표구앞까지 다가서서 《동무, 서안으로 가는 차중에서 제일 빠른 차가 몇시에 있소?》 하고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9시 03분 46렬차》 라고 했어요. 지체없이 매표구로 돈을 들어 보냈어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며 함께 따라 온 사람들에게 《언제 밥 먹구 할새가 없어. 차가 인차 들어 오게 뻔하니까.》 라고 하더군요. 그에게 표를 주며 왜 그리 급해 하는가고 내가 물었어요. 그들은 진령산인민공사 직원들이었어요. 그곳에 지원 나온 한 대학생처녀가 농약에 중독되다니니 생명이 위험에 처해서 지금 서안에 후송하리라고 하더군요. 일행이 모두 5명이었는데 어찌나 급하게 달려 왔는지 얼굴은 물론 비물에 화락하니 젖은 그들의 온몸에서는 더운 김이 물씬물씬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매표구를 맡긴 나는 직일에게 말하여 개찰구 쇠를 연 다음 그들이 먼저 홈에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내 비옷을 가져다가 담가우에 누워 있는 사람에게 덮어 주었

어요. 얼굴에 담가에 누운 처녀를 보는 순간 난 깜짝 놀랐어요. 퍼그나 낫 익어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역시 모를 사람이었어요. 46렬차가 구내에 들어 서는 통에 더 생각을 더듬어 볼 겨를이 없었어요. 난 재빨리 달려 가 군땡 몇개를 사가지고 와서 나이가 그중 많아 보이는 사원에게 들려 주었어요. 《아바이, 하루종일 굶었겠는데 차칸에 올라 가서 이거라도 잡수세요!》

나이 많은 사원이 눈을 습벅이며 빵을 받았어요.

《고맙소 처녀, 우리 진령산공사의 전체 사원들은 영원히 처널 잊지 못할거외다!》

난 너무나도 과분한 그 말을 차마 그대로 받아들일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마세요. 아바이, 오히려 제가 한 처녀를 위해 진종일 비 맞으며 뛰어 다니는 여러분들을 잊지 못하겠는걸요.》 라고 했어요. 그가 다시 뭔가 말하려는데 기적소리가 울리더군요. 바로 그 찰나에 서안에 본적이 없었던 그들이 이제 향방을 몰라 당황해 할텐데 어찌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재빨리 만년필을 꺼내들고 종이에다 락도를 그렸어요. 그리고는 창문으로 그들에게 들어 보내 주었지요. 인차 알겠다는 뜻으로 그들이 머리를 끄덕이는것을 보니 마음이 놓이더군요. 차가 떠났어요. 렬차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어찌된 일인지 뜻밖에도 로동무생각이 나더군요. 그가 만약 내가 외우던 시간표나 락도가 이처럼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도움이 된것을 안다면 결코 오해하지 않았겠는데 하는 생각말이에요. 언제든지 나를 꼭 리해해 줄 로동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가 하는 생각도 이어 졌구요.

그날로부터 1주일쯤 지났을 때였답니다. 뜻밖에도 진령산인민공사 사원 여라문명이 감사편지를 가지고 북과 뽕과리를 두드리며 오지 않았겠나요. 많은 손님들의 박수를 받으며 그 나 많은 사원이 흥분한 목소리로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한옥란동무의 인민복무정신은 마땅히 환영을 받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벽보도 써서 붙였어요. 다음날은 휴식교대여서 난 혼자서 조용히 그 대자보앞으로 다가갔어요. 감사편지와 함께 나란히 붙어 있는 벽보밑에는 여러 사람들이 만년필 또는 원주필로 글들을 써넣었던군요.

《한옥란동무를 따라 배우자!》

《옥란동무는 우리 고객들과 제일 가까운 한집 안식구다!》

《고맙습니다! 동무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산 모범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

기자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난 참말로 그 많은 글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여직껏 살아 오면서 제가 언제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서 분에 넘치는 지지와 평가를 받아 본적이 있었겠어요! 그때 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차며 행복찬가를 가슴깊이 체험했답니다. 난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바다가 마르고 바위가 부식되어 모래가 된다 해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해!》 하고 속삭였어요.

어느덧 8월 말이 되었어요. 하루는 46열차 표를 금방 다 팔았는데 서기동지가 오더니 밖에서 기다리는 손님 두사람을 빨리 가서 만나라고 하더군요. 누굴까 생각하며 난 밖으로 나갔어요. 마주 서고 보니 그들은 다름 아닌 서안으로 후송되었던 대학생처녀와 그의 아버지되는분이 아니겠나요. 두 부녀는 날 몹시도 반겼어요. 처녀의 아버지가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지요.

《대표원동무에게 뭐라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만. 동무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림해가 이미 목숨을 잃었을거요...》

《아버님, 너무 이러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한 것이 있다고요. 감사야 마땅히 그 사원들에게 드려야지요.》

《물론 그 말은 옳아요.》 림해가 제격 끼여 들었어요. 《의사선생님은 그날 반나절만 늦어 졌다 해도 난 잘못되었을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사원들은 언니가 아니었더라면 그만한 시간을 얻을수 없었을거라고 하더군요.》

그런 말들을 더 듣기가 거북해 난 인차 말을 돌렸어요.

《동무 병은 다 나았어요?》

《그래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가 활기있게 말했어요. 《아버진 차에서 줄곧 이제 역에 내린 다음 먹지도 마시지도 그리고 집에도 가지 말고 먼저 언니한테 감사의 인사부터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참말로 내 손을 꼭 잡은채 줄곧 《언니, 언니.》 하며 림해가 하는 말은 도무지 끝이 있을상싶지 않더군요. 발기우리한 그의 얼굴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이런 동생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에요. 그러다 나니 내 입에서는 불쑥 《동물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어쩐지 낯이 익군요.》 라는 말이 튀어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요?》 림해가 날 찬찬히 뜯어 보았어요.

《처음 만난것 같은데 어데서 봤겠어요.》

그래서 나도 머리를 끄덕이고 말았지요.

이윽고 내가 근무시간이 됐다고 하자 림해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진 먼저 가세요. 난 기다렸다가 언니와 함께 집에 갈테니까요.》

그러지 말라고 했으나 그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더 사양 못한채 난 퇴근 후 그와 함께 가기로 약속하고 대표실로 갔어요.

림해와 함께 그의 집에 이르니 어머니가 문밖

에까지 나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무작정 날 방한가운데까지 잡아 끈 그가 이리저리 정겨운 눈길로 뜯어 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난 정말 이지 안절부절 못하겠더군요.

림해가 어느새 밖으로 나갔다가 인츰 다시 들어왔는데 누군가를 데리고 온것 같았어요. 한데 그 사람은 방에 들어 오지는 않고 문가에서만 머뭇거렸어요. 그래서 림해가 재촉했어요.

《들어 와요. 어서요. 언닐 봐야지요! 오늘은 왜 이래요?》

문밖에 섰던 사람이 잠깐 엉거주춤하더니 마침내 방에 들어 섰어요. 그를 보는 순간 난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줄 아세요? 바로 로동무였어요!

어색해 하는 그의 눈길이 방안 여기저기를 향방없이 허둥거렸어요. 얼굴도 저으기 붉어 졌구요.

《이야기를 듣고 난... 동무라고... 생각했소.》

그 집 식구들모두가 머리를 기웃거렸어요. 림해가 끝내 참지 못하고 《오빠 아는 사이예요?》 하고 물었구요. 했으나 그에는 대꾸 않고 로동무가 아버지에게로 얼굴을 돌렸어요.

《이 동무가 바로... 5.1절날... 우리 집에 온다던...》

그 말이 너무나도 뜻밖인지라 부모님들은 입을 딱 벌렸어요.

《야!》 하고 림해는 환성을 지르며 내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 언니가 형님...》 그가 더 말을 잊지 않고 좋아라 손뼉을 쳤어요. 《알겠어요. 이제 알겠다니까요!》

그 집 식구들모두가 얼마나 기뻐 하던지. 로동무의 어머니 존체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러는 어머닐 보며 아버진 《이렇게 계속 세워 둘 작정이요? 빨리 손님 대접할 생각을 해야지.》 하고 즐거운 목소리로 질책했어요.

그날 밤 난 10시가 넘도록 그 집에 있었어요. 로동무가 날 배려주었어요. 우리 둘은 뺄스를 타지 않고 우리 집까지 줄곧 걸었어요.

로동무가 말했어요.

《옥란이, 정말 미안하오. 이렇게 오래동안... 하지만 난 줄곧 동물 찾아 가려 했댔소. 그런데 어쩐지 두려워서...》

《두렵긴 뭐가요?》

《동무가 용서하지 않을것 같아서 말ियो. 동물 아직 성이 가라앉지 않았을테지... 내가 동무를 찾아 가려 한건... 그저 내가 잘못했다는걸 말하기 위해서였소.》

그가 더 다음 말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로동무-》 하고 부르는 나의 눈에는 뜨거운것이 맺혀 눈앞을 흐려 놓았어요.

그날 밤 난 참말로 기뻐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그의 얼굴에 수집은듯 홍조

가 비졌다.

이야기에 심취된 우리가 그에게 이야기를 계속 하라고 재촉했다. 그랬으나 피곤했던 시계를 들여다 보던 그가 문득 《이걸 어찌나.》라고 하며 몸을 일으켰다. 《보세요, 이야기바람에 하마르면 시간을 어길번 했군요.》

처녀는 더 말을 앓고 매표구쪽으로 급히 갔다. 그만 헤어질수밖에 없었다. 매표구문을 연 그가 미안하다는 뜻인지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는 인차 진중하면서도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꾼 얼굴을 손님들쪽으로 돌렸다....

문가에 이른 나와 석동무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우리 두사람은 그가 앉아 있는 매표

구에서 이윽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 모신(주체40~)중국 강소성 무창시출신 작가이다. 주체68(1979)년에 중국 작가협회에 가입한 그는 주체72(1983)년 3월에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였으며 현재 중국철도문화협회 상무리사, 서안 철도국 문예공작자협회 부주석, 섬서성 작가협회 리사로 등록되어 있다. 주체69(1980)년에 출판된 소설집중에 있는 《매표구》는 주체67(1978)년 전국우수단편소설상을 받았다. 이밖에 단편소설 《눈꽃이 흩날릴 때》, 《려행도중에》, 《지나간 꿈》을 비롯하여 그가 여직껏 발표한 문학작품들은 한자로 70여만자에 이른다.

## 군화끈을 한번 더 조여라

김성근

아들아

그 군화끈을 한번 더 조여라  
지금 네 어머니는 배낭을 쥐고  
네 누이는 꽃다발 안고  
너를 지켜 보며 말없이 서 있다만

이 아버지는 그날을 생각한다  
바로 이 토방돌우에서  
너처럼 군화끈 조이고 집 떠나던 그날을  
총 메고 헤쳐 넘은  
훈련의 그 많은 산발들과 강하들을...

마음도 함께 조여 맨 군화끈  
항시 풀지 않고 걷는 그 길우에서  
총 잡은 병사로 산  
나의 찢어진 군사복무시절을  
너에게 그대로 이어 주고픈 아버지마음

여기 다시 펼쳐 주고 싶구나  
비에 젖을세라  
눈바람에 얼세라  
철 따라 장군님 보내주시던  
사뿐한 운동화며 폭신한 털신  
색 고운 그 사출장화들을  
행복에 줄곧 받들려 온  
네 나서 자라온 그 모든 길들을...

알아야 한다

오늘부터는 보답의 길  
때없이 눈 내리는 산발도 있고  
끝없이 사품치는 강하도 있으리니  
조여야 한다 조여야 한다  
그 신끈처럼  
너를 키워준 사랑앞에 다지는 수호자의 맹세를

네 마음을 조여 매다오  
네 각오를 조여 매다오  
그렇게 떠나가면 훈련의 칼벼랑도  
어린날의 뒤통산처럼 쉽게 날아 넘으리  
잠복의 밤 사나운 눈보라도  
봄날의 바람처럼 따뜻해 지리

신발끈 조여 매듯  
심장의 박동을 조여 매고 떠나가면  
병사의 먼 길에 발탈이 없으리라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한 아들답게  
너도 또 한사람의 리수복이 되리라  
길영조가 되리라

아 포연과 흙먼지에는 얼룩이 저도  
전사의 량심엔 얼룩지지 않은  
그런 병사만이  
다시 고향집뜨락을 밟을수 있으리니  
장군님 결사용위 성스런 복무의 길 떠나는  
아들아  
군화끈을 한번 더 조여라



## 첨예한 극성, 서정의 분출

리윤근

항기 그윽한 주체소설문학의 화원속에 또 한떨기의 류다른 꽃으로 새롭게 망울을 터친 운문소설 《지리산의 메아리》(강일주, 《조선문학》 주체 90년. 4호)는 그 형식이 이채로운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각별한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작품은 오늘도 우리 작가들과 숨결을 같이 하고 인간의 참된 삶의 가치와 문학의 숭고한 념을 심어 주고 있는 종군작가 리동규의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과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감명 깊게 형상하고 있다.

하지만 운문소설 《지리산의 메아리》가 주고 있는 감흥은 여기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예술에서 정서와 감정은 명백하고 열렬하고 예리해야 한다. 정서와 감정이 열렬하고 적극적일수록 작품의 감동은 더욱 커진다.》**

신묘한 계곡을 따라 줄기차게 흐르는 서정의 굴곡미, 비수같이 예리한 극성으로 하여 깊은 인상을 주고 있는 운문소설, 현실을 객관적인 《괘담》한 립장에서가 아니라 인간성격과 생활의 정수으로 대담하게 육박하여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고 생활을 안고 념을 불 태우며 마치도 열정의 시인처럼 천연용암의 분출과도 같이 서정을 뿜어 터치는 여기에 바로 운문소설로서의 이 작품이 주는 형상적매력이 있는것이다.

운문소설의 독특한 인상과 형상적매력을 두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보다 전개된 객관적이야기의 담담한 묘사를 위주로 하는 산문형식의 소설과는 달리 이야기의 극성을 강화하고 여기에 그로부터 체험된 인물의 감정정서를 유기적으로 섬세하게 결합시키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극성은 사건의 첨예성과 그에 대한 인물의 체험의 깊이에서 생겨 난다. 극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인물의 감정선이 있기마련이다. 때문에 아무리 심각한 극적사건이라고 해도 그에 대한 인물의 정서적체험과 행동의 바탕에 깔려 있는 감정상태를 섬세하게 그리지 않고서는 그것을 감동 깊게 형상하기 어렵다.

극적인 이야기와 사건은 인물들의 극적관계에 기초한다.

작품은 종군작가인 리동규와 변절자 리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들의 관계는 리민의 사촌동생이며 리동규의 안해인 리숙을 축매로 하는 연고관계이면서 첨예한 인생관의 대립, 생활철학의 대결관계로 된다. 따라서 그것은 처

음부터 첨예한 극성을 띠게 된다.

작품에서 형상하고 있는바와 같이 리동규를 포함하여 10여명밖에 안되는 지리산유격대비밀장소를 은밀히 포위한 적들은 수백수천의 병력과 비행기까지 띄워 놓고 투항을 강요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다 심각한것은 리민의 뜻밖의 출현이다. 적 《토벌대》의 군견이 되어 가소롭게도 투항을 꾀치고 있는 리민, 한때는 그도 인간이였고 작가였으며 지금 이 시각까지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자기의 사촌처남이라고 볼 때 그것은 리동규에게 있어서 커다란 심리적충격으로 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아, 리민 네가 끝내  
알곳은 운명의 회통은 아닌가

력량상 엄청난 적아의 대결로 오는 극적긴박감, 리동규와 리민의 관계로 구체화되고 심화된 극성, 여기로부터 리동규가 받아 안은 심리적충격은 이와 같이 예리한 정서를 동반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추억의 정서로 변화된다.

리민과는 이미 해방전에 리숙이를 통하여 기구하게 얹혀 졌다.

그에게서 리동규가 처음으로 받은 인상은 문학열도 있고 《타고 난 예리한 관찰력과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영민》한 인간이었다. 《지향》도 컸다.

하지만 그의 《영민성》이나 《지향》은 이미 부르쵸아인생관에 물 젖기 시작했고 부패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변화 많은 시세에 지나치게 관심하면서 《카프》가입에 대한 리동규의 권고를 반대하고 《카프》에 대한 일제의 탄압에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지어 그는 작가도 인간인 까닭에 《사람답게 잘 먹고 입고 쓰고 살고픈》 그 무슨 인간의 《지향》이 있어야 하고 그 《지향》은 원하면 《성취할수 있는 법》이라는 녀두리까지 늘어 놓았다.

아직은 명암이 뚜렷치 않은 리동규였지만 그에게는 리민의 녀두리가 역겹게 들려 왔다. 황금만능으로 악취가 풍기는 이 세상에서 리민의 그 무슨 《지향》을 성취하자면 어차피 량심도 팔고 문학도 서슴없이 내던져야 한다는 의미로밖에 받아들일수 없는 리동규였던것이다.

이것은 현실을 용납할수 없고 본질을 파헤치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량심적인 작가, 자신의 욕구를 뒤전에 놓고 민중의 운명을 놓고 번민하는

열정의 인간 리동규에게 있어서 심각한 심리적이고 충으로 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그렇다면 리민의 재능과 영민성은?  
피가 없는 손끝재간  
갑속에 몸을 숨긴 자의 요술은 아닌지

한쪽에선 《대동단결》을 부르짖고  
한쪽에선 숙된 묘사의 매혹을 제창하고  
리민은 《살기》를 원하고...  
최고의 지성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문단이  
이처럼 안타까울줄이야

보는바와 같이 이것은 단순한 심리묘사가 아니라 리민의 인생관에서의 변질을 예리하게 감각한 리동규의 내면심리정서의 섬세한 묘사이며 최고 지성이 무참히 짓밟히우고 있는 불행한 문단에 대한 서글픔과 울분이다.

작가는 인간과 생활에 대한 인물의 견해와 태도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증오, 의혹과 환멸, 옹호와 규탄 등의 사상감정을 예리하게 보고 그의 생활체험과정을 심리정서적으로 섬세하게 그려 내야 한다.

운문소설에서 이러한 감정정서는 심각한 극적 사건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보다 극성을 심화시켜 나가는데 작용한다. 그리고 심화된 극성은 새로운 감정정서를 양양시키게 된다.

《카프》에 대한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과 3년 6개월간의 옥중생활, 리숙의 동생 옥이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현대문학에 대한 리숙의 신랄한 부정과 비판, 또다시 철창속에서 리민과의 대결로 이어진 극적심화과정은 리동규의 심리정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왔다.

《카프》가 해산된후에도 리동규는 도탄속에 헤매이는 민중을 위해 한몸을 그대로 초불처럼 태우며 투쟁의 피로 붓을 달렸다. 그것은 원고삭제와 압수, 외곡수정과 같은 일제놈들의 온갖 방해와 탄압속에서 벌어진 치열한 대결전이었다.

이 민족적 및 계급적대립과 투쟁은 철창속에서 보다 첨예화된다.

《작가란 정치인도 투사도 아니》며 《고지능 고창조의 두뇌로 인간의 정신을 향상시키면 그만》이라고, 깊은 산속에 들어 가 때를 기다리며 《강호문학》이나 할것을 설교하는 리민, 지어 그는 우리 민중의 투쟁을 《렬등민족의 몸부림》, 《우연히 일어 나는 작은 산불》로 희롱하고 모독하고 나중에는 렴삼섬, 김동인과 같은 인간추물들을 《재능아, 현대인》으로 추어 올리는 추태까지 늘어 놓는다.

여기에서 작품은 리동규의 극적체험을 2중적으로 깊이 파고 들고 있다.

리동규는 이미 현실을 도피한 정신적불구자로, 추악한 변절자로 굴러 떨어진 리민의 궤변을 작가적량심을 가지고 준절히 단죄한다. 하지만

그것이 용납할수 없는 궤변이라 해도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심리적고통을 겪어야 했다.

《우연한 작은 산불》에 지나지 않는 민중의 투쟁, 그것은 부정은 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사실이었고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보면 가슴은 그대로 찢어 발기는듯 하였다.

민중의 투쟁은 연약한 몸부림이었고 거슬린 감정의 자연적인 폭발이었다. 가난을 송두리채 들어내야 한다. 그러자면 동포들모두가 뭉쳐야 하고 결사전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결사전을 이끌어 줄 위인은 과연 누구인가.

허나 이끌어 줄 위인은 어데  
명백한 지도리념은 무엇  
오, 괴롭다 라침판이 없는 배  
등대 없는 대양을 표류하는 배  
배는 이제 더 어디로...  
주먹으로 팡 팡 가슴을 치고  
지끈지끈 깨져라 머리를 벽에 쫓는다

가슴속에 끓고 있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갈망, 등대 없는 대양을 표류하는 배, 라침판이 없는 투쟁의 배, 문단의 배에 올라 위인을 목 메어 찾고 부르는 리동규의 심리적모대김, 그것은 리민과의 대결에서 이중적으로 확대심화된 리동규의 극적체험으로부터 양양된 감정정서의 분출인것이다.

예술적흥미는 비록 작은 사건, 평범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깊이 파고 들어 거기에서 주도적이고 본질적인 감정정서를 드러내는데 있다.

작품은 바로 리민이 뇌까린 한마디의 너두리도 스치지 않고 거기에서 받은 리동규의 심리정서적상태를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 감으로써 쓰디쓴 실패와 우여곡절을 거쳐 위인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는 그의 주도적인 감정정서를 이렇듯 열렬하게 적극적으로 밝혀 내고 있는것이다. 그리하여 작품은 예술적흥미, 정서적매력을 보다 진지하게 돈구어 주고 있다.

극성은 심화될수록 첨예화되고 극성이 첨예화될수록 인물의 감정정서는 더욱 양양되기마련이다.

지리산에서 리동규와 리민의 마지막대결, 여기에서 작품은 곡절 많은 세월속에서 덧쌓이고 가장 첨예화된 극성과 가장 양양되어 분출되는 서정을 보다 인상적으로 매력 있게 융해시키고 있다.

지리산유격대 비밀장소를 향해 적 《토벌대》가 포위환을 좁히고 리동규의 앞으로 허둥버둥 다그치고 있는 리민, 타락과 변절, 인생의 가장 더럽고 추한 모든것이 응결된 작가 아닌 작가, 인간 아닌 인간 리민은 그 무슨 《구원자》나 된듯이 제나름의 《인생철학》을 늘어 놓는다.

《작가도 인간

인간의 최고본능은 자기보존  
예로부터 강자필승에 약자필패요  
강약은 부동이라 했거늘  
저 강대한 힘에 맞선다는것은  
맨발로 바위차기, 부질 없는 만용  
그러니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얼마나 역겨운 녀두리인가. 추물중의 추물인 리민은 썩은 고기덩이보다 못한 자기의 더러운 목숨을 《보존》하는것을 《인간의 최고본능》으로 보고 있다. 하기에 그는 인간의 도리도 량심도 헌신짝 버리듯 쥐어 던지고 민족반역자의 악취를 풍기고 있는것이다.

《…

너는 인간의 최고본능은 자기보존이라 했지  
옳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다시는 망국노로, 노예로 살수 없기에  
자기의 존엄과 자유를 지켜, 조국을 지켜  
이렇게 싸우는것이다  
…》

이것은 그 무슨 《구원의 길》을 가르치려는 리민의 그 역겨운 물결우에 내려 치는 리동규의 서리찬 대답이다.

《자기보존》을 《인간의 최고본능》으로 보기에 량심도 도리도 다 팔고 반역의 길을 걷는 리민, 다시는 망국노로, 노예로 살수 없기에 인간의 자주적존엄을 지켜 성스러운 길을 걷는 리동규.

여기에 바로 주체철학과 부르쵸아인생철학의 심각한 대결이 있으며 첨예한 극성이 있는것이다.

이 심각하고도 첨예한 사상적대결에서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로 우뚝 솟은 리동규, 그의 인간적존엄을 지켜 주고 빛내여 준것은 바로 위대한 어버이품이었고 둘도 없는 어머니조국이였다. 그것은 사랑이였고 믿음이였다.

숙이, 사랑하는 숙이

내 죽더라도 더럽게는, 비굴하게는 살지 않겠소

그것은 그대의 깨끗한 사랑에 대한 배반

나를 낳아 주고 키워 준

어머니조국과 인민에 대한 배반

사랑과 믿음으로

방황하던 이 몸에 재생의 활력을 주시고

참다운 삶의 길을 열어 주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배반

극적으로 가장 첨예한 최후의 순간 혁명전사의 가슴속에서 세차게 끓고 있는 이 격앙된 감정정서, 그것은 단순한 체험의 분출이 아니다. 사랑과 증오, 믿음과 배신, 절망과 환희, 슬픔과 감격, 결사의 감정이 한데 엉켜 뜨겁게 소용돌이치는 리동규의 양양된 심리정서의 진실한 토로이다.

생활에 곡절이 있으면 감정정서에도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길지 않은 인생에 너무도 가혹한 운명을 강요했던 무정한 세월을 거쳐 다시는 망국노로, 노예로 살고 싶지 않아 미군정이 악을 토하는 남조선 땅, 인정의 동토대를 결별하고 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 주고 인간의 자주적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지켜 주고 빛내여 주는 어머니조국,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긴 리동규.

문학도 량심도 육체도 식민지사슬에 묶이었던 이 나라의 문인들을 새 사회건설의 선도자, 고무자로 내세워 주시고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어머님께서 그토록 다심하게 헤아려 주신 아이들의 연필문제를 새 인민정권의 첫 회의의정으로 상론하도록 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인적풍모에 리동규의 감격과 환희는 정녕 끝이 없었다. 대학의 강좌장으로 중앙보도기관의 책임적인 사업도 맡겨 주시고 전선으로 나가는 그를 대견히 여기시여 종군작가의 신분증에 친히 수표까지 하여 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그것은 참으로 잊을수도 버릴수도 없고 온넋과 육체를 깡그리 바쳐서도 보답할수 없는 그토록 숭고하고 위대한것이다.

하기에 리동규는 최후의 순간 평양하늘을 우러러 자기의 마음속심중을 이렇게 삼가 아뢰이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 장군님께 드리는 헌시 한편 쓰지 못한 죄 많은 리동규 장군님의 안녕 길이길이 축수합니다. 아, 장군님!)

그리고는 인생의 마지막 《작품》, 경애하는 장군님의 작가 리동규의 마지막문학 《김일성장군만세!》를 심장으로 터쳤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 삼가 드리는 작가 리동규의 다함 없는 헌시였으며 혁명전사의 참된 삶에 대한 노래였다.

여기에 바로 가장 첨예한 극적체험으로부터 가장 양양된 서정의 폭발이 있고 운문소설로서의 이 작품이 풍기는 깊은 인상과 형상적매력이 있는것이다.

운문소설은 이와 같이 극적으로 첨예한 이야기의 묘사와 여기에서 체험된 인물의 감정정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것과 함께 작가의 주정토로를 밀착시키고 융해시켜야 한다.

극적인 사건에서 체험된 인물의 감정정서는 작가에게도 강렬하게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겪는 극적체험을 그대로 감수하고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며 열정을 불 태우는것이 작가의 사색과 탐구의 과정, 창조적 과정으로 되기때문이다. 소설이 객관적립장에서 객관적론리를 따라 성격과 생활을 그리는 문학이라고 하여 결코 생활에 《맹담》할수 없고 관망만 할수 없는것이다.

여기에 운문소설이 서정과 함께 극성을 예리화할수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있다.

작품에서 형상하고 있는바와 같이 수난 많던 그 세월 불우한 문단을 피눈물로 적시며 겪어 온 리동규의 고통은 참으로 컸다.

언젠가는 《무산자아리랑》을 썼다고 살점을 뜯기우고 또 언젠가는 소년잡지 《별나라》, 《신소년》을 부여안고 무산아동들을 위한 노래를 불렀다며 뼈를 꺾이우던 리동규, 어느 날엔가 사랑한 리숙이 엮은 가슴을 쥐어 뜯으면 동생 리옥의 죽음을 비통하게 알려 오고 《우박》과 《너공》...을 두고 부정과 비판의 화살을 쏘을 때 리동규의 가슴은 얼마나 쓰리고 아팠던가.

그러한 리동규를 뜻 깊은 연회석에서 따뜻이 만나주시고 친히 술잔까지 쥐여 주시며 리숙의 동생 리옥이를 눈물겹게 추억해 주시는 아버지 수령님, 옥이가 좋아 하는 수수지짐 한그릇 안사먹고 언니를 위해 푼전을 남겼다고, 생명보다 책을, 문명을 생각하는 옥이와 같은 조선여성들의 고결한 마음, 제일 행복해야 할 우리 여성들이 왜놈들때문에 숨졌다고, 정말 분한 일이라고 우리 민족이 겪은 만난불행과 슬픔을 다 안으시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오신 자신의 고생보다 인민이 겪은 고생, 작가들의 고통을 먼저 헤아려주시는 인간중의 위대한 인간, 위인중의 위대한 위인이신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리동규의 감격은 또 얼마나 세차게 끓어오르던가.

물노니 문학사에 력사에  
언제 이처럼 위대하고 뜨겁고 다심하신  
하늘이 낸 위인 있었던가  
세상 제일 가는 아버이를 모신  
오, 조선의 거룩한 행복이여!

보는바와 같이 주인공의 가슴속에 차오르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끝 없는 신뢰와 행복과 영광은 이토록 뜨겁고 열렬한것이다. 주인공의 이러한 감정정서는 작가의 서정적분출에 의하여 보다 양양되고 있다.

아니다 우리 주인공이여  
아직은 다 알았다 말하지 말라  
이제 태양의 그 품도 다 알자면  
백년을 천년을 더 살아야 하리  
그이 거룩하심 다 쓰자면  
태양이 잉크되어도 모자라리

우리 주인공은, 아니 작가자신도 아직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그 사랑과 은정이 얼마나 넓고 깊고 위대한것인지를 다는 알수 없는것이다. 주인공과 함께 운명도 숨결도 함께 하여 온 소설가, 하기에 그는 자기의 격동된 감정정서적체험을 이와 같이 토로하고 있는것이다.

다른 문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설은 체험의 문학으로 되어야 한다. 운문소설인 경우 더욱 그렇다. 체험이 없이는 주인공의 감정정서를 그토록 진실하게 격앙시킬수 없고 운문형식의 특성을 훌륭히 살려 낼수 없는것이다.

주인공의 운명변화과정에 대한 작가의 진실한 체험은 리동규의 최후에 대한 가장 양양된 감정정서적으로서 보다 감동적으로 열렬하게 표현

되고있다.

이렇게 우리의 주인공은 최후를 마쳤다  
가장 불우한 인생길에서 눈물도 많았던 사람  
가장 값 높은 생의 행복에 눈물도 많았던 사람  
그 한생의 마지막노래와 문학은  
《김일성장군 만세!》

작가의 서정적으로서는 주인공의 성격과 생활의 본질에 대한 평가로, 주장으로 되어야 한다.

작품에서 형상하고 있는바와 같이 장렬한 최후를 앞둔 주인공의 체험세계에 깊이 들어선 작가의 이 서정적으로서는 곡절은 많았어도 가장 값 있게 산 영웅전사, 생의 마지막작품을 수령승배, 수령결사옹위의 문학으로 빛내인 신념의 작가, 불굴의 작가 리동규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며 주장이다. 그리하여 작품은 주인공에 대한 강한 인상과 깊은 정서적여운을 주고 있는것이다.

운문소설은 운문소설다와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묘사전반을 운문화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음악적인 톨조가 강하고 박력 있는 묘사문이어야 한다.

특히 운문소설의 묘사문은 정서적으로 감수되고 채색된것이어야 하며 분석적이어야 한다. 여기에 또한 운문소설의 형상적매력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인생이야 어찌 흐르던  
자연은 자연대로 자기치장이어서  
벗꽃은 진한 향기 토하고  
산천은 봄날다웁게 자기의 노래를 짓는다  
생활의 여유가 있으면  
지는 해 남기는 저 노을에  
시혼을 엿을수도 있으리

...  
허나 슬프게도...  
감성은 이성보다 앞에 있는것  
굶주린 창자는 설령탕집의 냄새에 끌리고  
구멍 뚫린 빈 주머니는 발길을 잡는다

보는바와 같이 아름답게 변모되는 안온한 자연의 변화에 시혼을 엿을수도 있는 생활의 여유조차 없는 자기의 불우한 처지와 《굶주린 창자》와 《구멍 뚫린 빈주머니》에 비친 감성과 리성의 대조적감정세계는 매우 섬세하고 분석적이다. 그리하여 작품은 서정을 질게 풍기고 있고 형상적으로 매력을 더해 주고 있다.

운문소설에서 박력 있고 톨동적인 묘사는 작품전반의 정서적파동과 서정적굴곡을 주고 있을뿐 아니라 극적정황과 사건의 긴박감을 치밀하게 조성하고 극성을 예리화하는데서도 효과적이다.

극적정황과 사건은 주로 인간의 운명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까닭에 긴장감을 주고 인물들의 심리정서에 다급한 변화들이 있게 된다.

...

악에 반친 놈들  
드디어 공격을 시작했다  
또다시 지리산의 산밭을 흔드는 총성, 폭  
음...

《돌격》에 기세 오른 놈들  
손에 잡힐듯 가까이 왔다

마지막수류탄 거머잡은 빨찌산들  
서로 뜨겁게 포옹한다  
값 있게 살아 온 인생을 축복하고  
값 있는 최후를 약속하며 포옹, 포옹!

최후결사전, 그것은 마지막운명적인 대결로서 주인공은 물론 작가와 독자들에게까지 긴박한 정서를 주고 있다. 《손에 잡힐듯 가까이》 접근한 놈들과의 마지막결사전을 위하여 《마지막수류탄을 거머잡은》 우리 주인공들의 가슴속에서 겪게 되는 긴박한 극적체험, 그로부터 끓고 있는 심리정서는 무엇인가. 그것은 《값 있게 살아 온 인생》의 추억과 값 있게 최후를 빛내여야 할 숭고한 약속이었다. 최후의 그 약속은 자기 수령, 자기 조국과 인민앞에 다지는 혁명전사의 심장속 맹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작품은 운물적인 형식으로 극성을 긴박하게 그리고 예리화하면서 인물들의 변화되는 심리정서세계를 매우 집약적으로, 서정적으로 감동 깊게 묘사하고 있는것이다.

운문소설의 이러한 형상적효과는 이밖에도 작품전반에서 보는바와 같이 반복과 어순전도, 함

축과 비약, 상징 등 보조적수법에 의하여 담보되기도 한다.

작품은 보다 높은 요구를 가지고 볼 때 일정한 정도에서 부족점도 나타내고 있다. 주인공의 과거와 현재를 일대기식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로부터 구성이 어딘가 단순하고 평이한 느낌을 주고 있는것이다. 여기로부터 작품은 극적기대와 흥미를 좀더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파고 들수 있는 여지를 놓치고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이와 함께 운문형식의 특성만을 고려하면서 묘사의 정서적채색과 극적행동성만을 강조하던 나머지 인물들의 구체적인 심리변화과정을 초상묘사를 비롯한 다양한 묘사수단들에 의하여 보다 섬세하게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부족점도 느껴 진다. 이것은 이보다 더 훌륭한 운문소설이 나오기를 바라는 독자로서의 욕망인 동시에 평자의 욕심이다.

운문소설 《지리산의 메아리》는 소설의 형식을 다양하게 개척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대담하게 착상하고 특색 있게 탐구하려는 작가의 진지한 노력과 창작적열정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결실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운문소설창작에서 좋은 경험으로 된다.

소설가들은 새 세기의 요구, 날로 높아 가고 있는 인민대중의 미학정서적요구에 맞게 선군시대와 호흡을 같이 하는 특색 있는 형식의 소설창작에 전심하여야 할것이다.

## 상식

# 21 세기 과학기술전망

최근 어느 한 나라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초하여 《21세기의 과학기술전망》이라는 보고를 발표하였다. 보고에서는 앞으로 100년동안에 인간이 실현할수 있는 과학기술목표들을 열거하였는데 요점은 다음과 같다.

△ 유전자공학기술이 인간의 진화과정을 촉진시킬것이다.

물질체와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의학분야에서는 발병유전자제거수단을 리용하여 병에 쉽게 걸리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인간을 진화시킬것이다.

△ 뇌과학이 더 높이 발전할것이다. 앞으로 뇌과학은 기억을 직접 조종할수 있을 정도로까지 발전할것이다.

△ 인간의 키가 작아 질것이다.

앞으로 인간의 키가 점점 작아져 식량부족과 거주공간이 비좁아 지는 환경에 적응될것이다.

△ 재생의학이 보급되기 시작할것이다.

앞으로 환자의 세포를 리용하여 시험관안에서 클론기관을 배양함으로써 《재생기관》을 널리 리용할것이다.

△ 인체의 기능을 초월하는 보조장치들이 개발될것이다. 앞으로 로봇트기술을 리용하여 사람의 손과 발의 기능을 초월하는 의수와 의족을 연구 제작할것이다.

△ 완전순환사회가 도래할것이다.

앞으로 오물을 원자수준으로 분해한후 다시 합성하는 완전순환기술이 개발될것이다.

△ 새로운 국제적인 전력망이 형성될것이다.

앞으로 상온초전도케블과 시간차이를 리용하여 세계적규모에서 전력을 호상 돌려 쓰게 될것이다.

△ 새로운 지리해체세균이 출현할것이다.

앞으로 지뢰에만 반응하여 그것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특수한 세균이 출현할것이다.

△ 새로운 려행이 류행될것이다.

앞으로는 달과 화성으로의 려행이 흔한 일로 될것이며 깊이가 1,000m 이상인 바다속을 탐험하거나 려행하는것이 크게 인기를 끌것이다.

△ 새로운 재해방지대책이 세워 질것이다.

앞으로는 날씨와 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1시간 간격으로 지진을 예보하게 될것이다.

## 《카프》의 문학운동에 대한 남조선 진보적문학인들의 연구동향

문성철

《카프》의 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에 대한 남조선 문학인들의 연구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기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미자주화, 조국통일기운이 더욱 높아 감에 따라 진보적 문학인들은 지난 시기 학계에서 외곡평가되어 온 《카프》의 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대표적인 문학인단체가 주체75(1986)년에 조직된 《력사문제연구소 문학사연구모임》이다.

이 단체에는 저명한 평론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를 비롯하여 남조선의 여러 대학들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지난 시기 반동적인 어용문학사가들에 의하여 외곡평가되어 온 《카프》의 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실체를 명확히 드러내고 그 문학사적지위를 공정하게 재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의 시종일관하고 진지한 학구적노력으로 주체78(1989)년 4월 첫 문학론문집 《카프문학운동연구》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 논문집에는 《카프》의 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발생과 발전, 해산의 전 과정이 풍부한 역사자료의 안반침속에 여러체계로 나뉘어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었다.

이 논문집이 나오으로써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의 필요성조차 인정 받지 못하고 묻혀있던 《카프》의 존재가 남조선에 알려 지게 되었고 이로 하여 남조선의 해방전 민족문학사부분에서 근본적수정을 가해야 할 필요성과 명분이 서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카프>문학에 대한 평가와 처리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 《카프》의 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에 관하여 연구와 평가를 공정하게 하는것은 현 시대 문학인들의 공동의 임무이고 시대적사명이기도 하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남조선문학인들이 서술한 논문집에는 진보적측면과 함께 제한성도 적지

않다.

우선 진보적이라고 볼수 있는것은 세가지이다.

하나를 남조선문학인들이 《카프》문학운동을 연구하는 목적이 비단 학계에 미결건으로 남아있던 문제를 해명하는 학술적목적만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학계를 지배하는 반공, 반복대결의 의식구조에 파렬구를 내고 통일지향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보려는데 있다.

말하자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에 적으나마 기여하려는 순결한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볼수 있다.

그들은 이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도래하게 될 우리 민족의 통일문학사정립에도 자기 나름으로 기여하려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연구는 온 민족의 찬양을 받아야 할 애국애족적소행이라고 할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지난 시기 《카프》문학운동에 관하여 남조선문학계가 취해 온 부당한 견해와 립장, 외곡된 평가 등이 바로 그들에 의해 비교적 정당하게 분석, 비판, 총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문학사연구모임》문학인들은 지난 시기 반동적 어용문학사가들이 《카프》를 《사회주의문예운동단체》라느니, 《월북작가들이 많이 나온 문예인단체》라느니 하면서 이 조직자체를 부정하고 그 운동이 반일민족해방투쟁에 나름대로 기여한 측면을 평가하려 하지 않을뿐아니라 학술적으로도 《연구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느니, 《반드시 타기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몰아 붙인데 대하여 반공, 반복대결, 분렬고정화정책의 산물로 준렬히 규탄했다.

그리고 여러 대학들에서 몇몇 량심적인 문학인들에 의해 시도되었던 《카프》의 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에 대한 《실증주의적고찰방법》에 대해서도 역사적사실자료들을 수없이 발굴한 진보성과 함께 그것을 개인의 취미본위로 엮어 간 제한성을 지적해 주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토대우에서 연구를 심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긍정면이 있었다.

다음으로 지적해야 할것은 남조선문학인들이 《카프》문학운동연구에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정

한 연구자세와 입장을 견지하려고 애 쓴 것이다.

그들은 기성학계에서 나타난 부정적 견해, 편향들을 시정극복하는 견지에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사실주의적인 연구방법》을 정립하는 진보적면을 보였다.

그들은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에도 포로됨이 없이 역사적 견지에서 당시 《카프》문학운동을 고찰하고 평가하려고 애 썼다.

그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카프》문학운동은 자기의 실체를 비교적 상세하게 드러내게 되었고 이로하여 남조선의 해방전 민족문학사를 보다 풍부히 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력사문제연구소 문학사연구모임》문학인들의 논문집에는 반드시 시정극복되어야 할 제한성들도 있다.

그것은 우선 그들이 연구목적에서 통일지향의 문학연구를 주장하는 진보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카프》문학운동이 학계에서 정당한 평가를 못 받고 묻혀 있는 책임의 일부가 우리 문학계에도 있는 듯이 보는데 있다.

이것은 그들의 세계관적 제한성에서 출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단체 문학인들은 《카프》문학운동이 오랜 세월 정당히 평가 받지 못한 기본원인이 역대 남조선정권의 반공, 반북대결정책에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각도에서 고찰하는 그릇된 면을 보였다.

이것은 그들이 내세우는 통일지향의 연구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마땅히 비판되고 시정극복되어야 할 면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카프》의 문학운동에 대한 그들의 연구에서 지난 시기 남조선문학계에 나타났던 그릇된 견해나 연구방법이 부분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제한성이라고 지적해야 할 것은 해방전 민족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카프》문학운동의 지위에 관하여 그릇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사실이다.

진보적문학인들은 역대 남조선문학계에서 해방전 민족문학사를 리광수의 문학을 중심으로 여러 경향의 문학조류들이 병존해 온듯이 서술해 온 것을 비판하면서 해방전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주도한 세력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한 공산주의세력인것만큼 마땅히 3.1운동이후 문학운동의 중심도 로동계급의 문학에서 찾아야 한다는 긍정적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그 로동계급의 문학의 중심을 《카프》문학운동에서 찾는 리론적오류를 범했다.

《카프》의 프로레타리아문학이 해방전 민족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관해서는 이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완벽한 해명을 주시였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 문학계에서도 과학리론적으로 체계화하여 대답을 준비 있다.

이런 면에서 《카프》의 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의 문학사적지위에 관한 남조선문학인들의 견해는 응당 비판되어야 하며 이런 견지에서 그들의 연구논문집을 비판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카프》의 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을 연구하여 종합한 논문집의 구성내용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그들의 연구논문집은 크게 두체계 프로레타리아문학론의 형성과 전개과정(평론활동부분), 프로레타리아문학작품론(소설, 시문학에 대한 분석), 그밖에 《카프》의 조직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교적 타당한 구성이라고 본다.

그러나 프로레타리아평론활동을 취급한 부분에서 당시의 평론활동을 프로레타리아문학건설에 관한 론의정도로 연구범위를 극한시킨 제한성이 나타났다.

당시 《카프》문학인들의 평론활동을 자료적으로 구분해 보면 마땅히 세 부분 즉 프로레타리아문학론, 이색적인 반동적문예사조들과 기회주의 문예리론, 반동적작품들에 대한 비평론, 프로레타리아영화, 연극, 미술제작을 떠미는 예술론 등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물론 여기서 중심은 프로레타리아문학론이겠지만 그렇다고 비평론과 예술론을 무시할 수도 없다.

이러한 구성에서의 제한성은 반드시 시정극복되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애국애족의 대용단으로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오늘 우리 민족앞에는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각변하는 시대발전의 요구와 높아 가는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에 보조를 맞추어 북과 남의 문학인들은 6.15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오늘의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앞으로 《카프》의 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에 관한 북과 남의 문학인들의 학술교류, 공동연구도 능히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 화산

조청운

## 1

동구밖을 살짝 감돌아 흐르는 강변에서 불어 오는 찬바람은 수수잎새와 콩깍지가 너저분히 널린 길가를 우수수 지나쳐 버린다.

어느새 해는 서산마루너머로 꾸역꾸역 기여 들어 가고 동쪽에서는 어둠이 소리없이 찾아 들었다. 우수수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여기저기 무저놓았던 락엽무지가 구르는 소리가 썩-썩 흘러 가는 강물의 물소리와 조화되는것만 같다.

아나는 벌써 열흘째 동구밖 강변에서 부역에 나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

다 해진 몽당치마자락 아래에서는 가느다란 종아리가 애처롭게 바르르 켜진다.

《어, 추워-》

아나는 앙상한 두어깨를 웅송그리며 길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어느덧 피빛 한줄기 노을마저도 어둠속에서 점차 사그라져 버린다.

아나는 그 마지막여광을 놓치지 않으려는듯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입새에서는 한숨소리가 또다시 새여 나온다.

어머니 없는 자기를 말아 키우며 힘든 일, 굶은 일 마다하지 않던 아버지...

철 따라 고운 짙신도 삼아 주고 이웃집에서 담념이를 해오는 명절음식도 제일 맛 있는것으로 아나에게 골라 주던 아버지였다.

그런데 석달이면 돌아 온다는 부역이 반년으로 늘어 났고 또 열흘이 지나쳐 버렸다.

이제는 산도 강도 마을도, 지어는 길가의 조약돌마저도 모든것이 어둠속에 묻혔다.

그것은 마치도 아나에게 10년을 흘러 보낸 정든 산천이 아니라 낯 설은 곳에 들어 서게 하는 것만 같았고 한가닥 희망마저도 앓아 가는듯 했다.

부역은 일반적으로 봉건국가가 인민들을 각종로동에 동원시키는 강제적의무로동이다.

원래는 농사철이 아닌 2~3개월간 역을 지게 되어 있으니 때로는 바쁜 농사철에도 모든 부역에 강제로 동원되었다.

특히 함경도에서는 채금이 성행하였는데 봉건왕조 건국초기 명나라와 맺은 계약에 따라 막대한 금을 보장하여야만 하였던것이다.

채금을 전문으로 하는 광부가 없었던 이 시기에 이 모든것을 전적으로 농민들이 부담하였다.

동북면(함경도)의 안변, 영흥, 단천은 금의 산지였으며 아나의 아버지가 끌려 나간 1413년 당시 봉건정부는 영흥 한곳에서만도 무려 3,268명의 농민들로 하여금 농사일을 놓고 근 수개월에 걸쳐 금 144량을 캐게 하였던것이다.

비가 오려는지 먹장구름이 온 천지에 그득하게 찼다. 이제는 한치앞도 가려 보기 힘들었다.

아나는 마을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혹시 아버지가 뒤길로 들어 선것은 아닌지...

마음이 조급해 진 아나는 점점 발걸음을 재계 놀렸다. 종주먹을 부르짖고 달리는 아나의 가냘픈 몸이 희미한 등창이 가물거리는 마을의 어둠속으로 빨려 들어 갔다.

좁은 실골목을 요리조리 빠져 집앞에 이른 아나의 얼굴이 샅시에 밝아 졌다.

방에는 희미한 광술불이 켜져 있고 여러사람의 그림자가 우줄거렸다.

《아버지-》

제잡담으로 마당에 뛰여 든 아나는 아버지부터 찾았다.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마을사람들이 우르르 밀려 나온다.

이웃집 아낙이 아나를 품에 안고 울먹인다.

《아나야, 이 일을 어찌면 좋으냐. 네 아버지가...》 빙 둘러 선 아낙네들은 웃고름을 들어 눈을 비볐다. 미소를 채 거두지 못한 아나의 얼굴이 점차 백지장처럼 창백해 졌다.

굳어 진 불편이 실룩거렸고 울통해 진 두눈동자가 뉘을 잃은것처럼 허둥거렸다.

아나는 휘청거리는 다리를 가까스로 가누며 정처없이 걸었다. 전신의 피가 몽땅 말라 버린것만 같았고 무딘 칼로 살점을 발가내는듯 한 아픔이 그를 끝없이 괴롭혔다.

뒤따라 나온 옆집 아낙이 사연을 말해 주었다.

채금터의 막장은 조건이 아주 불비했다.

광부들은 비좁은 구멍으로 기여 들어 가 팽이와 정대로 암반을 까내고는 등짐으로 저 내와야 하였다. 암반을 잘못 건드리면 굴이 무너져 무리죽음이 나게 된다.

아나의 아버지는 채금터에서 암반에 난 커다란 균열을 발견하였다.

감판에게 작업을 그만둘것을 요구하였으나 놈들은 채금기일이 늦어 진다면서 부역군들을 강제로 굴안으로 들이밀었다.

그날 수십여명이 깔려 죽는 참상이 벌어 졌다.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한 부역군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앞장에는 하나의 아버지가 서 있었던 것이다. 반항은 곧 진압되고 하나의 아버지를 비롯한 10여명의 주도자들은 항조죄인(조정에 항거한 죄인)으로 붙잡혀 처형 당하였던 것이다.

아나는 피로왔다.

아나가 아버지의 생과사를 알게 된 것은 그 어린 가슴에 깊숙이 뿌리 박혀 뼈를 깎으며 좀처럼 잊혀 지지 않을 것이다.

때아닌 불행은 그 어린 녀에도 무참히 고통의 굴레를 덧씌우고 아나에게서 인간의 모습을 앗아 가려고 모지름을 썼던 것이다.

그후 아나는 영흥부의 관비로 박히게 되었다.

모진 세과는 아나에게서 아버지들 빼앗았으며 리상과 희망, 지어는 생활의 즐거움마저도 사정 없이 앗아 가버린 것이다.

몇해가 지나 임기가 끝난 영흥부사가 서울로 올라갈 때 아나를 데리고 떠났다.

아나가 구관의 집으로 올라 갈 때 그의 뒤를 따른 것은 《관비 아나. 고 부모 명 부지》(관비 아나. 그의 부모는 죽어서 이름을 알지 못함)이라는 노비문서뿐이었다.

## 2

밤은 자정이 훨씬 넘었다.

땅위에 낮게 내려 앉은 밤하늘에는 한줌 보석을 뿌려 놓은 듯 별들이 반짝인다.

때아닌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서울장안의 차거운 새벽대기를 길게 찢으며 맑게 울린다.

희미한 빛조각을 가까스로 떼어 던지던 조각달이 허연 배를 희번득 드러내고서 검푸른 구름속으로 느물느물 기어 들어 가버린다.

풀잎새로 이슬방울이 떨어 저 내리는 소리가 유난하다. 장안의 침침한 골목으로 작달막한 그림자가 바빠 움직인다.

골목을 벗어나면 삼각산의 산굽이이다.

대낮에도 음침하여 지나다니기가 무서운 곳이다.

종종걸음으로 바빠 걷던 그림자가 발걸음을 멈추고 가쁜 숨만 뿜는다.

희미한 새벽안개를 헤치며 처녀의 가름한 얼굴이 드러났다.

이때 앞쪽에서 인척기가 들리더니 누군가의 우람한 몸집이 앞을 막아 나선다.

처녀는 놀라 굳어 졌다.

할딱거리는 숨소리가 새벽대기의 조화를 깨뜨린다. 상대방이 소리치며 다가왔다. 《아나?!》 굳어 졌던 처녀의 얼굴이 삼시에 맑아 졌다.

《돌이...》

처녀에게로 다가간 돌이는 그의 뜨겁고도 작은

손을 꼭 끌어 잡았다.

일에 부대껴 험상해 진 손이다.

《아니 왜 이리 늦었소?》

돌이의 정찬 목소리를 꿈속같이 듣는 아나의 고운 눈매에 맑은 물기가 그득히 고였다.

자기에게도 의지할 수 있는 굳센 기둥이 있다는 것으로 하여 모진 세과에 부대껴 온 섬약한 처녀의 어린 가슴에 뜨거운 정이 실린 환희가 깃들었던 것이다.

돌이는 아나와 한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몸이다.

세습적인 노비로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다가 고역속에 잔뼈가 굵어 졌다.

철 없는 시절엔 부모에 대한 원망도 해보았고 이 세상이 자기에게 선사한 가혹한 운명을 두고 장탄식도 해보면서 살아 왔었다.

돌이가 점차 세상물정에 눈이 트이게 된 것은 상전이 영흥부사로 부임되어 그 시종으로 따라 갔을 때였다.

상전을 따라 외지로 내려 갔던 돌이는 실로 많은 것을 깨우쳤으며 점차 눈이 트이게 되었다.

돌이는 짐승 아닌 짐승으로 살며 주어 진 운명에 순종하는 한갓 종이 아니라 새로운 안목과 뜻을 가진 현현대장부로 자라났다.

글방도련님들의 시종을 들며 어깨너머로 글도 익힌 돌이는 랑반과 서로 판이한 천민의 처지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로 해서 생기는 모든 불행의 근원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돌이는 큰 뜻을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온몸과 넋을 깡그리 바쳤다.

같은 출신의 동료들을 규합하며 동분서주하던 돌이가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더욱 안타까이 모대기게 된 것은 아나와의 사랑이 싹 텃을 때였다. 그들의 기박한 처지는 그들로 하여금 운명을 하나로 련결시켰던 것이다.

돌이와 아나에게서 한스러운 것은 서로가 끝없이 사랑하면서도 결합될 수 없는 것이었다.

노비의 결합은 상전의 승인 없이는 안되는 것이다. 설사 결합되여도 물건처럼 취급되는 노비들은 상전의 결심에 따라 다른 곳으로 팔려 가 생사여부를 알 수 없게 되는 가슴을 찢는 생리별을 당해야만 하였다.

하여 돌이의 가슴에 타번지는 울분과 항거는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불행한 인간들을 위해 이 세상을 증오하고 뒤집어 엎기 위한 것으로 돌려 지게 되었던 것이다.

과연 돌이와 아나와 같은 천민들이 것처럼 역겹게만 느껴 지는 이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될 그 날은 과연 언제이겠는가.

돌이는 아나의 옆에 털썩 주저 앉아 발치에서

나딩구는 조약돌을 집어 들고 무엇인가 골똥한 상념에 잠기더니 그대로 굳어 저 버린듯 싶었다.

이마에는 발고랑 같은 주름살이 깊숙이 패웠다.

걱정스럽게 돌이를 주시하던 아나는 곧 품속을 더듬어 무엇인가 꺼내들고서 수집게 내민다.

《?! …》 군떡이 세조박.

아나는 어줍게 웃으며 돌이의 줌안에 슬며시 쥐여 준다. 《아씨덕에 심부름을 갔더니 부엌너아 주머니가 밤참으로 넣어 준것이예요. 나무람 마셔요.》 거칠게 숨을 몰아 쉬던 돌이는 걱정에 못이겨 아나를 와락 그러안았다.

아나는 돌이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새벽의 전조가 뿌옇게 번져 가고 있었다.

푸르스름한 새벽안개가 밀물처럼 스며 들었고 한강의 수면우에는 밤새들이 살쾅이 내려 앉아 지저귄다. 하루종일 치는 소리가 은은히 흐른다.

아나는 돌이의 억센 가슴에서 살짝 빠져 나와 옷매를 바로 잡았다.

그리고는 무엇인가 바재이더니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저어, 여보세요.》

말을 때놓고는 손가락으로 애꿎은 웃고름만 무의식적으로 잡아 비튼다.

아나는 혼자 몸이 아니라는것을 돌이에게 터놓고 싶었다. 그러나 노비의 자식도 노비인것이다.

장차 태여날 새 생명에게도 자기들과 같은 처지를 물려 주고 싶지는 않았다.

가까스로 용기를 얻은 아나는 다정하게 웃고 있는 돌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누가에서는 맑은 물방울이 불을 타고 흘러 내린다.

《우리 달아나. 북판에는 입자 없는 땅이 많다던데… 사람 없는 심산에 들어 가 살던가 아니면 도망치다가 잡혀 죽는대도 여기서는 한시도 못 살겠어요.》

돌이는 아나를 부서질듯 그러안았다.

가엾은 처녀, 자기 운명에 커다란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삶의 전부인 너인이었다.

돌이도 아나와 함께 타관으로 달아나고 싶었다.

허나 사람의 근본이 피한다고 달라 지는것은 아니었다. 돌이의 양다문 입새에서는 증오가 실린 신음이 새어 나왔다.

돌이는 오열을 터뜨리는 아나의 어깨를 억센 손으로 움켜 잡고서 말하였다.

《아나, 설사 우리가 여기서 도망쳐도 상전을 비롯한 양반놈들이 가만 있지 않을거요. 우리를 붙잡지 못하면 우리 아들, 손자대에 가서도 기어이 족보를 들추어 내어 끌어 갈게란 말이요. 마

소나 개보다도 못한것이 우리의 처지이지. 그 멧예를 벗자면 멧예를 들썩은자들을 때려 얻어야만 하는것이요.》 아나는 경악하여 물러 섰다. 《상전을?...》

돌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나의 작은 손을 다정히 감싸잡았다.

《나 한사람의 힘은 대하의 작은 물방울이지만 아나와 아민령감을 비롯하여 이 땅의 노비들이 일시에 들고 일어 난다면 그까짓 놈들이 무엇이겠소.》

아나는 눈이 휘둥그레 저서 돌이를 올려다 보았다. 두손을 가슴에 꼭 모으고 돌이의 입만을 쳐다본다. 정말 그렇게 될수 있겠는가.

돌이의 열기띤 부르짖음을 들으며 아나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앞에서 13년동안 뼈 저리게 겪어 온 가지가지의 천대와 멸시, 고역, 이 모든것이 언뜩언뜩 지나쳐 버린다.

동녘하늘에서는 어둠이 서서히 물려 가고 빨간 장막이 검푸른 하늘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

그속에서 아침해가 몸부림치며 솟아 올랐다.

아나는 이 모든것이 새롭게만 느껴 졌다.

### 3

아나는 자기 거처로 돌아 왔다.

집안은 아직도 어스럼하여 모든것이 어렴풋한 안개속에 잠겨 있다.

아나는 살며시 부엌문을 열고 들어 가 물동이를 안고 나왔다. 중문을 지나 마당에 나섰다.

《아나야, 오늘은 좀 쉬렴.》

누군가의 썩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나의 등뒤에서 들린다. 아나는 목소리의 입자가 아민인줄 안다. 이 집에서 마흔해를 고역으로 흘러 보낸 종이다. 2살에 잡힐 때 서울에 올라온 류량민들이 버리고 간 살덩이로서 이 집 종의 손에서 살아난 몸이었다. 그러던것이 종의 양아들로 자라다가 문서도 들여 놓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 집 종이 되었던것이다.

한생을 천대와 멸시속에서 제 손자벌되는 글방 도련님들에게조차 사람대접을 못 받고 등이 굽었다.

그가 잠시나마 사람다운 생을 보낸것은 30이 넘어 장가라고 갔을 때였다.

송지덕 작은 딸이 이 집에 시집 올 때 데려온 강녀와 짝을 못게 되었다.

짐승처럼 한뼘 천대속에 나날을 보내던 아민에게 슬픔과 피로움을 함께 나눌 안해가 생긴것이다. 동료들의 지성속에 눈물겨운 초라한 혼례를 치르고 몇해를 흘러 보냈다.

그러나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 법이다.

외아들을 전염병으로 보내고나서 강너마저도 다른 곳으로 팔려 갔다.

상전에게 사정하다가 차례진것은 모진 때뿐이었다. 장독으로 몇달을 앓고 난뒤 자리에서 일어난 아민은 어느새 폴짝 늙어 버려 기운이 쇠잔한 늙은이가 되어 버렸다. 처음에는 동정하던 동료종들도 그가 정신이 이상해 졌다고 수군거렸다.

마치 중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팔다리를 잘 가누지도 못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밤새도록 자지 않고 마당 구석구석을 헤매이었다.

아민에게 가해 진 모진 운명은 그에게 커다란 정신적타격을 주었던것이다.

오직 아나만이 그에게서 먼저 간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 보고서 옷도 기워 주고 어찌다 맛 있는 음식이 생겨도 그의 좁안에 슬며시 쥐여 주었다.

아민은 마당을 쓸던 비를 탁탁 털어 내려 놓고 아나가 가슴에 안고 있는 물둥이를 앗아 내었다. 《이리 내거라. 너는 잠깐만이라도 눈을 붙이렴. 내 물을 길고서 얼른 불을 살려 놓겠다. 참 돌이 그 녀석이 승지댁에 심부름을 간 너를 마중 간다며 초저녁부터 부산을 피우더라. 함께 왔느냐?》 아나는 확 붉어 지는 얼굴을 얼른 감추며 애꿎은 옷고름만 비틀었다.

아민은 자기가 던진 말이 썩 신통했는지 연신 별쨌거리며 성큼성큼 대문을 나섰다.

아나는 굴속 같은 방에 들어 서자 옷목에 꼬부리고 누웠다. 이제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지 않으면 지긋지긋한 하루를 보내기가 힘든것이다.

눈을 감고 잠을 청했으나 정신은 또렷또렷 해지기만 한다. 어쩐지 가슴이 불안했고 머리는 연렁이처럼 무겁다.

아나는 가위에 눌린것처럼 뒤척이며 돌이의 말을 하나하나 곱씹었다. 상전을 때려 옆으면 아나를 비롯한 불쌍한 노비들이 자유롭게 잘살수 있다고 한다. 아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 예는 수리개마냥 무한한 창공을 날고만 싶었다. 정다운 고향의 하늘을 한번만이라도 다시 볼 날은 과연 언제이겠는지...

동구밖을 감도는 소미강의 찬물속에 풍덩 뛰어들어 잔잔한 물결을 헤가르며 옛 고향집으로 가는것만 같았다. 물론 그결에는 현헌대장부인 돌이가 있었다. 자기가 하늘처럼 의지하는 기둥인것이다. 아나는 돌이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을것이다. 모진 세파에 찢기우면서도 차돌같이 단단히 살아 온것은 돌이라는 마음의 소중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기때문이 아닌가.

불안과 초조감, 앞날의 희망을 그려 보며 뒤척이던 아나는 물 먹은 숨처럼 나른해 져 깜박 잠

들어 버렸다. 방안구석 어둠속에서 징그러운 괴물의 축수가 뻗어 나온다. 너부죽한 몸뚱이가 뒤집혀 지더니 짝 벌린 아가리가 나타났다. 놀란 아나는 정신없이 뛰쳐 일어 나 내달렸으나 다리는 결박을 당한듯 도저히 움직이지를 않는다.

온 방안에 무수한 괴물들이 짹 들어 찼다.

이때 마당을 가로 질러 돌이가 지나간다.

아나는 목청껏 돌이를 불렀다. 그러나 돌이는 본체만체 제갈길을 가고 있다...

마당에서 울리는 부산한 발걸음소리에 아나는 망각에서 깨여 났다. 소스라쳐 벌떡 일어 나 문을 열고 밖을 나섰다. 벌써 태양은 높이 솟아 천지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이제는 푸르른 안개도 희미한 룬팍만 어렴풋이 남아 있을뿐이다.

아나는 뒤채를 돌아서 부엌으로 뛰어 갔다.

다급히 물독을 열어 보니 맑은 물이 찰랑찰랑고여 있었고 아궁이에는 장작불이 기세 좋게 타고 있었다. 아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바닥에 살췍이 주저 앉았다.

부엌문이 부서질듯 벌컥 열렸다.

머리가 거꾸시하게 형클어 진 아민령감이 미친 사람처럼 허둥거리며 들어 섰다.

《아나야, 주인이 돌이를 형틀에서 물고를 내겠다고 야단이다.》

아나는 눈앞이 아찔하여 휘청거렸다.

발밑이 꺼지면서 천길나락으로 굴러 떨어 지는것만 같았다. 갑자기 미쳐 드는 듯한 아픔이 심장을 찢른다. 아나의 가냘픈 두어깨가 경련을 일으키며 푸들거렸다.

《매 맞는 상노아이를 두던하다가 주인과 대거리를 했다더라. 이제는 죽은 목숨이야...》

넋없이 중얼거리던 아민의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나가 뛰쳐 일어 나 사랑쪽으로 달려 가는것을 본것이다.

아나는 중문을 지나 사랑채앞에 이르렀다.

형체도 알아 보기 힘든 돌이가 형틀에 매여 있었고 무지한 하인놈들이 몽둥이로 란타하고 있었다. 수십여명의 사노들이 마당구석에 웅기종기 모여 서 있다.

침울한 그들의 눈길에는 분노와 비분이 착잡하게 실려 있다. 돌이의 참상을 통해 자기들의 앞날을 찾아 보게 되었던것이다.

낮짜를 잔뜩 일그러 뜨린 상전은 마루우에서 괴거품을 물고 길길이 날뛴다.

《애들아, 사정 보지 말고 대살해 버려라. 란장으로 다룬뒤 자루를 씌워 한강에 처넣고야 말테다.》

주인의 눈치를 힐끔힐끔 살피던 하인녀석들의

몽둥이가 타작하듯 돌이의 몸에 쏟아져 내렸다.

돌이의 음울한 신음소리가 울렸다.

주인에게 항거한 노비는 죄를 빌어도 소용 없다. 돌이는 죄를 빌지 않았다.

비록 가슴에 품은 한과 큰 뜻을 이루어 보지도 못하고 형틀에서 숨이 진다 해도 떳떳하게 죽음을 맞고 싶었다. 돌이는 툭툭 부어 오른 눈을 가까스로 들어 주위를 둘러 보았다.

머리에서 흘러 내리는 피가 자꾸만 눈앞을 가리운다. 제발 여기로 아나가 오지 않으면 좋으련만... 참으로 불행한 녀인인것이다.

그의 의지가 되고 마음의 기둥이 되어 억압과 천대가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였지만 이렇게 원통하게 죽어야만 하지 않는가.

돌이는 가슴속에 가득 차서 마침내 터지는 울분을 못 이겨 몸부림쳤다. 돌이의 양다문 입새에서 피에 절은 절규가 터져 나왔다.

《원통하구나. 우리 같은 천민들이 기를 펴고 살 그날을 보지 못하고 가다니... 이놈, 내 눈을 똑똑히 바라. 내 비록 이 한을 풀어 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네놈의 잔명도 얼마 남지는 않았다.》

돌이의 절규를 들은 주인놈은 기가 막혀 입을 썉 벌렸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주인놈은 하인들을 기갈하며 미친듯이 고함쳤다. 《망신이로고, 이젠 사노놈에게 기갈 당하는 세상이 다 되었던 말이나. 고현놈들, 어서 저놈을 때려 죽이지 못할가.》 주인놈의 독촉을 받은 하인놈들의 우직한 몽둥이가 돌이의 몸에 실새없이 떨어진다.

이때 정신없이 형장에 뛰여 든 아나가 비명을 지르며 몽둥이가 비발치는 속에 뚫고 들어 가 돌이의 갈가리 찢겨진 몸을 덮었다.

《안돼요. 다치지 말아요.》

아나는 파들과들 경련이 이는 손가락으로 돌이의 헤쳐진 상처를 쓰다듬었다. 원한이 실린 눈가에서는 눈물이 불을 타고 견잡을수 없이 흘러 내린다. 돌이는 입가에서 흘러 내리는 피자국을 씻어내는 아나에게 맥 없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들의 정상이 참으로 눈물겨운것이기에 무지한 하인놈들도 고개를 돌려 버렸다.

사노들이 웅성거리며 그들의 주위로 모여 들었다. 그들의 눈가에서는 증오의 불길이 이글거렸다. 사태가 점점 험악해 지자 주인놈은 쓴입을 다시며 사납게 눈을 흘겼다. 상전의 수족을 대신하는 수노(우두머리 종)놈이 아나의 머리채를 움켜잡았다. 《이년을 골방에 가두어라.》

하인놈들이 우르르 몰려 와 아나의 팔을 잡아 끌었다. 아나는 돌이에게서 떨어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으나 무지막지한 수노놈의 발길질에 복

장을 채우고 혼절하여 쓰러졌다.

쌀쌀한 바람이 한줄금 지나가며 처량한 소리를 내었다.

주위는 공포의 침묵속에 잠겨 버렸다.

아나는 열에 바싹 타들어 간 입술을 감빰며 간신히 눈을 들어 주위를 일별하였다.

피피한 헛간안은 곰팡이냄새와 삼씨냄새가 물씬물씬 풍긴다. 문이 찌쿠둥 조심히 열리면서 아민령감이 발뼉발뼉 들어 섰다.

아나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그의 충렬된 눈이 아민에게 멎어 섰다. 아민은 아나의 정상을 보고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결박을 풀어 주고 소리를 낮추어 속삭인다.

《아나야, 어서 몸을 피하거라. 어디로든 너 갈 데로 가거라.》

아나는 아민의 양상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열을 터뜨렸다. 아민은 눈물을 씹어 삼키며 아나를 달랬다. 《뒤문을 열어 놓았으니 어서 가거라.

돌이는 전옥서(형조에 속한 감옥)로 끌려 갔는데 오늘을 넘기기가 힘들거다. 그가 끌려 가기전에 너에게 말을 남겼다. 이 밤으로 막바지골 리영생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찾아 가 이 일을 전해 달라더라. 그러니 한시바삐 이 저주로운 집에서 떠나가거라.》 아민은 흑흑 흐느끼는 아나의 두팔을 억지로 잡아 일으켜 밖으로 데려 내왔다.

자그마한 보통이를 들러 주고는 뒤문으로 떠밀었다. 《내 걱정은 말고 어서 가거라.》

아나는 오열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오래오래 사세요.》

아나가 어둠속으로 사라지자 아민은 허둥지둥 뛰여 나왔다. 잠시후에 달빛아래 하얗게 구불거리는 골목길우에 아나의 그림자가 나타났고 곧 왼쪽골목으로 사라져 버렸다.

아민은 고적감에 가슴이 찢기는듯 했다.

아나와 아민에게는 부녀간의 정, 인간의 따뜻한 정이 단단히 엮매여 있었던것이다.

아나가 떠나가버리자 아민은 자기의 기박한 생활에서 그가 얼마나 큰 몫을 차지했는가를 깨닫고는 꺼지게 한숨을 쉬며 무너져 앉았다.

현기증에 머리가 어지러워 지고 팔다리는 맥없이 축 늘어져 버렸다.

느닷없이 그의 입새에서는 장탄식이 새여 나왔다. 《모두 떠나가버리는구나.》

## 4

수군거리던 목소리들이 곧 잦아 들었다.

묵묵히 숙이고 있던 상반신들이 벌떡벌떡 쳐들었다. 장정 하나가 문을 열고 토방에 나서며 소리를 죽여 묻는다. 《거, 누구요?》

차갑게 비치는 달빛아래 삼작넘어에서 자그마

한 머리가 머뭇거렸다.

《저, 혹시 이 집이 리영생이라는분의 집이 아닌지요?》 뜻밖에도 가냘픈 처녀의 목소리이다.

토방우에 나섰던 장정이 성큼 내려 서더니 삼작문을 열어 제겼다. 처녀의 우아태를 살살이 훑어보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리영생이네. 자네는 누군가?》

처녀의 두뺨에서 흘러 내리는 눈물을 본 사내는 사연을 짐작했는지 말없이 집안으로 이끌었다.

새벽달이 채를 넘은지 오래되었다.

사면은 고요하다. 푸근하고도 차거운 새벽안개가 뼈속깊이 스며 들었다. 서울장안의 집들은 어렴풋한 새벽안개에 잠겨 있는것이 마치 수면우에 떠있는 무수한 편주와도 같았다. 지평선우에 들쭉날쭉 솟아 오른 봉우리들은 뿌연 하늘에 굵은 선을 그은것만 같이 보였다. 1426년 2월 15일의 날이 밝은것이다. 이제는 장밤을 등잔불아래서 지새운 장정들의 룰락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리영생은 거칠친 몸을 일으키며 환하게 밝은 창을 열어 제겼다. 《새날이 밝았군. 밝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세움은 인간법도가 정해 준 도리이지... 돌이가 불행을 당했으니 거사를 한시바빠 앞당겨야 하겠소.》

모두가 자리를 일며 팔을 부르건고 호응해 나갔다. 《두령, 령을 내려 주시우.》

리영생은 추연한 기색으로 동료들을 둘러 보았다. 그들은 모두가 노비들이거나 서울에서 결식하는 류랑민들의 패두들이었다. 억압과 천대를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들이었던것이다.

《거사는 앞당겨 오늘 밤에 일으켜야 하오. 돌이가 일을 당했으니 동료에 대한 의리도 지쳐야 할뿐더러 이 기회를 통해 약조한대로 장안의 노비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 나야 하오. 포청에서 벌써 냄새를 맡은가 보오. 현대 처음 약조한대로 맨 처음 전옥서를 불지르고 동료들을 빼내면서 그것으로 거사의 신호를 삼자던 노릇이 참, 난처해 졌는걸...》

영생은 문득 이마살을 찌프리며 난감한 기색을 지었다. 원래는 돌이가 전옥서옆에 붙어 있는 대부(벼슬이름-정3품 통정대부를 이르는 말)정련(돌이의 상전)을 죽이고 불을 질러 전옥서 형리들의 주의를 상전택으로 돌리고 그때를 타서 여러 폭동자들이 감옥을 들이쳐 갇혀 있던 동료들을 빼낸후 장안의 곳곳에서 일제히 호응하기로 되어 있었던것 이다.

이때 방안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던 아나가 침울한 방안공기를 깨뜨리며 조용히 일어 섰다.

《소녀가 상전의 집에 불을 지르겠소이다. 그이가 맡은 일을 소녀가 감당하겠으니 여러분들은

그때를 타서 일을 벌려 주세요.》

팔짱을 끼고 깊은 상념내 잠겼던 영생이 하나의 제의를 듣고 소스라쳐 놀랐다.

《대부 정련의 집을?...》

영생은 하나의 제의에 선뜻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었다. 수천사람의 목숨이 실린 막중대사를 연약한 저 녀인이 감당해 내겠는가. 거사가 중요한것이기에 돌이도 같은 출신의 동료들은 물론 저 녀인에게까지 숨겨 오지 않았던가. 영생은 하나의 얼굴에서 무엇인가 찾으려는듯 뚫어 지게 바라보았다. 하나의 슬픔에 지쳐 푸르죽죽해 진 눈가녀에는 시름과 고생의 흔적인 주름살이 잡혀 있고 금방이라도 오열을 터뜨릴듯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러나 지못게 영생을 주시하는 그 맑은 눈동자만은 비장한 결심과 의지를 담고 번뜩인다. 영생은 아나에게 끌리듯 다가가 그의 작은 어깨에 손을 얹으며 기대가 실린 어조로 무겁게 말을 하였다. 《어려운 일일세.》

아나의 도드름한 입술이 옥몰려 졌다.

마침내 영생은 중대사를 결심한듯 좌중을 둘러 보고는 하나의 얼굴에 시선을 멈추고 말을 맺었다. 《자네의 한몸에 수천사람의 목숨이 실렸다는 것을 명심하고 꼭 성사해 주게.》

이어 영생은 아나가 대부 정련의 집을 불 지른후 도성안의 노비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 날 방안을 구체적으로 짜나갔다...

밤이 깊어 삼경무렵이 되자 순라군들이 딱따기를 치며 골목을 지나다.

맑게 개인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하다. 먼데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마치 딴 세상의 소리 같다.

어느 집에선가 내걸은 초롱만이 한적한 거리를 말없이 주시하고 있었다.

순라군들의 가락 맞은 야경소리가 차츰 멀어지자 전옥서 담벽뒤에서 작달막한 그림자가 튀어나온다. 실골목으로 살짝 지쳐 나가더니 어느 한 담벽옆에서 멎어 섰다. 아나였다.

발씨 익은 걸음으로 자신 있게 왼쪽으로 돌아 그중 낮은 담벽옆에서 한참이나 신고하던 끝에 넘어 들어 간다. 아나는 주춤거리며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사랑마루에 올라 서서 장지문에 귀를 도사렸다. 앞마당에는 사랑채의 그림자가 스산하게 비껴 있다. 커다란 장지문이 소리없이 열렸다. 아나는 재빨리 미끄러져 들어 가 자던 자에게로 다가간다. 손에 든 시퍼런 식칼이 달빛에 번쩍이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자던 자가 머리를 쳐들었다. 《누 누구냐...》

순간 그자의 면상으로 칼이 들어 가 박힌다.

얼굴 반쪽이 찢어져 너덜거렸다. 아나는 피이한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거리는 상전에게 또다시

달려 들어 가슴에 깊숙이 칼을 박았다.

처절한 비명소리가 밤공기를 길게 찢며 울려 갔다. 정신없이 마당으로 뛰쳐 나온 아나는 사랑채를 뒤에 두고 달렸다. 발을 걸채여 넘어 졌다가 가까스로 땅을 짚고 일어 나 다시 달린다. 여기저기에서 화불들이 치솟았다. 하인놈들이 뛰어 나왔다. 사랑채뒤에는 조상의 신주와 위패를 안치한 사당이였다. 사당뒤로 돌아 들던 아나는 누군가와 부딪치고 경악하여 물러 섰다.

《다가오지 말아요.》 야무진 목소리로 기갈하며 칼을 건주고 뒤걸음쳤다.

《아나가 아니냐?》

상대는 깜짝 놀라 굳어 저 버린다. 아민이였다. 이때 《사람 죽었다-》하는 고함소리와 함께 비단을 찢는듯 한 계집의 비명소리가 뒤따랐다.

아민은 사태를 짐작하고 아나의 손목을 잡고 자기쪽으로 잡아 쳤다.

파랗게 질린 아나의 얼굴이며 그의 손에 들린 피 묻은 식칼을 보고서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입을 쩍 벌렸다.

《이것아,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어서 피하거라. 어서...》

아민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어느새 어둠속에서 두억시니 같은 그림자가 덮쳐 들더니 아나의 머리채를 사납게 움켜 잡고 땅에 매어 꽂았다.

《네년이 대부어른을 해친 살인자였구나.》

망연자실하여 이 모든것을 아연해서 바라보던 아민의 얼굴이 사납게 이그러 졌다. 순간 아민의 체소한 몸이 돌덩이처럼 그놈에게로 날았다.

억-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그자의 몸뚱이가 땅에 구겨 박힌다. 아민은 아나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다. 사랑채앞에서 갈팡질팡하던 놈들이 우르르 달려 든다. 그러자 아민은 미친 사람처럼 눈을 홑뜨고 사납게 칼을 휘둘렀다. 그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아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던것이다.

맨앞에서 달려 들던 수노놈이 피를 뿌리며 쓰러지자 나머지 놈들은 주춤거리며 물러 섰다.

공포에 질린 비명이 집안밖을 팍 채웠다.

아나는 고간을 향해 달렸다. 귀전에서는 벌떼가 날개짓 하는듯 한 소리가 실새없이 들렸고 다리가 맥없이 휘청거렸다.

아나가 뒤를 돌아 본것은 무지한 몽둥이에 머리가 깨진 아민이 땅에 쓰러질 때와 거의 동시였다. 창고에 다달은 아나는 문을 열어 제끼고 뛰어들어 갔다. 이제 놈들이 여기까지 달려 올것이다. 아나는 기력을 다해 문을 닫고 장대기를 안으로 가로 질렀다. 옷고름을 헤쳐 기름병을 꺼내들었다. 치마자락을 북 찢어 내어 거기에 기름을 들부었다. 부시들을 꺼내들고서 쫓기 시작하였다. 불꽃만 사방에 날릴뿐이다.

한번, 두번, 세번만에 불이 붙었다.

황, 황, 밖에서는 도끼로 문을 쪼갰다.

아나는 불 붙는 천조각을 손에 들고 고간에 가득 쌓인 쌀더미를 이리저리 헤쳤다. 불길기 아나의 손을 핏으며 그의 옷자락에 확 당겼다.

마침내 기름독을 찾아 내고는 뚜껑을 열어 제끼고 바닥에 넘어 쓰러졌다.

시꺼먼 기름이 팔팔 쏟아져 바닥을 흥건히 적셨다. 마침내 문이 쪼개지며 놈들이 우르르 밀려들었다.

아나는 웃었다. 그 녀자의 전 생애에서 이처럼 마음 놓고 웃어 본적은 이것이 처음일것이다.

날름날름 아나의 온몸을 휘감았던 불길기 기름통에 가붙었다. 경악한 사람들의 무리가 공포에 질려 황급히 뒤걸음쳤다.

잠잠하던 하늘에 미친바람이 터졌다. 미친듯이 날뛰는 광풍에 들쭉날쭉 저저마다 키를 굽구던 불길기 온 집안에 퍼져 가 붙었다.

모질게 웃던 아나의 웃음소리가 불길속에서 사라 졌다. 불기둥이 하늘을 누렇게 물들이며 타래처럼 올랐다. 동쪽에서도 솟아 오르고 서쪽에서도 타번진다. 불길은 검은 하늘의 별까지도 태워 버릴듯 사납게 용을 쓴다. 대부 정련의 집을 짓밟아 몽겐 불길은 전옥서에도 번져 갔다.

서울 전옥서가 불의 무게에 못 견디여 마침내 주저앉아 버렸다. 수천의 노호성이 하늘땅을 뒤흔든다. 마치 원한 서린 냇의 응어리인듯 억압받는 자들의 함성소리는 끊기지 않는다. 장안의 곳곳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거대한 화산마냥 열기를 뿜었다.

천지를 빨강게 채색해 놓고도 이 땅의 모든 악귀를 모조리 태워 버리려는듯 맹렬히 타번진다.

X

1426년 2월 15일과 16일에 걸쳐 진행된 서울 방화폭동은 중세 력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의 폭동이었다. 그 조직성과 규모에 있어서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것이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들에 걸친 폭동에 전옥서, 경시서(상업을 맡은 관청)를 비롯한 관청들과 수천채의 집이 불 탔는데 그중 2천채의 집은 양반사대부들과 부자집들이었다고 하였다.

당황망조한 봉건통치배들은 금화도감이라는 관청까지 새로 내오고 방화를 막는 한편 전국에 지시를 내려 폭동자들을 잡아 내려고 미쳐 날뛰는 소동을 일으켰다. 비록 폭동은 초지와는 달리 짧은 시일에 끝났으나 그 의의는 거대한것이다. 그것은 억압받던 천민들의 대중적폭력진출의 시작이었다.

서울방화폭동의 불길은 그후 기세차게 타번져 대성산농민폭동을 불러 왔으며 봉건왕조통치 500년간 끊임 없는 천민들의 폭력적진출을 밝혀 주는 화산으로 되었던것이다.